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博士學位論文

『狄公案』小說 研究

濟州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金奎兌

2019年 8月

# 『狄公案』小說 研究

指導教授 趙 成 植

金 奎 兌

이 論文을 文學 博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9年 6月

金奎兌의 文學 博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①

委 員 \_\_\_\_\_ ①

委 員 \_\_\_\_\_ ①

委 員 \_\_\_\_\_ ①

委 員 \_\_\_\_\_ ①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9年 6月

# 目 次

【국문요약】 .....	i
I. 緒 論 .....	1
1. 研究 現況 및 目的 .....	2
2. 研究 範圍 및 方法 .....	8
II. 『狄公案』의 창작배경과 현실인식 .....	11
1. 정치사회적 배경 .....	12
2. 문학적 배경 .....	16
3. 작가의 현실인식 .....	21
4. 소결 .....	30
III. 狄仁傑의 문학적 형상화 과정 .....	32
1. 역사인물 狄仁傑 .....	32
2. 문학인물 狄仁傑 .....	45
3. 소결 .....	57
IV. 『狄公案』의 인물형상 .....	59
1. 狄仁傑 인물형상 .....	59
1) 판관 형상 .....	60
2) 간관 형상 .....	65
3) 군 지휘관 형상 .....	70
2. 부차적 인물형상 .....	75
1) 조력자 형상 .....	75
2) 가해자 형상 .....	80
3) 피해자 형상 .....	87
3. 소결 .....	92

V. 『狄公案』의 서사구조 .....	94
1. 공안소설의 서사구조와 특징 .....	94
1) 화본체의 沿用 .....	94
2) 공안소설의 서사구조 양상 .....	98
2. 『狄公案』의 서사구조 .....	101
1) 『狄公案』 서사구조 模式 .....	101
2) 『狄公案』 서사요소의 전개양상 .....	104
3. 『狄公案』의 서사특징 .....	127
1) 작품 속 설정의 오류 .....	128
2) 사건의 연쇄식 안배 .....	133
3) 제한적 서사시점 .....	135
4. 소결 .....	137
VI. 結 論 .....	139
參 考 文 獻 .....	142
<부록> 狄仁傑年譜簡編 .....	145
【ABSTRACT】 .....	149

## 表 目 次

표2. 1890-1919년간 중국근대소설 발표현황 .....	17
표3. 狄仁傑 관련 고대소설 .....	46
표5-1. 첫 번째 사건 : 六里墩 비단상인 살해사건 .....	102
표5-2. 두 번째 사건 : 皇華鎮 淫婦 남편 살해사건 .....	102
표5-3. 세 번째 사건 : 華文俊 妻 急死사건 .....	103
표5-4. 네 번째 사건 : 淫僧 懷義의 민녀납치사건 .....	103
표5-5. 武承業과 武承嗣의 혼용상황 .....	130
표5-6. 전반부 사건의 연쇄성 .....	134

# 『狄公案』小說 研究

金 奎 兌

濟州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指導教授：趙 成 植)

## 【국문 요약】

중국 공안소설은 범죄문학이 갖는 보편성에 중국의 오랜 전통사상이 결합된 형태의 독특한 장르라 할 수 있다. 공안소설은 魏晉南北朝의 志人, 志怪소설에서 비롯되어 唐·宋代를 거쳐 明代에 이르러 독립적인 형태를 갖추게 되고, 清代에는 俠義小說과 결합하여 俠義公案小說이라는 장르를 만들어낸다. 이 과정에서 판관이 이야기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고, 판관은 ‘淸官’이라는 중국의 전통적 관념을 반영하여 보다 완벽한 인물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宋代의 包拯을 주인공으로 하는 『百家公案』과 같은 작품에서 시작되어 각 시대를 대표하는 淸官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작품들이 연이어 등장하게 된다. 이 중 唐代의 명재상 狄仁傑을 주인공으로 하는 작품이 바로 『狄公案』이다.

『狄公案』은 청말 光緒 연간에 나온 64회로 구성된 長篇 白話公案小說로 여기에는 唐代를 비롯하여 明·清代에 이르기까지 실제 역사인물 狄仁傑을 등장인물로 삼은 다양한 淵源故事들이 수용되어 있다. 이러한 淵源故事에서 형성된 문학인물 狄仁傑은 『狄公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었고, 이를 통해 狄仁傑을 민중의 염원을 대신 실현해줄 하나의 영웅으로까지 형상화되었다.

『狄公案』의 창작배경은 청말의 혼란한 사회현실과 청 왕조의 마지막 권력자라 할 수 있는 慈禧太后를 비판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당시의 지식인들이 일반 민중을 계몽하기 위해 만든 신문과 잡지를 포함한 출판물에 실린 譴責小說은 『狄公案』을 비롯한 이 시기에 출간된 여타의 공안소설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한편, 『狄公案』의 강한 사회비판성은 지배세력, 특히 慈禧太后를 비판하던 당

시 대중들의 공감을 샀으나 반대급부로 청대의 ‘文字獄’으로 대표되는 문인탄압정책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감추고자 『狄公案』에는 작가의 이름이나 필명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狄公案』은 주인공인 狄仁傑과 그를 따르는 네 명의 수하, 그리고 그들을 돕는 여러 호걸들이 사건을 해결하는 전형적인 공안소설의 서사를 따르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필연적으로 생기기 마련이다. 『狄公案』에서는 이들을 통해 당시 사회의 불합리한 모순을 드러내고 이를 비판하는데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狄公案』의 인물형상은 작가의 현실인식을 드러내주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서사측면에서 『狄公案』은 典範化된 공안서사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하지만 꿈이나 귀신과 같은 비현실적인 요소를 자제하려는 개선의 노력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또한 章回體의 장편소설이라는 특징에 맞게 여러 가지 서사형식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제한적인 서사시점을 도입하여 소설의 긴장감을 유지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청관’이라는 인물을 내세우는 영웅주의와 ‘인과응보’, ‘권선징악’이라는 전통적인 주제의식을 강조하는 유교적 교화를 부각시킨 점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한편, 작품의 성격상 『狄公案』은 전반부의 민간형사사건과 후반부의 궁중정치투쟁으로 나뉘는데, 후반부의 이야기는 공안소설로서의 성격을 희석시킨다는 단점이 있으나 창작배경을 고려해보면 오히려 더욱 주목받아야 할 부분이다. 작가는 당대 武則天 집권기의 혼란한 정치상에 당시의 현실을 녹여내었다. 그리하여 독자들은 武則天을 위시한 무씨일파와 狄仁傑과의 대립을 통해 慈禧太后的 부정함과 그녀를 따르는 세력의 부패를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되고, 그들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다.

『狄公案』은 비록 明·清代의 뛰어난 소설작품들과는 비교할 바가 안 되는 취약점을 보인다. 하지만 공안소설의 전통 위에서 이를 계승하고 근대의 탐정·추리소설로 이어지는 과도기적 성격을 띠는 작품으로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주제어: 『狄公案』, 公案小說, 清代小說, 탐정소설, 狄仁傑, 인물형상, 淸官, 서사구조, 현실인식.



## I. 緒 論

우리가 사는 인간세상은 밝고 어두운 양면이 존재한다. 이중 범죄는 어두운 면을 대표하는 사회 현상이다. 이에 대해 우리 인간은 오랜 세월동안 언어 등의 표현수단을 통해 관심과 주의를 두어왔다. 문학에서 범죄는 여러 가지 문학의 전통적 제재 가운데 하나로 사용되어 수많은 작품으로 만들어졌다. 표현하는 방식은 제각각이겠으나 범죄를 제재로 하고 인간세상의 어두운 면을 핏진하게 묘사하는 문학을 특별히 ‘범죄문학’이라고 칭한다.<sup>1)</sup> 서양의 추리소설, 탐정소설이 대표적인 범죄문학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의 범죄문학은 ‘公案文學’이라는 이름으로 칭해져 왔다. 형식에 따라 희곡의 경우 ‘公案戲’, ‘公案雜劇’, 소설의 경우는 ‘公案傳記’, ‘公案話本’, ‘公案筆記’, ‘公案小說’ 등으로 구분하겠으나 주요 제재가 모두 범죄를 다루고 있다는 공통점에서 이를 公案文學이라는 범주로 포괄할 수 있다.

‘公案’은 사전적 의미로 관가의 공문서, 사건의 기록문서, 관리가 사건을 심리할 때에 사용하는 탁자, 禪師에게서 얻는 禪的 경험의 기록을 뜻한다. 禪家에서 사용하는 공안을 제외한 나머지를 병합하면 관가에서 쓰는 공문서 중 어떠한 사건을 심리한 사건 기록문서를 ‘公案’으로 정의할 수 있다.

‘公案’이 소설의 여러 장르 중 하나로 쓰이게 된 것은 宋代 話本부터이다. 宋代 話本에서 등장한 ‘說公案’에서부터 공안소설이라는 말이 비로소 탄생하게 되었다. 물론 공안소설의 제재는 그보다 더 오래전인 魏晉南北朝 志怪·志人소설로부터 시작되지만 말이다. 志怪·志人소설로부터 시작된 공안문학은 당 전기, 송 화본, 원 잡극을 거치며 그 소재와 서사 측면에서 유의미한 발전을 이룬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탄생한 明代의 公案斷篇專集과 清代의 長篇俠義公案小說是 공안소설의 정화로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중국문학사에서 公案文學은 연구가 미진한 편에 속한다. 이는 공안소설이 독립적인 소설의 유형으로 존재한 것이 아닌 여러 필기소설과 문언소설, 화본소설 등에 산재되어 비독립적인 형태로 유지되어 왔기 때문이며<sup>2)</sup>, 명대에 이르

1) 강주완, 『『百家公案』研究』,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02, 1쪽.

러 공안제재만을 다루는 公案小說專集이 등장했으나 文學史的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평가는 공안소설이 지닌 서사적 한계나 사상적 단점에 기인한다.

공안소설은 범죄문학이라는 장르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사건발생-사건해결과정-판결의 구조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태생적 한계를 지닌다. 즉, 이야기의 서술이 단편적이라는 말이다. 또한 제재가 민간의 고사에서 유래되어 내용이 조잡하다.

사상적 측면에서 공안문학, 특히 명대의 公案專集은 忠, 孝 등의 유교적 도덕관을 통해 백성을 교화하려는 목적이 있으며, 또한 이를 통해 사회체제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그런 까닭에 이를 일종의 저급한 어용소설로 보는 관점도 존재한다.<sup>3)</sup>

그러나 이들 작품에는 분명 당시의 어두운 사회의 일면을 범죄상황 속에 숨겨 은유적으로 드러내는 풍자적 성격이 존재하며, 명판관들의 뛰어난 사건해결을 통해 개인의 억울한 원한이나 사회에 대한 불만을 풀어내는 대리만족의 성격 또한 엿볼 수 있다.

## 1. 研究 現況 및 目的

공안소설에 관련된 학위논문과 소논문, 단행본 등을 바탕으로 기존의 연구 현황을 요약해보면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明代 公案小說專集 관련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공안소설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연구는 명대의 公案小說專集을 주제로 삼는 경향이 있다. 명대의 公案小說專集은 작품성이나 주제의식의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지만 연구자들은 명대의 公案小說專集이 공안소설의 발전과정에서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夏啓發의 「明代公案小說研究

2) 고숙희, 「包公 公案小説 研究 : 『百家公案』과 『龍圖公案』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2003. 2쪽.

3) 강주완, 「『百家公案』研究」,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02. 3쪽.

」<sup>4)</sup>는 박사학위논문으로 명대 萬曆 이후에 등장하기 시작한 公案小說專集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이외에도 臯于厚의 「明代公案小說的發展演進」<sup>5)</sup>은 명대 공안소설의 발전과정에 대해 서술하고 있고, 邵婷君의 「明代斷篇公案小說專集模式研究」<sup>6)</sup>는 斷篇公案專集의 주제 유형과 서사 유형을 분류하여 서술하였다. 그 밖에 曾玲은 「明代白話公案小說中判官形象的發展和演變」<sup>7)</sup>에서 공안소설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판관형상의 발전과정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한 苗懷明의 「明代斷篇公案小說集的商業特性與文學品格」<sup>8)</sup>은 斷篇公案專集의 번영 원인 중 하나인 상업특성에 집중하여 서술하고 있다.

둘째, 清代의 俠義公案小說에 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청대의 협의공안소설은 청대 통속문학사상 독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包拯 관련 공안소설인 『百家公案』이나 『龍圖公案』에서 발전한 『三俠五義』와 같은 작품이 대표적인 협의공안소설이라 하겠다. 학위논문으로 范正群의 「清代俠義公案小說研究」<sup>9)</sup>가 있다. 이 논문은 협의공안소설의 흥기와 번성, 쇠락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밖에도 劉強의 「清代長篇俠義公案小說的民間化傾向」<sup>10)</sup>은 협의공안소설의 등장인물인 ‘俠客’과 ‘清官’을 偶像化한 民間意識이 문학작품에 반영된 예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연구로 楊小娜의 「俠義公案小說的平民文學色彩」<sup>11)</sup>가 있다. 閔博은 「清代俠義公案小說的敘事模式研究」<sup>12)</sup>에서 청대 협의공안의 서사 유형과 기교에 대해 서술하였고, 李世新의 「俠義小說和公案小說合流的社會文化探源」<sup>13)</sup>은 협의소설과 공안소설이라는 다른 장르가 결합되는 과정과 그 원인에 대해 밝히고 있다.

셋째, 包拯(包青天) 관련 공안소설의 연구가 활발하다.

包拯은 北宋代의 名臣이자 判官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또한 清官의 대명사로

4) 夏啓發, 「明代公案小說研究」, 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 박사논문, 2001.

5) 臯于厚, 「明代公案小說的發展演進」, 『江蘇警官學院學報』, 1999年 6期.

6) 邵婷君, 「明代短篇公案小說專集模式研究」, 南京師範大學 석사논문, 2007.

7) 曾玲, 「明代白話公案小說中判官形象的發展和演變」, 『牡丹江師範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8年 2期.

8) 苗懷明, 「明代短篇公案小說集的商業特性與文學品格」, 『社會科學』, 2001年 3期.

9) 范正群, 「清代俠義公案小說研究」, 揚州大學 박사논문, 2008.

10) 劉強, 「清代長篇俠義公案小說的民間化傾向」, 青島大學 석사논문, 2007.

11) 楊小娜, 「俠義公案小說的平民文學色彩」, 『民辦教育研究』, 2009年 8期.

12) 閔博, 「清代俠義公案小說的敘事模式研究」, 陝西理工學院 석사논문, 2011.

13) 李世新, 「俠義小說和公案小說合流的社會文化探源」, 中南民族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2006年 1期.

불리는 인물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包拯의 행적이나 일화는 여러 서적이나 민간전설을 통해 流傳되다가 문학작품에 수용된다. 명대의 공안전집인 『百家公案』이나 石玉崑의 『三俠五義』가 대표적인 작품이다. 包拯 관련 고사에 대한 대표적인 국내 연구로 강주완의 박사논문 「『百家公案』研究」<sup>14)</sup>와 고숙희의 박사논문인 「包公 公案小説 研究」<sup>15)</sup>를 들 수 있다. 강주완의 논문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百家公案』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로 평가되며, 고숙희의 논문은 강주완의 논문에서 다룬 『百家公案』과 같은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는 『龍圖公案』을 중심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중국의 연구는 이보다 훨씬 심화되고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孔繁敏의 『包拯研究』<sup>16)</sup>는 包拯의 생애, 包拯의 집안과 후손 등 包拯과 관련된 사항을 서술하고 있다. 包拯에게 ‘중국의 셜록홈즈’라는 이름을 붙여준 胡適의 『三俠五義序』<sup>17)</sup>는 이후에 진행된 연구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이후의 연구들이 대부분 그의 말을 인용하여 서술하고 있음은 그 증거가 될 것이다. 朱萬曙의 『包公故事源流考述』<sup>18)</sup>은 포공 고사를 폭넓게 다루고 있는데, 원대 包公戲로 시작하여 명·청대 포공 관련 문학작품들을 포괄적이고 심도 있게 고찰하고 있다.

이상의 공안소설 관련 기존 연구현황을 살펴본 결과 공안소설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제기하는 바이다.

첫째, 특정 시대의 특정 작품에 연구가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공안문학의 역사는 위진남북조시대로부터 시작되므로 기존의 명대 공안전집과 청대 협의공안소설에 편중된 연구는 범위의 설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또한 包拯이 관관(혹은 淸官)의 대표인물이라 일컬어지지만 狄仁傑, 于成龍, 施仕倫, 海瑞 등 역대의 여러 명판관들도 그에 못지않은 대표성을 지니는 인물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소재로 하는 공안작품들도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둘째, 작품의 문학연구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공안소설은 그 특수성에 기인하여 법의학, 사법문화 등 다른 학문분야와의 접점이 매우 많다. 하지만 공안

14) 강주완, 「『百家公案』研究」,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02.

15) 고숙희, 「包公 公案小説 研究 : 『百家公案』과 『龍圖公案』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2003.

16) 孔繁敏, 『包拯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8.

17) 胡適, 「三俠五義序」, 『胡適文存3集』, 首都經濟貿易大學出版社, 2013.

18) 朱萬曙, 『包公故事源流考述』, 安徽文藝出版社, 1995.

소설의 연구는 인물형상, 서사구조 등 전통적인 연구 범위에 한정되어 연구되는 경향이 있다. 최근 들어 다른 학문분야와 연관된 연구 성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연구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청말의 공안소설 중 俠義公案類에 들지 않으면서도 독특한 소재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狄公案』을 연구대상으로 선택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狄公案』과 관련된 연구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狄公案』 관련 연구는 초보적인 단계에 그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몇몇 학술논문에서 잠시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 본격적으로 『狄公案』을 다룬 연구는 필자의 논문<sup>19)</sup>이 유일하다. 국외의 연구 또한 이와 비슷한 양상이다. 『狄公案』만을 다루고 있는 학위논문은 대만출신 黃憶婷의 석사논문 「『狄公案』與史事之互證研究」<sup>20)</sup>가 유일하며 기간논문도 몇 편 존재한다. 黃憶婷의 석사논문 「『狄公案』與史事之互證研究」는 『狄公案』의 특징인 정치성에 방점을 찍은 연구라 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미상인 『狄公案』의 성서시기와 작가에 대해 여러 문헌을 가지고 추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狄公案』의 창작의도에 관해 고찰하였다.

王凡의 「『狄公案』中的江湖豪俠形象及其意蘊探微」<sup>21)</sup>는 『狄公案』 속에서 狄仁傑의 조력자로 등장하는 喬泰, 馬榮, 陶干 등의 강호호걸들이 『狄公案』에서 어떠한 작용을 했는지, 이를 통해 작가가 가지고 있는 ‘俠義觀’이 어떻게 작품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王凡은 이 논문에서 『狄公案』에 등장하는 江湖豪傑형상이 기타 清代俠義公案小說의 俠客형상과 비교했을 때 단순하고 평면적이며 인물의 복잡한 심리전개가 부족하지만, 『狄公案』에서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으며 또한 이후의 작품들의 창작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말한다. 그 밖의 관련 논문으로는 汪達文, 呂小蓬의 「從敘事學角度分析『狄公案』對“勘釘”故事的創新」<sup>22)</sup>이 있는데, 이 논문은 『狄公案』 중의 한 사건인 淫婦 주씨의 남편 살해사건의 범행 수법인 “勘釘”에 대해 그 연원과 『狄公案』에서 운용된 방식을 서

19) 김규태, 「『狄公案』의 狄仁傑 形象 研究」, 제주대학교 석사논문, 2014.

20) 黃憶婷, 「『狄公案』與史事之互證研究」, 淡江大學 석사논문, 2015.

21) 王凡, 「『狄公案』中的江湖豪俠形象及其意蘊探微」, 『鄖陽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2015年 1期.

22) 汪達文, 呂小蓬, 「從敘事學角度分析『狄公案』對“勘釘”故事的創新」, 『蚌埠學院學報』, 2015年 2期.

술하고 있다. “勘釘”이란 못을 박는다는 의미로 상대의 머리에 가느다란 침을 꽂아 살인하는 방법이다. 이 논문의 필자들은 이러한 “勘釘”故事가 전국시대나 한대에 사용되던 형벌의 일종에서 시작되어 원대에 실제 살인사건에 쓰였으며 그 후 여러 공안문학 작품에 소재로 사용되어 온 것이 『狄公案』에 반영된 것이라 밝혔다. 이외에도 王凡의 「由周氏的“淫婦”形象看『狄公案』的女性觀」<sup>23)</sup>은 위에서 언급한 음부 주씨의 남편 살인사건의 범인인 주씨의 행동양상을 통해 고대문학에 반영된 여성에 대한 인식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邢意和의 「『狄公案』中國家法律思想與民間法律思想的矛盾」<sup>24)</sup>은 『狄公案』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들을 통해 나라의 법률과 민간의 ‘懼訟’심리 사이의 모순, 법과 예절의 충돌 등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논문은 소재나 서사요소 등 좁은 시야에서 천착하고 있기에 『狄公案』의 전반적인 모습을 조망하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하다 할 수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부분이 많기에 본 논문은 이를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둘째, 원작인 『狄公案』보다 반 홀릭이 번역하고 재창작한 『大唐狄公案』에 대한 연구가 훨씬 더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원작인 『狄公案』은 청대 공안소설로 송대 包拯을 주인공으로 한 포공고사를 토대로 만들어진 공안소설들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진다. 하지만 네덜란드 출신의 외교관이자 한학자인 로베르트 반 홀릭(Robert Hans van Gulik, 高羅佩)이 원작 중 전반부를 번역하여 서양에 소개하고 중국의 전통적인 공안소설을 기초로 서양 탐정소설의 서사를 도입하여 재창작한 『大唐狄公案』이 발간된 후 『狄公案』에 대한 관심은 점차 늘어났고, 동류의 탐정소설이나 영화, 드라마 등의 분야로까지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의 관심도 원작보다는 반 홀릭의 『大唐狄公案』에 맞추어져 있어 연구 성과 또한 집중되어있는 것이 현실이다. 黃海燕의 「高羅佩『狄公案』研究現狀與進展」<sup>25)</sup>에 따르면 『大唐狄公案』은 80년대 趙毅衡에 의해 처음 알려진 후, 陳來元과 胡明에 의해 중국어로 번역되었고 80년대 이후로 반 홀

23) 王凡, 「由周氏的“淫婦”形象看『狄公案』的女性觀」, 『淄博師專學報』, 2014年 1期.

24) 邢意和, 「『狄公案』中國家法律思想與民間法律思想的矛盾」, 『沈陽農業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5年 1期.

25) 黃海燕, 「高羅佩『狄公案』研究現狀與進展」, 『蕪湖職業技術學院學報』, 2014年 2期.

릭과 『大唐狄公案』에 대한 논문과 단행본이 58편에 달한다고 하였다. 작자인 반 홀릭의 생애부터 『大唐狄公案』의 번역과 창작, 번역본에 대한 전문 연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중 魏泉의 「中外『狄公案』比較」<sup>26)</sup>는 원작인 『狄公案』과 반 홀릭의 『大唐狄公案』을 비교하며 중국의 전통 공안소설과 서양의 탐정소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또한 반 홀릭의 작업이 전통의 ‘창조적 전환’을 실현한 것이라 추켜세우고 있다. 이외에도 魏泉의 「公案與偵探:從『狄公案』說起」<sup>27)</sup>나 魏豔의 「論狄公案故事的中西互動」<sup>28)</sup>, 顏莉莉의 「試論中西『狄公案』的不同敘事視覺」<sup>29)</sup> 등이 모두 같은 결론을 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성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狄公案』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미진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우선 공안소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黃巖柏의 『中國公案小說史』<sup>30)</sup>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黃巖柏이 이 책을 쓴 시점은 1990년이다. 이 이전까지의 공안소설에 대한 연구는 단편적이고 기초적이었다. 이 이후의 연구는 앞서 소개했다시피 가장 편수가 많은 명대의 공안전집이나 청대의 협의공안소설에 집중되어서 상대적으로 다른 공안소설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흔히 얘기하는 四大公案(『包公案』, 『海公案』, 『施公案』, 『彭公案』)을 제외한 작품은 아직 연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2004년에 錢雁秋 감독이 연출하고 梁冠華가 주연한 드라마 『神探狄仁傑』은 狄仁傑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狄仁傑 관련 평전이 다수 출간되었고, 이 드라마의 원작이라 할 수 있는 『狄公案』과 반 홀릭의 『大唐狄公案』 또한 많은 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이러한 인기로 편승하여 최근 몇 년간 『狄公案』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필자 또한 이 영향을 받아 『狄公案』을 연구하고 있음을 밝힌다.

26) 魏泉, 「中外『狄公案』比較」, 『許昌師專學報』, 1999年 4期.

27) 魏泉, 「公案與偵探:從『狄公案』說起」, 『雲南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6年 1期.

28) 魏豔, 「論狄公案故事的中西互動」, 『中國比較文學』, 2009年 1期.

29) 顏莉莉, 「試論中西『狄公案』的不同敘事視角」, 『泉州師範學院學報』, 2006年 1期.

30) 黃巖柏, 『中國公案小說史』, 遼寧人民出版社, 1991.

『狄公案』은 청말의 장편공안소설로 여러 평가가 나뉘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다른 공안소설에 비해 문체가 정련되지 못하고, 서사구조 또한 前人의 그것을 답습하였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하다. 인물형상의 경우 당대의 유명한 재상 狄仁傑을 주인공으로 하였으나 공안소설의 전통적인 서사양식을 채용한 전반부의 세 가지 형사사건에서 狄仁傑의 인물형상은 그다지 독특한 점을 찾기 어렵다는 점은 사실이다.

하지만 필자가 『狄公案』을 전반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그동안의 공안소설에서 많이 도입되지 않은 연쇄식 구조나 제한적 서사시점 등 『狄公案』만이 갖는 특이한 요소는 분명 존재한다. 또한 후반부에서 武則天을 위시한 무씨 일파와의 대결을 다룬 정치사건은 이 작품의 존재이유라고 할 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작가는 이를 통해 당시의 집권자인 慈禧太后와 그 비호세력을 풍자하고 비판하려 한 것이다.

이렇듯 『狄公案』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미진한 상황에서 『狄公案』의 창작배경, 인물형상, 서사구조 등에 대한 기초적인 고찰은 반드시 필요하다. 본 논문의 이러한 고찰은 『狄公案』의 특징적 요소를 전반적으로 소개하고, 나아가 『狄公案』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평가를 再考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2. 研究 範圍와 研究 方法

『狄公案』은 총 64회로 이루어진 清代의 長篇 白話公案小說로 작가와 成書시기에 관한 자료는 불분명하다. 石昌渝의 『中國古代小說總目·白話卷』에 따르면 『狄公案』의 작가는 미상이고, 서문을 쓴 ‘警世覺者’ 또한 이름을 알 수 없다. 다만, 『狄公案』을 출판한 여러 출판사 중 雲南人民出版社와 吉林大學出版社는 『狄公案』의 작가를 吳趸人이라 하고 있다. 吳趸人의 본명은 吳沃堯로 廣東省 南海 출신의 인물이며, 清末의 譴責小說家로 『電數奇談』, 『二十年目睹之怪現狀』, 『九命奇冤』, 『恨海』 등 수많은 작품을 남겼다. 하지만 『狄公案』의 작가가 吳趸人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는 추후에 다시 논의해야 할 문제이다.



『狄公案』의 판본은 光緒 16년(1890) 上海書局의 石印本과 光緒 28년(1902) 耕石書局의 石印本이 있다. 耕石書局의 石印本에는 책머리에 서가 실려 있고, 끝에 “光緒 28년, 壬寅年 3월에 警世覺者가 上海의 滴翠軒에서 서한다.(光緒二十八年歲次壬寅春三月警世覺者序于滬上之滴翠軒)”라고 쓰여 있다.<sup>31)</sup> 작가와 成書시기에 대해서는 2장에서 자세하게 다루보도록 하겠다.

작품의 판본은 현재 간행되고 있는 판본<sup>32)</sup>들이 내용상 차이가 없으므로 필자의 주관에 따라 中州古籍出版社本 『狄公案』<sup>33)</sup>을 저본으로 연구를 진행하겠다. 본 논문 중에 인용할 『狄公案』 예문의 주석은 書名과 回數만 기재할 것임을 미리 알려두는 바이다.

연구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狄公案』이 간행된 清末의 혼란스러운 사회는 어떻게 작품 속에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狄仁傑이란 실제 인물이 문학작품 속에서 수용되는 과정을 통해 『狄公案』의 연원을 살펴볼 것이며, 『狄公案』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분석하여 이를 통해 드러나는 작가의 의도를 고찰하겠다. 마지막으로 서사구조를 분석하여 『狄公案』만의 서사 특징을 발견해보도록 하겠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狄公案』의 창작배경을 고찰하고 작가가 어떤 식으로 현실을 인식하고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狄公案』이 간행될 당시의 사회정치적 배경과 더불어 문학사적 배경도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작가의 현실인식 부분에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어진 『狄公案』에 내재되어 있는 작가의 현실인식을 파악해보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제3장에서 狄仁傑이란 실제 역사인물이 어떻게 문학적으로 형상화되었는지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史書의 기록을 통해 狄仁傑의 생애를 조망하고 몇 가지 특징적인 사적을 통해 狄仁傑이란 인물의 독특한 점을 분석할 것이다. 그런

31) 石昌渝, 『中國古代小說總目·白話卷』, 太原, 山西教育出版社, 2004. 400쪽.

32) 중국 내에 출간된 『狄公案』의 판본 중 필자가 직접 확인한 것은 다음과 같다.

佚名, 『狄公案』, 中州古籍出版社, 鄭州, 2009.

佚名, 『狄公案』, 三秦出版社, 西安, 2005.

不題撰人, 『狄公案』, 山西人民出版社, 太原, 2009.

不題撰人, 『狄公案(通俗本)』, 四川人民出版社, 成都, 2010.

吳趸人, 『狄公案』, 雲南人民出版社, 昆明, 2011.

吳趸人, 『狄公案』, 吉林大學出版社, 長春, 2011.

33) 佚名, 『狄公案』, 中州古籍出版社, 2009.

후에 문학작품에서 형성된 狄仁傑 인물형상을 명대 이전의 소설과 明·清代 백화 소설 속에서 탐색하고 어떠한 양상으로 수용되었는지 고찰하겠다.

제4장에서 『狄公案』의 인물형상에 대해 분석해보겠다. 『狄公案』은 주인공인 狄仁傑의 판결 고사가 중심이 되는 공안소설작품이다. 그러므로 서술의 중심은 狄仁傑일 수밖에 없으며 그 외 나머지 인물들은 부차적인 것으로 그려진다. 『狄公案』의 狄仁傑은 앞서 3장에서 탐색해 본 문학적 형상화 과정을 통해 축적된 인물형상을 모아놓은 精髓와 같다. 그에 따라 필자는 狄仁傑의 형상을 判官, 諫官, 軍 指揮官의 세 가지로 분류하여 보았다. 부차적인 인물은 조력자, 가해자, 피해자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狄公案』의 작가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인물을 설정한 것인지 추정해보겠다.

제5장은 『狄公案』의 서사구조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공안소설은 화본 등 고소설의 전통을 수용한 작품으로 작품의 곳곳에 고소설적 요소가 활용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공안소설의 서사특징에 대해 서술하면서 고소설적 요소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겠다. 이후에 진행되는 『狄公案』의 서사구조에 관한 부분은 여타 공안소설의 서사구조와 동일하게 ‘사건의 도입부 - 사건의 발생과 전개 - 사건의 해결과정 - 범인에 대한 심판 - 결말’부분으로 나누어 이 틀에 각각의 사건을 대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분석된 『狄公案』의 서사특징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하도록 하겠다.

끝으로 제6장에서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성과와 함께 앞으로의 연구 과제에 대해 정리해보겠다.

## II. 『狄公案』의 창작배경과 현실인식

『狄公案』은 『中國古代小說總目·白話卷』에 따르면 光緒 16년인 1890년에 上海書局의 石印本과 光緒 28년(1902)에 만들어진 耕石書局판 石印本이 주 판본이다. 耕石書局의 石印本에는 서문과 함께 말미에 서문을 지은 이로 ‘警世覺者’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하지만 작가가 누구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추정은 해 볼 수 있는데 이는 黃憶婷의 논문에서 그 단초를 찾아볼 수 있다.

黃憶婷은 그의 논문 「『狄公案』與史事之互證研究」<sup>34)</sup>에서 『狄公案』이 石印本으로 간행되었음에 주목하였다. 이는 石印本으로 간행되기 이전에 이미 底本이나 다른 형식으로 간행된 原書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그의 추정이다. 耕石書局판의 서문에는 ‘오늘 우연히 책상머리에서 『狄梁公四大奇案』을 보았는데 매우 특이하여 보기 드문 것이라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sup>35)</sup>’ 라고 쓰여 있다. 하지만 고소 설들을 모아놓은 總目類의 책들, 예를 들어 『晚清小說史』나 『中國古代小說總目提要』, 『中國通俗小說總目提要』와 같은 책에서 『狄梁公四大奇案』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오직 『武則天四大奇案』이나 『狄公案』이라는 書名만 수록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서문을 쓴 警世覺者가 본 『狄梁公四大奇案』은 존재하지 않는 책이거나 간행되기 전의 저본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이다.

그래서 黃憶婷은 『狄梁公四大奇案』을 쓴 작자가 『武則天四大奇案』의 서를 지은 ‘警世覺者’가 아닐까 추정했다. 그가 이와 같이 추정한 원인은 세 가지로 우선 광서 16년에 출판된 『武則天四大奇案』이 앞서 언급하였듯 가장 이른 시기의 판본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삽화나 서문이 존재했으나 오늘날까지도 이와 관계된 원고를 찾을 수 없는 점, 두 번째로 『武則天四大奇案』의 작자로 표시되어있는 ‘不題撰人’이라는 표현은 작자가 자신을 애써 숨기려하는 가능성이 ‘佚名’이라는 표현보다 훨씬 높은 점, 마지막으로 작자가 이 책을 쓴 목적이 옛 것으로 오늘날의 일을 풍자하려 함인데 이름을 밝히게 되면 곤란해지므로 이렇게 일부러 작

34) 黃憶婷, 「『狄公案』與史事之互證研究」, 淡江大學 석사논문, 2015.

35) 古本小說集成編纂委員會, 『武則天四大奇案』, 上海古籍出版社, 1994, 1쪽. “今偶於案頭見狄梁公四大奇案一書, 離奇光怪, 可愕可驚。”

자의 이름을 남기지 않고 자신의 작품에 서문을 다는 방식으로 처벌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sup>36)</sup>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에 불과하며 작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고증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하지만 이를 통해 『狄公案』의 창작배경에 대한 단초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어서 『狄公案』의 시대배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정치사회적 배경

『狄公案』은 당 왕조의 武則天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공안소설이다. 전반부의 형사사건이 아닌 후반부의 궁중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건들은 앞서 언급한 '옛 일을 빌려 오늘날의 일을 풍자하는(借古諷今)' 작가의 의도가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라 하겠다. 그래서 黃巖柏 등이 『狄公案』을 두고 정치성이 강하다는 평을 한 것이다. 다음은 黃巖柏이 『狄公案』의 정치성에 대해 논한 글이다.

첫째, 제재가 宮中秘事인 점이다. 張昌宗, 懷義和尚, 薛敖曹 등 인물은 역사상 실재하던 인물로 모두 武則天의 男寵 혹은 密友였다. 여러 野史의 자료로 볼 때 晚淸시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慈禧皇太后에게도 역시 이러한 방면에서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이 책이 쓰인 때는 1890년으로 실제로 慈禧皇太后가 점점 남들에게 미움을 사게 된 때이다. 또한 바로 維新派인 康有爲 등이 變法을 통해 부국강병을 도모하고 慈禧太后로 대표되는 부패세력과 투쟁을 벌이던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작자가 역사제재를 골라 취한 것은 사실 옛 사람을 빌려 당시의 정치상황을 풍자하기 위함이었고, 武則天에 대한 폭로는 사실상 어두운 현실을 대표하는 慈禧太后를 비판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sup>37)</sup>

36) 黃憶婷, 『『狄公案』與史事之互證研究』, 淡江大學 석사논문, 2015, 42~43쪽.

37) 黃巖柏, 『公案小說史話』, 遼寧教育出版社, 2000, 96쪽. “其一, 題材本身寫的是宮闈秘事. 張昌

黃巖柏은 『狄公案』이 쓰인 당시의 상황이 모두 慈禧太后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라 말한다. 실제로 집권 초기의 慈禧太后는 강력한 개혁으로 지지를 받았으나 중반을 지나면서 점차 비판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당시의 어지러운 사회상을 만든 원인을 오로지 慈禧太后에게 전가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이라 생각된다. 중국 내부의 혼란과 더불어 외부에서 들어오는 열강의 압박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慈禧太后는 咸豐帝의 妃嬪이자 同治帝의 생모로 晚淸시기 주요정치인물 중 하나이다. 청 왕조의 마지막 실질적 통치자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녀의 생애는 청 왕조의 마지막과 함께한다. 그러므로 그녀의 생애를 살펴본다면 청 왕조가 어떻게 몰락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慈禧太后는 咸豐 원년(1852)에 처음으로 입궁한다. 하지만 그녀가 처음부터 높은 위치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그녀가 처음으로 받은 封號는 蘭貴人이었다. 청대의 內命婦 제도에 대해 『淸史稿』의 기록에 따르면 “康熙帝 이후로 전장 제도가 완비되었는데 皇后는 中宮에 거하고 皇貴妃가 하나, 貴妃가 둘, 妃가 넷, 嬪이 여섯 명이며 貴人, 常在, 答應 등은 정해진 숫자가 없이 동, 서 십이궁에 나누어 거주했다.”<sup>38)</sup>고 한다. 그러므로 그녀의 위치는 그리 낮지도 높지도 않은 어중간했다고 볼 수 있다. 內宮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녀는 결국 자금성 내궁의 가장 높은 곳에 이른다. 바로 황제의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慈禧太后가 처음부터 황제의 총애를 받지는 않았다고 한다. 張戎이 쓴 『서태후』란 책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그녀는 반란을 다루는 방법에 대하여 남편에게 몇 가지 제안을 한 것 같다. 처녀 시절에 친정아버지가 자신의 의견을 즐겨 묻고 또 그 조언에 따라 행동한 바가 있었으므로, 그녀는 咸豐帝가 자신의 조언을 고맙게 여길 것이라고

---

宗、懷義和尚、薛敖曹等人，歷史上實有其人，都是武則天的男“嬪妃”或密友。而從一些野史材料看，晚淸時代，人們對慈禧皇太后也有許多這方面的猜疑。其二，這本書寫於1890年，這正是現實生活中慈禧皇太后越來越招人厭惡的時候，也正是維新派如康有為等呼喚變法圖強，與慈禧所代表的腐朽勢力開展鬥爭的時候。所以，作者選取歷史材料，實際上是爲了借古人遺風時政，對武則天的揭露，實際上是把抨擊的矛頭指向了黑暗現實的總代表－慈禧。”

38) 『淸史稿』 권221, 7663쪽.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남편을 짜증나게 만들 뿐이었다. 청 황실은 오래된 전통에 따라 궁중의 妃嬪들이 국사에 참견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해왔다. 咸豐帝는 貞 皇后에게 慈禧를 좀 단속하라고 일렀다. 황제는 그녀의 조언이 '건방지고 교활하다'고 비난했다고 한다.<sup>39)</sup>

이후 慈禧太后는 이를 통해 국사에 대해서는 함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함풍제의 비정치적인 활동에 대한 관심사만 얘기했다. 둘은 점점 가까워지고 결국 慈禧太后가 아들을 낳으면서 상황이 반전된다. 이는 慈禧太后가 낳은 아들이 황제의 첫아들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咸豐帝의 재위 기간은 청 황실이 급격한 혼란에 빠져있을 때였다. 국고는 텅 비고, 관리는 부패하였으며 각 지방에서 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 당시에 일어났던 가장 대표적인 민란이 바로 洪秀全이 일으킨 '太平天國運動'이다. 咸豐帝는 즉위 초기 만해도 의욕이 넘치는 황제였으나 太平天國運動과 2차 阿片戰爭 등으로 위축되어 정치가 아닌 연극이나 그림 등 문화 활동에 몰두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慈禧太后는 착실히 咸豐帝의 신임을 얻었고, 咸豐帝 사후 어린 황제(同治帝)의 어머니로서 황태후의 자리에 오른다. 물론 咸豐帝의 正妃인 貞 황후가 있었기에 두 여인이 나누어 慈禧皇太后와 慈安皇太后가 되어 청 제국을 통치했다. 하지만 慈安皇太后가 文盲이고, 정사에 무지했기에 자연스럽게 慈禧太后가 전면에 나서게 된다.

咸豐帝가 임종 직전에 여덟 명의 신하들에게 어린 同治帝를 보좌케 하였으나 慈禧太后는 그들을 제거하고자 마음먹는다. 그리하여 당시 조정 내외에 강력한 영향력이 있던 恭親王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 肅順을 필두로 한 보정대신들을 제거하는데 이를 '辛酉政變(1861)'이라 한다. 이로서 慈禧太后의 40년 집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후 恭親王과 曾國藩, 李鴻章 등을 중심으로 서양의 문물과 기술을 받아들여려는 시도를 한다. 이를 '洋務運動'이라 하는데 주요 골자는 근대적 군수산업의 육성이었다. 阿片戰爭 등으로 서구열강의 군사력에 놀란 그들은 자강과 부국을 위한 길이 오직 서구 문물과 기술에 도입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同治帝 재위기간과 뒤를 이은 光緒帝 재위기간에 걸쳐 이루어진다.

39) 張戎 저, 이종인 역, 『서태후 1』, 책과 함께, 2015, 36쪽.

한편, 同治帝가 장성하고 섭정이 공식적으로 끝났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병사하고 만다. 同治帝 사후 淳親王의 세 살짜리 아들을 황제에 앉히니 그가 바로 光緒帝이다. 光緒帝 즉위 후에도 慈禧太后는 계속해서 근대적 개혁을 멈추지 않았으나 光緒帝가 장성함에 따라 점차 영향력을 잃어갔다. 결국 光緒帝가 親政에 나서면서 慈禧太后는 영향력을 잃고 頤和園에 머물게 되고, 洋務運動은 그 동력을 잃고 淸日戰爭에서 패배하면서 완전히 끝나게 된다.

光緒帝는 慈禧太后와 洋務派 대신들의 보수적인 개혁은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康有爲, 梁啓超 등의 이른바 變法派를 등용하여 그들의 주장을 실행한다. 이를 '戊戌變法'이라 하는데 그들은 전통적인 정치, 교육, 법 등 사회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으며 헌법을 제정하고, 국회를 만들며, 과거제를 개혁하고 서양식 학교를 설립하는 등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볼 수 없던 慈禧太后가 戊戌政變이라 불리는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켜 康有爲 등의 變法派를 몰아내는데 성공한다. 그동안 그들이 추진했던 변법은 모두 폐지되어 光緒帝의 개혁도 실패로 돌아간다.

1900년 義和團 운동이 일어나자 慈禧太后는 그들과 손을 잡고 서양 열강에 대항하려 하였으나 압도적인 화력에 결국 西安으로 도피하게 된다. 西安으로 도피한 慈禧太后는 李鴻章을 내세워 열강과 합의하고(辛丑條約) 1902년에 北京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이 시기부터 그녀가 죽는 1908년까지 열강의 눈치를 보며 최대한 호의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그녀가 죽은 뒤 청 황실을 지탱해줄 무엇도 남아있지 않았고 1912년 辛亥革命에 의해 마지막 황제인 宣統帝가 퇴위하며 그녀가 그렇게도 지키고 싶어 했던 청 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慈禧太后에 대한 평가는 양극단으로 크게 갈라진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녀를 망국에 이르게 한 희대의 妖女 등으로 평가하는 등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 또한 그녀에 대한 안 좋은 풍문들도 그녀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야기한 원인이 되었다. 수렴청정에서 물러난 慈禧太后가 본인이 머물 별장인 頤和園의 보수를 위해 해군 예산을 전용하였다는 이야기, 자신과 더불어 청 황실의 웃어른이었던 慈安太后를 독살하였다는 이야기, 아들인 同治帝와 양자인 光緒帝를 독살하였다는 이야기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소문들은 『狄公案』을 지은 작자로 하여금 청 왕조의 몰락이 慈禧太后 때문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고 女主人 武則天이 지

배하던 시기에 빗대어 慈禧太后를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게 하였으리라 생각된다. 반면에 앞서 소개한 張戎의 책에는 慈禧太后를 위대한 지도자, 현대 중국의 틀을 닮은 통치자, 외세에 맞서 싸운 군주, 신하들을 잘 다룰 줄 아는 뛰어난 영도자 등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처럼 慈禧太后에 대한 당대 혹은 후세사람들의 평가는 다양하다. 하지만 본 논문은 『狄公案』을 쓴 작가의 부정적인 평가에 기초하여 武則天과 慈禧太后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 2. 문학적 배경

『狄公案』이 간행된 晚晴시기는 정치사회적으로 대격변기에 해당한다. 수천 년간 이어져온 '中華思想'이 阿片戰爭 등으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혼란은 내부적으로 지식인들을 반성하고 자각하게 만들었고, 구국을 위한 활동이 시작되었다.

康有爲 등이 주창한 變法自疆運動은 慈禧太后 등 보수파에 의해 실패로 마무리 되었다. 이는 위로부터의 개혁의 실패를 의미한 것으로 지식인들은 이 실패를 딛고 새로운 개혁모델을 찾기 시작한다. 계몽운동이 바로 그것이다. 신학문의 보급과 더불어 근대적 교육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를 통해 서구문명을 접하게 된 지식인들이 등장한다. 그들은 직접 정계로 진출하여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는 없었으나 글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피력했다. 논설문의 형태도 많았으나 그들에게 주목받는 장르는 바로 소설이었다. 이 시기의 소설은 중국문학에서 正宗이라 칭해지는 시를 대신하는 위치에 오르게 된다. 『狄公案』이 간행된 1890년대 이후 10여 년간 수많은 소설들이 출간되었는데, 陳平原은 1908년 한 해 동안 중국 전역에서 출판된 서적을 대략 550종 1300책으로 추산하면서 그 중 소설은 199종이나 된다고 분석하였다.<sup>40)</sup> 이들 소설은 대부분 당시 사회의 어두운 면을 묘사하면서 이러한 현실을 풍자하고 비판하였으며 이러한 의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소설의 작법 등 문학서술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발생하였

40) 정선경, 『중국소설과 지식의 조우』, 소명출판, 2017, 169쪽.



다.

阿英의 『晚清小說史』에는 소설의 이러한 번영국면에 대해 세 가지로 분석하였다.

첫째, 물론 인쇄사업의 발달로 인해 이전과 같이 책을 새기는 어려움이 없었으며, 신문사업의 발달로 인해 운용상 다량 생산이 필요했다. 둘째, 당시 지식 계층은 서양문화의 영향을 받아 사회적으로 소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셋째, 청 황실이 부패와 무능함으로 번번이 실패를 거듭하자 모두 부족과 유위함을 알고 소설을 쓰면서 일로써 비난하며 아울러 유신과 혁명을 제창하였다.<sup>41)</sup>

인쇄사업은 기존의 목간, 석간을 대신하는 서양인쇄술의 보급으로 인해 급속도로 발전하였고,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정기간행물 또한 급증하는 추세였다. 소설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자 소설을 게재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했는데 정기간행물이 그 역할을 하였다. 郭浩帆의 논문에는 1840년부터 1919년 사이의 중국근대소설 발표 현황에 관한 표가 있다.

<표2 : 1840-1919년간 중국근대소설 발표현황><sup>42)</sup>

	창작소설			번역소설			합계		
	작품수	등재수	등재율	작품수	등재수	등재율	작품수	등재수	등재율
1840-1891	63	1	1.6%	16	7	44%	79	8	10%
1892	6	3	50%	0	0	0%	6	3	50%
1893	8	0	0%	0	0	0%	8	0	0%
1894	10	0	0%	1	0	0%	11	0	0%
1895	9	1	11%	0	0	0%	9	1	11%
1896	2	0	0%	4	3	75%	6	3	50%
1897	22	11	50%	5	4	80%	27	15	56%
1898	5	1	20%	6	5	83%	11	6	55%

41) 阿英, 『晚清小說史』, 東方出版社, 1996, 1~2쪽. “第一,當然是由於印刷事業的發達,沒有此前那樣刻書的困難:由於新聞事業的發達,在運用上需要多量生產。第二,是當時知識階層受了西洋文化影響,從社會意義上,認識了小說的重要性。第三,就是清室屢挫於竄敗,大家知道不足與有為,遂寫作小說,以事抨擊,並提倡維新與革命。”

42) 郭浩帆, 「清末民初小說與報刊業之關係探略」, 『文史哲』 2004年 3期, 46쪽.

1899	15	2	13%	2	0	0%	17	2	12%
1900	12	2	17%	4	1	25%	16	3	19%
1901	38	30	79%	10	4	40%	48	34	71%
1902	21	15	71%	18	13	72%	39	28	72%
1903	73	57	78%	96	46	48%	169	103	61%
1904	96	78	81%	73	32	44%	169	110	65%
1905	85	59	69%	91	26	29%	176	85	48%
1906	155	96	62%	154	53	34%	309	149	48%
1907	224	170	76%	204	76	37%	428	246	58%
1908	297	212	71%	157	64	41%	454	276	61%
1909	265	165	63%	85	27	32%	350	192	56%
1910	247	172	70%	60	24	40%	307	196	64%
1911	197	92	47%	62	51	82%	259	143	55%
1912	151	122	81%	55	47	86%	206	169	82%
1913	256	204	80%	98	87	88%	354	290	82%
1914	1207	1126	93%	253	220	87%	1460	1346	92%
1915	1585	1500	95%	346	279	81%	1931	1779	92%
1916	1161	1048	90%	283	222	79%	1444	1270	88%
1917	1048	912	87%	300	224	75%	1348	1136	84%
1918	766	689	90%	150	119	79%	916	808	88%
1919	416	371	89%	132	95	72%	548	466	85%
합계	8840	7139	85%	2665	1729	65%	11505	8868	80%

위 표에 따르면 1840년에서 1919년 사이인 80여 년 동안 11505종의 소설이 창작, 번역되었고, 이 중 8868종이 신문, 잡지 등의 정기간행물에 실렸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清末民初의 중국소설은 정기간행물을 주요매체로 삼았음이 증명되며, 이러한 변혁이 중국 근대소설의 변영에 영향을 주었고, 중국소설의 현대화에 기여하였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sup>43)</sup>

정기간행물을 통한 소설의 전파는 정기간행물을 창간한 사람들이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이 시기에 창간된 정기간행물을 살펴보면 『申報』(1872), 『萬國公報』(1874)로부터 『時務報』(1896), 『清議報』(1898)로 이어지는 근대신문과 잡지를 통해 서양의 새로운 지식을 보급하고 국민을 계몽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짐을 알 수 있다. 지식인들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소설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였고 그 결과 소설전문지가 탄생하게 된다.

그 중 최초의 근대적 소설전문지라 할 수 있는 『新小說』 창간호에는 1902년 일본에서 『新小說』을 창간한 梁啓超의 「論小說與郡治之關係」가 발표되었다.

43) 郭浩帆, 「清末民初小說與報刊業之關係探略」, 『文史哲』 2004年 3期, 50쪽.

한 나라의 백성을 새롭게 하고자 하면 먼저 한 나라의 소설을 새롭게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도덕을 새롭게 하고자 하면 반드시 소설을 새롭게 하여야 하고, 종교를 새롭게 하고자 하여도 반드시 소설을 새롭게 하여야 하며, 정치를 새롭게 하고자 하면 반드시 소설을 새롭게 해야 하고, 풍속을 새롭게 하고자 하면 반드시 소설을 새롭게 해야 하며, 학예를 새롭게 하고자 하여도 반드시 소설을 새롭게 하여야 하고, 더 나아가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인격을 새롭게 하고자 하면 반드시 소설을 새롭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어찌서인가? 소설은 불가사의한 힘이 있어 人道를 지배하기 때문이리라.<sup>44)</sup>

梁啓超는 이 글을 통해 小說界革命을 제창했는데 그는 사람들이 소설을 좋아하는 이유가 인류의 보편성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하였고, 정치와 사회를 개량하기 위한 도구적 관점에서 소설의 효용성에 주목했다.<sup>45)</sup> 그의 이러한 주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소설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이로 인해 1903년에 『繡像小說』이 창간되고 1906년에는 吳沃堯 등이 주편을 맡은 『月月小說』이 창간되기도 하는 등 당시의 소설전문지 창간에 큰 영향을 끼쳤다.

한편, 소설전문지 등에 게재된 소설들은 대부분 당시 사회를 비판하고 풍자하는 주제로 쓰인 작품이었다. 사회에 대한 비판과 풍자는 중국문학사적으로 많이 쓰인 제재 중 하나이다. 특히나 청대에 이르러 '諷刺小說'의 전범이라 할 수 있는 吳敬梓의 『儒林外史』가 나오게 되자 전대의 천박하고 노골적인 표현을 벗어나 완곡하고 해학적인 표현이 가능해진다. 『儒林外史』 이후 『紅樓夢』 등의 人情小說에서도 약간의 풍자가 등장하지만 본격적인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풍자의 전통은 청말에 이르러 '譴責小說'이란 이름으로 부흥하게 된다. 魯迅의 『中國小說史略』에는 譴責小說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光緒 庚子年(1900) 이후, 견책소설이 특히 성행하였다. 대개 嘉慶 연간 이래

44) “欲新一國之民，不可不先新一國之小說。故欲新道德，必新小說；欲新宗教，必新小說；欲新政治，必新小說；欲新風俗，必新小說；欲新學藝，必新小說；乃至欲新人心，欲新人格，必新小說。何以故？小說有不可思議之力支配人道故。”

45) 정선경, 『중국소설과 지식의 조우』, 소명출판, 2017, 174쪽.

비록 수차례에 걸친 내란을 평정하긴 하였으나, 또한 외적들에 의해 몇 차례 좌절을 겪기도 하였다. 일반 백성들은 우매하여 여전히 차나 마시며 반란군을 평정한 무공을 듣고 있었으나, 지식인들은 불현듯 개혁을 생각하고, 적개심에 의지하여 유신과 애국을 부르짖었고, "부국강병"에 특히 관심을 기울였다. 戊戌政變이 이미 실패하고, 2년이 지나 庚子年에 義和團의 난이 일어났다. 민중들은 그제야 정부가 사태수습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문득 정부를 공격할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이 소설에 반영되어 감추어져 있는 사실을 드러내고, 惡弊를 폭로하였으며, 당시의 정치에 대해 엄중한 규탄을 가하였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풍속까지도 매도하였다. 비록 의도한 바는 세상을 바로잡는 데 있었기에 풍자소설과 궤를 같이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문장의 기세가 노골적이었고, 필봉에는 감추어진 예리함이 없었으며, 심지어 그 언사가 지나쳐 당시 사람들의 기호에 영합하는 것도 있었고, 그 도량과 기교가 풍자소설과 거리가 있었기에 달리 譴責小說이라 불렀다.<sup>46)</sup>

譴責小說의 대표작으로 吳沃堯의 『二十年目睹之怪現象』이나 李寶嘉의 『官場現刑記』, 劉鶚의 『老殘遊記』, 曾樸의 『孽海花』와 같은 작품이 있다. 이들 작품은 풍자소설과 그 목적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표현이 훨씬 노골적이고 완곡한 표현을 하지 않았다. 또한 풍자소설의 경우 옛 일에 빗대어 현실을 풍자한다면 견책소설은 당대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다는 특징이 있다. 물론 풍자소설과 같은 諧謔과 운용의 묘는 떨어지지만 직접적인 서술을 통해 당시 사회의 폐단을 가감 없이 폭로하고 질책하는 성격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정선경은 견책소설의 특징을 세 가지로 분석하였는데 먼저, 청 정부의 무능에 대한 비판과 정세에 대한 개탄, 둘째, 官界의 부패에 대해 신랄한 질책, 셋째, 무지함에 대한 비판과 신문명 유입의 필요성을 강조<sup>47)</sup>를 꼽았다.

46) 魯迅, 조관희 譯, 『中國小說史』, 소명출판, 2004. “光緒庚子(一九〇〇)後, 譴責小說之出特盛. 蓋嘉慶以來, 雖屢平內亂(白蓮教, 太平天國, 捻, 回), 亦屢挫於外敵(英, 法, 日本), 細民闇昧, 尚啜茗聽平逆武功, 有識者則已翻然思改革, 憑敵愾之心, 呼維新與愛國, 而於“富強”尤致意焉. 戊戌變政既不成, 越二年即庚子歲而有義和團之變, 羣乃知政府不足與圖治, 頓有掊擊之意矣. 其在小說, 則揭發伏藏, 顯其弊惡, 而於時政, 嚴加糾彈, 或更擴充, 並及風俗. 雖命意在於匡世, 似與諷刺小說同倫, 而辭氣浮露, 筆無藏鋒, 甚且過甚其辭, 以合時人嗜好, 則其度量技術之相去亦遠矣, 故別謂之譴責小說.”

47) 정선경, 『중국소설과 지식의 조우』, 소명출판, 2017, 179~180쪽.

이렇듯 淸末의 혼란한 사회 속에서 발생한 譴責小説은 당시 사회를 꺾진하게 묘사하여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의 대상이 되었으나, 한편으로는 너무 도구적 효용에만 치중하여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사회비판에만 몰두하였으며, 예술적인 면에서도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하지만 양분된 평가와는 별개로 淸末이라는 대격변기에 등장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가진 문학의 한 장르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치·사회 상황과 문학의 발전 과정 속에서 당시에 간행된 공안소설은 필연적으로 정치성을 띠게 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狄公案』을 필두로 한 『李公案奇聞』, 『優孟衣冠傳』, 『活地獄』 등은 정치성 강한 공안소설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狄公案』을 연구한다면 당시의 사회에 대해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작가는 『狄公案』을 통해 무엇을 말하려 했던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 3. 작가의 현실인식

앞서 淸末의 정치사회적, 문학적 배경에 대해 소개한 바와 같이 淸末의 사회현실 속에서 지식인들은 대중의 계몽, 당시 혼란한 사회에 대한 폭로와 비판을 위해 문학을 도구로 이용하였다. 공안소설로 그 시야를 좁혀보면 기존의 공안소설이 백성을 대상으로 한 儒教倫理적 敎화와 忠君思想 등에 치중되어있던 상황에서 淸末에 이르러 譴責小説과 궤를 같이하며 공안소설은 정치화 되고, 또한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문학적 개선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 절은 『狄公案』속 이야기를 통해 작가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 작품을 창작하였는지, 그는 어떻게 당시 사회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例證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 1) 武則天 형상을 통한 현실사회 반영

중국의 봉건질서 속에서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는 비중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참여한다 하더라도 남성의 보조 정도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렇지만 중국 역사상 정치 전면에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했던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武則天이다. 武則天은 성은 武, 이름은 曩, 시호는 則天順聖皇后이다. 중국에서 여성으로 유일하게 皇帝가 되었던 인물로 武后, 武則天, 則天后, 則天帝, 則天女帝, 則天女皇 등으로도 불린다. 則天武后라는 호칭은 당 高宗의 황후로서의 지위를 나타내지만, 690년 唐의 국호를 周로 고치고 스스로 황제가 되어 15년 동안 중국을 통치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때문에 중국에는 ‘武則天’이라는 호칭이 더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앞서 설명한 慈禧太后와 마찬가지로 그녀에 대한 평가는 극단적으로 나뉜다. 武則天은 정치적으로 남성에 손색없는 성취를 보이지만 그 이면의 사적 영역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狄公案』에서 제기하는 ‘음란함’이 바로 그것이다. 『狄公案』 후반부는 바로 이 ‘음란함’이 원인이 된 궁중의 자질구레한 일들이 얽혀 탄생한 것이라 보아야 한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武則天과 慈禧太后를 연결시키고 이를 통해 작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狄公案』 전반부에는 중앙정치와는 전혀 상관없는 형사사건이 서술되어있지만 사건이 마무리되는 29회부터는 중앙정치와 무씨정권에 대한 기술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29회에서 사건을 해결했음을 보고받은 山東巡撫 閻立本이 그를 칭찬하며 武則天에게 그를 추천하는 장계를 상주하면서 狄仁傑의 중앙정치 진출이 본격화된다. 작자는 이 장면에서 당시 중앙정치 상황에 대해 직접 서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시의 當今天子는 바로 당 高宗이 崩御한 후 中宗이 즉위하였으나 방주로 귀양가고, 武則天이 조정을 장악했다. 이 武后는 바로 태종의 才人으로 武眉의 호를 하사받았다. 太宗이 崩御하자 궁의 나인들을 크게 방출하니 그녀는 삭발하고 비구니가 되어 불문의 제자가 되었다. 하지만 미모가 자못 아름다웠으나 性情은 陰險하였음을 누가 알았겠는가. 高宗이 즉위한 후 어느 날 밖에 나가 분향하는데 이 여승을 만나 마음속으로 매우 기뻐했다. 이때 王皇后가 高宗의 뜻을 알고 은밀히 그녀에게 명하여 다시 머리를 기르게 하고 후궁으로 들였다. 수년이 지나지 않아 고종의 寵信을 받고 昭儀에 봉해졌다. 이로부터 그녀

에게 불량한 마음이 생겨나 도리어 王皇后와 蕭皇后를 해하여 죽이고, 그녀가 正宮의 자리를 차지한다. 이후 더욱 荒淫無道해지고 春宮을 어지럽혔다. 고종이 붕어한 후 그녀는 중종을 폐하여 房州로 귀양 보내고 廬陵王으로 강등시켜 천자라 칭하지 않았다. 그녀 집안의 조카들인 武承嗣, 武三思 등은 모두 極品에 봉해지고 조정을 장악하였다. 무릇 선황의 옛 신하들인 徐敬業, 駱賓王 등의 顧命大臣들도 외로이 원로가 되어 쓰이지 않았다. 이때의 황음무도로 나라 안팎이 소란하여 당 왕실의 강산은 거의 무씨 성으로 변하려 하였다. 게다가 스스로 국호를 세워 後周라 칭하고 각종 악행을 저질러 붓으로 다 서술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다행히 한 가지 다행인 점은 그녀가 무릇 재지와 학식이 있는 사람을 존중하였다는 것이다. 閻立本은 武后의 사람됨이 현인과 선비를 존경하고 좋아함을 알고 있었다. 그는 조정의 기강을 정리하고자 했지만 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는데 이때 狄公이 이와 같은 재주와 학식이 있음을 보고는 곧장 상주문을 갖추어 조정에 상주하여 狄公의 관직을 올려줄 것을 청하였다.

(此時當今天子，乃是唐高宗晏駕之後，中宗接位，被貶房州，武則天娘娘坐朝理政。這武后乃是太宗的才人，賜號武媚，太宗駕崩，大放宮娥，她便削髮爲尼，做了佛門弟子。誰知性情陰險，品貌頗佳，及高宗即位之後，這日出外拈香，見了這個女尼，心上甚是喜悅。其時王皇后知道高宗之意，陰令她復行蓄髮，納入後宮，不上數年，高宗寵信，封爲昭儀。由此她便生不良之心，反將王皇后同蕭皇后害死，她居了正宮之位。以後便荒淫無道，穢亂春宮。高宗崩後，她便將中宗貶至房州，降爲廬陵王，不稱天子。所有武則天娘娘家中的內侄，如承嗣、三思等人，皆封爲極品之職，執掌朝政；而將前頭先皇的舊臣諸人，即如徐敬業、駱賓王這一班顧命的諸大臣子，托孤的元老三公，皆置之不用。其時武則天娘娘，日夜荒淫無道，中外騷然，把一個唐室的江山，幾乎改爲姓武。而且武則天娘娘，自立國號，稱爲後周。種種惡習，一筆總難盡述。所幸者有一好處，凡是在朝有才學之人，她還肯敬重十分。閻立本知道這武后娘娘爲人敬賢愛士，閻立本雖想欲整理朝綱，無奈一人力薄，此時見昌平縣知縣狄仁傑例如此清正，兼有才學，隨即具了一奏本，申奏朝廷之上。)<sup>48)</sup>

48) 『狄公案』 29회.

작자는 武則天에 대해 황음무도하고 성정이 음험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자신이 正妃가 되기 위해 잇사람인 王皇后와 蕭皇后를 모해하여 죽이고, 아들인 中宗을 폐하고 스스로 정권을 차지했다. 이렇듯 황음무도한 武則天도 한 가지 잘한 점이 있었으니 바로 인재를 가리지 않고 잘 활용했다는 점이다. 閻立本의 추천을 받은 狄仁傑을 곧바로 河南巡撫로 임명한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작자는 계속해서 武則天을 언급할 때마다 ‘황음무도’하다는 수식을 가하는데 이는 武則天의 음란한 사생활을 부각하려는 작자의 의도가 담긴 것이라 생각된다.

작자가 직접 언급한 부분을 제외하고도 각 등장인물의 입을 통해서도 武則天을 비판하는데 우선 30회에서 閻立本의 말을 살펴보자.

지금 武后가 조정에 임하여 春宮을 난잡하게 하는 것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中宗께서 貶謫당하시어 멀리 房州로 귀양 가시고 천자께서는 강등되어 王爵이 되었지요. 武承嗣, 武三思 등은 모두 출신이 미천한 사람인데, 뜻밖에도 신임을 받으며 조정에 간여하고, 그 張昌宗 등의 불량배들은 이치를 어지럽히고 궁에 출입하여 온갖 추문과 상스러운 말을 하고 다녀도 우리는 신하로서 감히 말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현재 駱賓王이나 張柬之와 같은 老臣들은 모두 마음으로는 충성을 다하려하나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눈으로 당 황실의 강산이 이 부인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보는데 제가 어제 생각해보니 오직 대인만이 조정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힘을 다해 인재를 천거하고 함께 힘을 합하여 폐단을 막고, 강산을 보존하고자 합니다. 그때가 되면 선황은 물론이거니와 천하의 백성들 또한 감사할 것입니다.

(目今武後臨朝，穢亂春宮，不可言喻。中宗遭貶，遠謫房州，天子之尊，降爲王爵。武承嗣、武三思，皆是出身微賤之人，居然言聽計從，幹預朝政，還有那張昌宗等這班狐群狗黨，傷心逆理，出入宮闈，醜跡穢言，非我等爲臣下所敢言，亦非我等爲臣下所敢禁。目前如駱賓王、張柬之這班老臣宿將，皆是心欲效忠，無能爲力之人。眼見得唐室江山，送與這婦人之手，下官前日思前想後，惟有大人，可以立朝廷，故因此竭力保舉，想望同心合力，補弊救偏，保得江山一統。那時不獨先皇感激，即上天百姓，也是感激的。)49)



閻立本의 말 속에 등장한 ‘這婦人’은 武則天을 지칭하는 것으로 작자의 武則天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드러나는 표현이라 하겠다. 더불어 武則天의 조카인 武承嗣, 武三思는 미친한 출신임을 강조하고, 張昌宗 등 寵臣들에게는 불한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비판의 어조를 가감 없이 드러냈다. 이후 41회에서 또 다른 남종인 薛懷義에 대해 언급하는 장면이 나온다.

武則天이 太宗에 의해 궁에서 쫓겨나자 삭발하여 비구니가 되었는데, 그때, 懷義의 품성과 용모가 매우 좋은 것을 보고선, 늙은 비구니에게 명하여 암암리에 띄어 난잡한 짓을 벌였지요. … 高宗이 崩御하자 그녀가 태자를 房州로 유배 보내고 大寶에 오르고서 결국 薛懷義를 절의 주지로 앉히고 나에게 山門이나 지키게 할 줄 누가 알았겠소. 이로부터 부녀자들을 간음하였는데 온갖 나쁜 짓은 다 했어요.

(武則天被太宗逐出宮闈，削髮爲尼，彼時見懷義品貌甚好，命老尼暗中勾引，成了苟且之事。… 誰知高宗駕崩，她把太子貶至房州，登了大寶，竟封這懷義做了寺中主持，命我看這山門。從此奸淫婦女，無惡不作。)50)

이 말을 한 이는 원래 白馬寺의 주지였다가 薛懷義에게 자리를 빼앗기고 산문을 지키는 임무를 맡게 된 사람이다. 그는 薛懷義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고 薛懷義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소상히 고변한다.

그 전날에 마을 앞에서 王員外의 며느리를 보았는데, 자태가 다소 아름다워 그 스스로 그 집에 가짜 성지를 전하고, 普施를 청하며 태후가 사백팔십일 동안 도량을 참배할 것이니 王公大臣의 집에 가서 시주를 받아오게 하였다고 말했소. 王員外는 그가 떠나는 것을 보고서 그의 내력이 가볍지 않음을 알고는 은자 5천 냥을 내었지요. 그러자 그는 또 은을 보낸다 하더라도 그 집 안 식구들을 모아 예불하는 것을 보러 오라고 하니 가지 않으면 성지를 어기는 것

49) 『狄公案』 30회.

50) 『狄公案』 41회.

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날 王員外는 온 집안 식구를 이끌고 절에 들어가 향을 피우는데, 懷義는 사람을 시켜서 며느리를 따로 떼어서 암실 안으로 속여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그 후 王員外가 돌아가려하는데 며느리가 보이지 않자 찾으러 왔으나 그는 도리어 사람들이 淸規를 어지럽히고 佛地를 더럽히니 상주하여 조정에 알리고 법으로 다스리게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왕원외는 감히 그와 논쟁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허둥지둥 돌아갔지요. 듣자하니 매일 집에서 죽느니 사느니 하면서 억울함을 어디다 호소할 데도 없다 하더군요. 懷義가 그 며느리를 어두운 방에 숨겨 각종 방법으로 더럽히려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前日見村前王員外家の媳婦，有幾分姿色，他自己便假傳聖旨，到他家化緣，說太后欲拜四百八十天黃任，令他到王公大臣家募化福緣。王員外見他前去，知他來曆不輕，當時給了五千銀子。他又說銀子雖然送出，還要合家前去看禮，若是不去，便是違旨。次日王員外只得領著合家大小男女，入廟燒香，他便令人將他媳婦分開，騙到暗室裏面。隨後王員外回去，不見他媳婦，前來尋找，他反說人家擾亂淸規，汙濁佛地，欲奏知朝廷，論法處治。王員外不敢與他爭論，只得抱頭鼠竄的回去。聽說連日在家尋死覓活，說這冤情沒處伸了。誰知懷義將他媳婦藏入暗室，百般強汙。)51)

薛懷義는 武則天이 잠시 삭발하여 비구니가 되었을 때 만난 男寵이다. 이후 武則天이 정권을 잡자 薛懷義는 기고만장하여 번번이 여성을 강제로 간음하려 하였고, 결국 王員外의 며느리에게까지 그 마수가 뻗쳐온 것이다. 작자는 薛懷義의 납치강간사건을 통해 武則天과 그 일파의 황음무도함을 묘사하고 그들의 도덕적 결여를 비판했다.

역사적으로 武則天에게는 4명의 남총이 있었다고 한다. 첫 번째가 薛懷義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가 張易之, 張昌宗 형제, 네 번째가 沉南璆이다. 넷 다 살아생전에 큰 권력을 휘두르며 향락에 젖었으나 끝은 다 죽임을 당한다. 한편 慈禧太后에게도 그런 남총이 있었는데, 小安子라 불리는 安德海와 李連英 등이 바로 그들이다. 다음은 慈禧太后와 남총에 얽힌 이야기이다.

51) 『狄公案』 41회.

어느 날, 慈禧太后와 姓이 金氏인 미남자가 밀실 안에서 껴안고 즐거움을 취했다. 막 그를 취하려 하는데 돌연 慈安太后가 들어와 맞닥뜨리게 되었다. 慈禧太后는 수치스러움에 귀마저 빨개졌다고 한다. 자안태후는 그 성이 금씨인 미남자를 불러다 시위에게 명하여 칼로 베어 죽이게 했다. 慈禧는 수치스러워 화가 났고, 화가 나자 분노가 생겨났다. 그래서 다음 날 문을 지키는 소태감을 죽여 버렸다. 그가 문을 잘 지키지 않았기에 그녀가 망신당한 것이기 때문이다.

(有一次，慈禧太后與一個姓金的美男子在密室里擁抱取樂，正有趣時，突然慈安太后一步闖入，撞個正著，羞得慈禧太后連耳根子都紅了。慈安太后將那個姓金的美男子喚出，命侍衛用刀砍死。慈禧由羞而惱，由惱而怒，第二天就把守門的小太監殺掉了，因為他沒有把門看好，讓她出了醜。)52)

작가는 『狄公案』에서 武則天이라는 인물을 狄仁傑의 대척점에 두고 狄仁傑로 하여금 武則天과 그 일당들과 격렬하게 투쟁하도록 만들었다. 武則天이 반영하는 실재가 慈禧太后임을 감안한다면 작가의 의도가 실제로는 慈禧太后的 부정함을 폭로하고 비판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또한 狄仁傑은 당 왕조에 충성하는 충신으로서의 형상을 뛰어넘어 부정한 세력과 치열한 대결을 펼치는 민의의 대변자로 표현된 것이라 생각한다.

## 2) 무씨 일당의 부패상을 통한 현실인식

武則天을 위시한 무씨 일당은 武三思, 武承嗣 등의 무씨 친족들과 그들을 따르는 세력, 그리고 張昌宗과 張易之와 같은 남총들까지를 범위로 하는 세력을 의미한다. 『狄公案』은 이들의 부패상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데 다음의 예는 武三思의 친척인 黃門官 朱利人の 뇌물수수에 관한 부분이다.

이 黃門官은 바로 武三思의 처남으로 성은 朱씨요, 이름은 利人이라. 武三思

52) 史宗義, 「慈禧太后的女人生活」, 『文學天地』, 2010年 4期, 36-38쪽.

가 武后의 면전에서 극력 추천하였다. 武則天은 친정의 친척이라는 이유로 그에게 이 일(황문관의 일)을 맡겼는데, 첫째는 武三思의 뜻에 따른 것이요, 둘째는 張昌宗 등이 출입에 걸림이 없이 하고자 함이었다. 하지만 누가 알았으랴. 朱利人이 관직에 임한 이래로 도성 안팎의 크고 작은 관리를 막론하고 조정에 상주하여 武后를 알현하려 하면 모두 그에게 例銀(관례처럼 주어야 하는 銀兩)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巡撫, 節度使로부터 道府, 州縣에 이르기까지 그에게 일정한 例銀을 바쳐야 하였다.

(這黃門官乃是武三思的妻舅, 姓朱名叫利人, 也是武三思在武后面前, 極力保奏。武則天因是孃家的親戚, 便令他做了這個差使, 一則順了武三思的意思, 二則張昌宗這班人出入, 便無阻隔。誰知朱利人蒞事以來, 無論在京在外, 大小官員, 若是啓奏朝廷, 人見武后, 皆非送他的例銀不可。自巡撫節度使起, 以及道府州縣, 他皆有一定的例銀。)53)

이어서 黃門官 朱利人の 횡포에 대해 元行冲이 언급한 내용이다.

이 사람은 바로 武三思의 처남으로 조정의 여러 신하들이 미워하나, 아첨하여 영화를 구하고자 그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요. 평소에 (武后를) 알현코자함에 천 냥이 없으면 팔백 냥을 요구했으며 하루하루 거둬되자 마침내 도저히 깨뜨릴 수 없는 관례가 되어 버렸소. (그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임금과 신하를 속여 알현을 막았지요. 지난번에 사실을 근거로 상주하였으나 모두 武三思가 상주문을 빼내어버리니 이로 인해 각 관리들은 결국 그 권력을 두려워하며 다 투어 뇌물을 주었소.

(此人就是武三思的妻舅, 可恨在廷諸巨子, 諂媚求榮, 承順他的命令。平時覲見不有一千, 便要八百, 日復一日, 竟成了牢不可破之例。不然便謊君欺臣, 阻挽覲見。前番雖有據實參奏, 皆爲武三思將本章抽下, 由此各官, 竟畏其權力, 爭相賄賂。)54)

53) 『狄公案』 31회.

54) 『狄公案』 32회.

黃門官이란 벼슬은 황제를 지근거리에서 모시며 황제의 명령을 전달하는 벼슬이다. 朱利人은 武三思의 처남으로 무찌 일당의 비호를 받으며 본래의 임무를 망각하고 자신의 직책을 이용하여 자신의 배를 불리기에 열중했다. 狄仁傑은 武則天을 알현하는 자리에서 朱利人과 그 일당들의 부패를 낱낱이 상주하였고, 결국 朱利人은 품계가 강등되고 황문관의 직책에서 물러나야만 했다.

또 하나의 예는 狄仁傑이 河南巡撫를 제수 받고 京師로 가는 도중에 들은 張昌宗과 그 수하들의 부패상에 관한 내용이다.

그대들은 지금 武后가 황음무도하여 張昌宗을 散騎常侍로, 張易之를 司衛少卿으로 임명하였음을 들었을 것이오. 그 두 소년은 아름다운 외모로 인해 太平公主의 추천으로 궁중에 들어갔는데 武后가 매우 기뻐하며 매일 그 두 사람으로 하여금 옷을 갈아입히고 분을 바르게 하여 동궁에 봉하였으니 武承嗣와 武三思 등은 모두 그들의 지휘를 받고, 그들 대신 하찮은 일을 하였소. 지금 오직 張易之를 張五郎이라 칭하고, 張昌宗을 張六郎이라 칭하며 모두 武后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 하고 있지요. 이에 文武大臣들은 王公子孫들에게 아첨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아첨하는 것이) 10배는 더 하였소. 성이 曾씨인 이놈은 바로 장씨 가문의 삼등 시녀의 아들로 어찌 된 일인지 많은 재물을 얻어 이곳에 와서 살게 되었지요. 게다가 이 현의 관리인 周卜成은 또한 장씨 가문 출신이라 이로써 머리와 꼬리가 서로 호응하였기 때문에, 曾有才는 법도는 보이지도 않는 듯 평소에 말을 강점하고, 부녀자를 강탈하는 등 말로 다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你們想該聽見現在武后荒淫，把張昌宗做了散騎常侍，張易之做了司衛少卿。因他二人少年美貌，太平公主薦入宮中，武后十分喜悅，每日令他二人更衣傅粉，封作東宮，這武承嗣、武三思諸人，皆聽他的指揮，代他執鞭牽蹻。現在只聽見稱張易之爲張五郎，張昌宗爲張六郎，皆是承順武后的意旨。因此文武大臣，恭維爲王子王孫，還勝十倍。這個姓曾的乃是張家的三等丫頭的兒子，不知怎樣，得了許多錢財，來這地方居住。加之這縣官周卜成，又是張家的出身，故此首尾相應，以故曾有才便目無法紀，平日霸佔田產，搶奪婦女，也說不盡的惡跡。)55)

55) 『狄公案』 31회.

張昌宗과 張易之는 武則天의 총애를 받아 武三思 등 무씨 종친들보다도 오히려 더 큰 권세를 휘둘렀다. 이에 조정의 신료들은 장씨 형제에게 줄을 대고자 노력했다. 이렇게 장씨 형제가 권세를 누리자 그 집안사람들 또한 제 주인의 권세를 믿고 무도한 짓을 벌인다. 위에 등장하는 曾有才와 周卜成 등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이다. 작가는 이들을 통해 당시 慈禧太后的 옆에서 慈禧太后的 권세를 함께 누리던 이들에 대해 비판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 4. 소결

『狄公案』은 청 말의 혼란스러운 사회현실 속에서 창작되었다. 이 시기는 慈禧太后的 집권과 서양세력의 침범, 각종 개혁의 좌초 등 중국의 오랜 역사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식인들은 아래로부터의 개혁에 주목하였고, 그 결과 당시 민중의 구시대적인 사상을 타파하고 서구의 새로운 사상을 전파하기 위한 계몽운동이 발생하였다. 지식인들은 가장 효과적인 선동수단으로 문학, 특히 소설을 꺼내들었고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 중국을 일깨우려는 시도를 한다. 이 과정에서 소설은 전통적인 작법을 벗어나 사회를 비판하는데 한 목소리를 내었으며, 서구의 문학기법을 받아들여 중국소설은 일대 혁신을 맞게 되었다. 이러한 推動은 훗날 5.4운동을 태동시킨 하나의 요소가 되기도 한다.

한편, 『狄公案』의 창작시점은 청 왕조의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때인데, 작가는 이름이나 필명 또한 남기지 않았다. 후반부의 내용을 反芻해보면 정치에 대한 묘사와 武則天의 음란함, 게다가 무씨 세력의 放縱함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청 말의 일반 민중들이 慈禧太后에게 갖는 불만을 표출한 것이고, 왕조시대의 끝 무렵에서 혼란한 사회상을 바로잡기 위해 清官이 출현하기를 바라는 희망까지도 표현된 것이라 보아야 한다. 작가는 이러한 염원이 담긴 작품을 보다 많은 이들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그 반대급부로 본인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이름이나 필명을 감추어야만 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 Ⅲ. 狄仁傑의 문학적 형상화 과정

초기의 공안소설은 사건의 발생과 관부의 조사, 그 결과 잘못된 판결에 의해 피해를 본 인물 등이 주된 서술대상이었으나, 공안소설이 번성하던 명대 이후의 작품에는 어떠한 청렴한 판관이 억울한 사건을 해결하고 하늘을 대신해 벌을 내리는 형태로 서술된다. 그에 따라 주인공 격인 판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당시 백성들이 바라마지않던 역할이나 인물상이 본래의 실존인물에 덧입혀지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狄公案』의 狄仁傑 또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소설인물이다. 여기서는 史書의 기록을 통해 狄仁傑의 생애를 조망하고, 『狄公案』 이전의 문학작품에서 형성된 狄仁傑의 인물형상을 실제와 비교하며 분석하겠다.

#### 1. 역사인물로서의 狄仁傑

狄仁傑은 중국에서 淸官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일찍이 胡適은 「三俠五義序」에서 包拯을 箭垛式 人物로 규정하였는데 예로부터 전해 내려온 판결 이야기들이 모두 包拯의 업적으로 돌아갔다고 하며 그를 ‘중국의 설록홈즈’라 칭했다. 역대의 청관들은 대부분 包拯과 같이 箭垛式 人物이라 할 수 있으며, 狄仁傑도 이 중 하나에 포함된다.

狄仁傑은 역사에 이름을 남긴 실제 인물로 그의 事跡은 대중의 추앙을 받으며 문학적으로 형상화되었다.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반 홀릭의 『大唐狄公案』 속 狄仁傑에 비해 史書에 기록된 狄仁傑의 생애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狄仁傑의 문학적 형상화 과정을 파악하기에 앞서 狄仁傑의 생애를 史書를 통해 조망해보고자 한다.

狄仁傑(630~700)은 당 대의 인물로 太宗으로부터 武則天 재위 기간까지 활동하였다. 狄仁傑은 唐 太宗 貞觀 4년(630)에 并州 太原(지금의 山西 太原)에서 출생하였고, 字는 懷英이다. 그는 汴州判佐로 시작하여 并州法曹을 지냈으며 高宗



儀鳳 연간(676~679)에는 大理丞이 된다. 寧州刺史, 復州刺史, 地官侍郎을 역임하다 鳳閣蘭臺平章事가 되어 재상의 자리에 올랐다. 693년 酷吏 來俊臣의 모함으로 옥에 갇혔다가 彭澤縣丞으로 좌천되기도 하였으나 魏州刺史에 다시 기용되기도 하였다. 그 후 蘭臺寺郎을 거쳐 다시금 鳳閣蘭臺平章事가 되었다. 久視 원년(700)에 洛陽의 사택에서 사망하였고, 文昌右丞에 추증되었으며 文惠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睿宗 때는 讓國公에 봉해지기도 한다.

위에 정리한 狄仁傑의 생애를 살펴보면 정치적 浮沈이 매우 심했음을 알 수 있다. 권력의 중심에 있다가 지방으로 貶謫되는 등 관직의 이동만 봐도 이를 증명할 수 있다. 그의 이러한 행적의 중심엔 청관으로서의 의식이 있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는 청관으로서 나라에 충성하고 백성을 위했으며, 간관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였다.

狄仁傑과 관련된 史書의 기록은 『舊唐書』와 『新唐書』의 열전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孫翠秀의 논문 「兩唐書中『狄仁傑傳』之比較」<sup>56)</sup>를 통해 살펴본 결과 이 두 사서는 편목과 순서, 표현의 측면에서 약간의 차이점을 보일 뿐이다. 하지만 『新唐書』의 기록이 『舊唐書』보다 좀 더 간략하다 하였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舊唐書』의 기록을 통해 狄仁傑의 事跡을 고찰하고자 한다. 여기에 기술된 狄仁傑 관련 기록은 역사 속 실존인물인 狄仁傑의 모습이 다양하게 드러나 있다.

狄仁傑의 자는 懷英으로, 并州 太原사람이다. 祖父인 狄孝緒는 貞觀 때에 尚書左丞이었고, 父親인 狄知遜은 夔州長史였다. 狄仁傑이 어렸을 때에 문객 중에 살해당한 자가 있어 현의 관리가 이를 조사하러 오자 집안사람 모두 그들을 맞이하여 조사에 응했으나 오직 狄仁傑만은 가만히 앉아 책을 읽었다. 관리가 그를 책망하자 狄仁傑이 말했다. “이 책 속에는 성현들께서 계시나 내가 대접해드리지 못하는데, 어느 틈에 그대와 같은 凡俗한 관리를 만나고 책망을 당하겠소?” 후에 明經科에 급제하여 汴州判佐에 除授되었다.

(狄仁傑字懷英，并州太原人也。祖孝緒，貞觀中尚書左丞。父知遜，夔州長史。仁杰兒童時，門人有被害者，縣吏就詰之，衆皆接對，唯仁杰堅坐讀書。吏責之，仁杰曰：“黃卷之中，聖賢備在，猶不能接對，何暇偶俗吏，而見責耶!”後以明經

56) 孫翠秀, 「兩唐書中『狄仁傑傳』之比較」, 『林區教學』, 2007年 11期.

舉，授汴州判佐。)57)

위의 예는 狄仁傑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더불어 그의 유년시절의 일화를 언급하고 있다. 짧은 일화이지만 유년시절 狄仁傑의 당돌함과 면학태도는 그의 일생에 기틀로 자리 잡는다.

『舊唐書』의 기록에 따르면 狄仁傑은 부모님에 대한 효성과 동료에 대한 우정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다음의 예는 閻立本의 추천으로 并州法曹로 임명되어 떠나는 장면이다.

并州都督部の 法曹에 천거되어 임명되었다. 그때 그의 부모는 河陽의 별장에 살고 있었는데 狄仁傑이 并州에 부임하며 太行山을 올라 남쪽을 바라보니 흰 구름이 외로이 날고 있었다. 狄仁傑이 좌우에 따르던 이들에게 말했다. “내 부모님께서 사시는 곳이 이 구름 아래 있다네.” 오래도록 서서 바라보다 구름이 멀리 가버리자 길을 떠났다. 狄仁傑은 효도와 우애가 남달랐는데, 并州에서 같은 都督部の 法曹인 鄭崇質이 모친이 늙고 병들었는데 변경의 먼 곳에 사신으로 가게 되었다. 狄仁傑이 그에게 말했다. “太夫人께서 병이 위급하신데 그대가 멀리 사신으로 떠나니 어찌 太夫人께 자식이 만리를 떠나는 걱정을 드릴 수 있겠는가!” 이내 長史 藺仁基에게 아뢰어 鄭崇質 대신 사신을 떠나겠다고 청했다. 이때에 藺仁基와 司馬 李孝廉은 화합되지 못하였는데 이에 藺仁基가 李孝廉에게 말했다. “우리들이 어찌 부끄럽지 않겠소?” 이로부터 그들의 사이가 처음과 같게 되었다.

(薦授并州都督府法曹。其親在河陽別業，仁杰赴并州，登太行山，南望見白雲孤飛，謂左右曰：“吾親所居，在此雲下。”瞻望佇立久之，雲移乃行。仁杰孝友絕人，在并州，有同府法曹鄭崇質，母老且病，當充使絕域。仁杰謂曰：“太夫人有危疾，而公遠使，豈可貽親萬里之憂！”乃詣長史藺仁基，請代崇質而行。時仁基與司馬李孝廉不協，因謂曰：“吾等豈獨無愧耶？”由是相待如初。)58)

57) 『舊唐書·列傳第三十九·狄仁傑』, 中華書局, 1975. 2885쪽.

58) 『舊唐書·列傳第三十九·狄仁傑』, 中華書局, 1975. 2885~2886쪽.

狄仁傑이 太行山을 넘어가며 부모님이 사시는 곳을 가늠해보는 장면은 그의 효성을 잘 드러내는 대목이다. 후세사람들은 이를 일러 ‘望雲之情’이라 일컫기도 하였다. 또한 병든 모친을 모시던 鄭崇質을 대신하여 사신을 떠나는 부분은 그의 동료에 대한 우정과 의리를 그리고 있다. 이를 통해 狄仁傑이 효성과 의리를 동시에 지닌 인격적으로 훌륭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舊唐書』에는 또한 狄仁傑의 사건 판결과 관련된 기록이 있다.

(狄仁傑은) 儀鳳(676~678) 연간에 大理丞이 되었는데 1년 동안 미제사건을 판결한 것이 만 칠천 명이나 되었으나 억울함을 호소한 자가 없었다.

(儀鳳中爲大理丞，週歲斷滯獄一萬七千人，無冤訴者。)59)

이 기록이 『舊唐書』에 기록된 유일한 사건 판결 기록이다. 아주 짙막한 대목이지만 ‘滯獄’이라 불리는 미제사건을 흡사 신과 같은 능력으로 해결해내었음을 이 대목을 통해 엿볼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狄仁傑을 소재로 하는 문학작품, 특히 공안소설에 큰 영향을 끼쳤다.

한편, 청관의 대명사인 狄仁傑의 事跡에서 그의 청렴함을 나타내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필자는 이를 『太平廣記』의 기록을 통해 추정해보았다. 張鷟과 어떤 사람의 대화에서 狄仁傑의 인물됨을 평가하는 부분이다.

손님이 물었다. “狄仁傑이 納言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浮休子(張鷟의 自號)가 대답했다. “狄仁傑은 經史를 건성으로 보았으며 문필도 경박하오. 그러나 진심으로 간언하여 경계를 삼도록 하니 옛 사람의 기풍을 지니고 있으며, 淫祠를 철폐하였으니 烈士의 절개가 있소. 그의 마음은 바르고 곧아 검게 물들이려 해도 물들지 않고, 담력과 기백은 굳세며 영명하고 과단성이 있소이다. 그러나 晩年에 錢癖이 있을 것이니, 和嶠(西晉 때의 名公으로 천성이 인색함)의 무리겠지요?”

(客曰：“狄仁傑爲納言，何如。”浮休子曰：“粗覽經史，薄閒文筆，箴規切諫，有古人之風。剪伐淫祠，有烈士之操。心神耿直。涅而不淄。膽氣堅剛。明而能斷。晚途錢癖，和嶠之徒與。”)60)

59) 『舊唐書·列傳第三十九·狄仁傑』, 中華書局, 1975. 2886쪽.

張鷟의 말에서 필자가 주목한 것은 ‘錢癖’이란 단어이다. 錢癖의 사전적 의미는 유달리 돈에 집착하는 성질이나 버릇을 뜻하는데, 西晉 때의 和嶠라는 인물에게서 유래한 말이다. ‘錢癖’이란 단어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狄仁傑을 부자면서도 성질이 인색했던 和嶠와 같은 사람이라 평가했음을 알게 해준다. 따라서 狄仁傑은 청관이긴 하지만 재물에 있어서는 그다지 청렴하지 않았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물론 寧州의 백성들이 德政碑를 세우고, 魏州의 백성들이 生祠를 건립하는 것을 볼 때, 그가 백성들의 재물을 갈취하여 자신의 재산을 증식한 것은 아닌 듯 하나, 청관의 자격을 의심할만한 태도이긴 하다.

그렇지만 청관의 요소가 청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 劉亦發의 『中國全史』에는 淸官의 특징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왕조에 대한 충성, 정무에 항상 성실한 태도, 옳지 않은 일에 대해 물러서지 않고 간언하는 강직함, 공명정대한 법집행, 재주 있는 사람을 아끼는 태도, 자신에게 엄격하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모습<sup>61)</sup> 등이 바로 그것이다.

간관으로서의 모습 또한 청관의 요소 중 하나인데 아래의 예는 武衛大將軍 權善才가 잘못하여 太宗의 능인 昭陵의 잣나무를 베어버린 사건의 처결에 대해 간언하는 내용이다.

그때, 武衛大將軍 權善才가 실수로 昭陵의 측백나무를 베어 죄를 짓자 인걸이 그 죄가 면직에 해당한다고 上奏하였다. 하지만 高宗은 그를 주살하라 명했다. 그러자 狄仁傑은 죄가 사형에 처할 정도는 아니라고 상주하였다. 황제가 낯빛을 바꾸며 말했다. “權善才가 능의 나무를 베어낸 것은 나로 하여금 불효케 한 것이니 반드시 그를 죽여야 한다.” 좌우에서 狄仁傑을 바라보며 나가라 하자 狄仁傑이 말하였다. “... 폐하께서 법을 만드시어 相魏(고대 황제나 제후의 궁 밖에 세운 한 쌍의 건축물)에 걸어 백성들에게 알리고, 徒刑, 流刑, 死刑 에 차등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극형을 받을 죄를 범하지도 않았는데 사형의 명을 내리십니까? 법에 常規가 없다면 만백성이 어찌 대응해야

60) 李昉, 『太平廣記 卷298』, 中華書局, 1961, 1236쪽.

61) 劉亦發, 『中國全史』, 中國辭書出版社, 2009, 354~355쪽.

하겠습니까? … 지금 폐하께서 昭陵의 잣나무 한 그루 때문에 한명의 장군을 죽이신다면, 천년 후에 세상 사람들이 폐하를 어떤 군주라 평가하겠습니까? 이것이 신이 감히 폐하의 명을 받들지 않고 權善才를 죽이지 않음으로써 폐하를 무도함에 빠뜨리지 않으려하는 까닭입니다.” 이에 황제의 화가 조금 누그러져 權善才는 이로 인해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 수일이 지나, 狄仁傑에게 侍禦史의 벼슬을 내렸다.

(時武衛大將軍權善才坐誤斫昭陵柏樹，仁傑奏罪當免職。高宗令即誅之，仁傑又奏罪不當死。帝作色曰：“善才斫陵上樹，是使我不孝，必須殺之。”左右矚仁傑令出，仁傑曰：“…陛下作法，懸之象魏，徒流死罪，俱有等差。豈有犯非極刑，即令賜死？法既無常，則萬姓何所措其手足？…今陛下以昭陵一株柏殺一將軍，千載之後，謂陛下爲何主？此臣所以不敢奉制殺善才，陷陛下於不道。”帝意稍解，善才因而免死。數日，授仁傑侍禦史。)62)

狄仁傑의 직간은 고종의 역린을 건드렸지만 논리적인 화술로 高宗의 화를 누그러뜨리는 것을 볼 수 있다.

『舊唐書』에는 청관으로서 백성을 위하는 狄仁傑의 행적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상급자의 미움을 사는 경우가 종종 벌어졌다. 다음은 狄仁傑이 越王의 난이 마무리되고 豫州刺史로 부임한 장면이다.

文昌右丞으로 전임되어 豫州刺史로 나갔다. 당시 越王 貞이 汝南에서 거병한 일이 실패하여 연좌된 자가 육칠백 명이고, 가산을 몰수 당할 자가 오천 명이었다. 司刑(大理寺)에서 재촉하여 형을 행하게 하자 狄仁傑은 잘못된 판결을 안타깝게 여겨 그 판결을 늦추고 비밀리에 表文을 올려 말하였다. “신이 공공연하게 上奏하였다면 역도를 위하여 용서를 구하는 것과 같고, 알고는 있으나 말씀드리지 않는다면 폐하의 구휼하려는 뜻을 어그러뜨릴까 두려워 表文을 지었다가 다시 없애고 뜻을 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 무리는 모두 본심이 아니었으니 없드려 바라옵건대 그 잘못됨을 애달피 여겨주소서.” 그러자 황제가 특별히 사면하여 豊州로 유배시켰다. 豫州의 죄수들이 寧州를 지나가는데,

62) 『舊唐書·列傳第三十九·狄仁傑』, 中華書局, 1975. 2886쪽.

寧州의 父老들이 그들을 맞이하여 위로하며 말했다. “우리 狄使君(太守)께서 당신들을 살렸소.” 그러자 德政碑 아래서 서로 손잡고 울며 삼일을 齋한 후에 갔다. 豫州의 죄수들이 유배지에 이르러 다시 함께 비를 세워 狄使君의 덕을 칭송하였다.

(轉文昌右丞，出爲豫州刺史。時越王貞稱兵汝南事敗，緣坐者六七百人，籍沒者五千口，司刑使逼促行刑。仁傑哀其誣誤，緩其獄，密表奏曰：“臣欲顯奏，似爲逆人申理；知而不言，恐乖陛下存恤之旨。表成復毀，意不能定。此輩咸非本心，伏望哀其誣誤。”特敕原之，配流豐州。豫囚次於寧州，父老迎而勞之曰：“我狄使君活汝輩耶！”相攜哭於碑下，齋三日而後行。豫囚至流所，復相與立碑頌狄君之德。)63)

越王의 난은 武則天에게 빼앗긴 왕권을 찾아오기 위한 반란이었으나 다른 왕들이 마지막에 참여를 거부하여 20여 일 만에 진압된 사건이다. 이 때문에 역모에 연좌되거나 단순 동원될 자로 가산이 몰수될 자들이 너무도 많았다. 당시 예주자사로 부임한 狄仁傑은 이들의 사정을 안타까워하며 비밀리에 표문을 올려 그들의 형을 경감시킨다. 백성을 위하는 그의 애민사상이 잘 표현된 대목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당시 토벌군을 이끌던 재상 張光輔의 미움을 사게 된다. 아래의 기록이 바로 그 장면이다.

처음에 越王의 난에 宰相 張光輔가 군사를 이끌고 그들을 토벌하여 평정하였는데 장수와 사졸들이 軍功을 믿고 요구하는 것이 많았으나 狄仁傑은 응하지 않았다. 張光輔가 노하여 말했다. “太守는 元帥를 가볍게 보는 것인가?” 狄仁傑이 말했다. “河南을 어지럽힌 자는 越王 한 사람 뿐입니다. 지금은 한 명의 李貞은 죽었으나 만 명의 李貞이 생겼습니다.” 張光輔가 그의 말을 힐난하자 狄仁傑이 말했다. “明公은 병사 30만을 통솔하여 한 명의 亂臣을 평정하였으나 병사들을 거두어들이지 않고 그 횡포함을 방종하여 죄 없는 이들이 참혹한 죽음을 당하는데 이것이 만 명의 李貞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 만약 尙房의 斬馬劍을 얻어 그대의 목을 찌를 수 있다면 설령 죽더라도 여한이 없겠습니

63) 『舊唐書·列傳第三十九·狄仁傑』, 中華書局, 1975, 2887쪽.

다.” 張光輔는 힐난할 수 없게 되자 마음은 더욱 그를 원망하게 되어 도성으로 돌아가 狄仁傑이 불손하였다고 상주하였다. (이에) 좌천되어 復州刺史에 제수되었다.

(初, 越王之亂, 宰相張光輔率師討平之。將士恃功, 多所求取, 仁傑不之應。光輔怒曰: “州將輕元帥耶?” 仁傑曰: “亂河南者, 一越王貞耳。今一貞死而萬貞生。” 光輔質其辭, 仁傑曰: “明公董戎三十萬, 平一亂臣, 不戢兵鋒, 縱其暴橫, 無罪之人, 肝腦塗地, 此非萬貞何耶? … 如得尚方斬馬劍加於君頸, 雖死如歸。” 光輔不能詰, 心甚銜之。還都, 奏仁傑不遜, 左授復州刺史。)64)

이 대목을 통해 狄仁傑이 당대의 권력자 앞에서도 옳지 않은 일에 물러서지 않는 청관으로서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狄仁傑은 미신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취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는 그가 현실주의적이고 합리적인 성격의 소유자임을 보여준다. 이를 알 수 있는 예는 우선 調露 원년(679)에 高宗이 汾陽宮으로 행차하는 상황에서이다.

高宗이 汾陽宮으로 순행을 하려함에 狄仁傑을 知頓使로 삼았다. 並州長史 李沖玄이 (순행) 도중에 妒女祠를 지나게 되는데 속설에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지나가는 자는 반드시 바람과 우레의 재앙이 닥칠 것이라 하니, 수만의 백성들을 뽑아 달리 御駕가 지날 곳을 만들고 있었다. 狄仁傑이 말했다. “천자의 행렬은 千乘萬騎가 따르고 風伯이 먼지를 청정하게 하고 雨師가 길을 닦는데 어찌 妒女神이 해를 끼치겠는가?” 명령을 내려 공사를 멈추게 하였다. 高宗이 이를 듣고는 감탄하며 말했다. “진정한 대장부로다!”

(高宗將幸汾陽宮, 以仁傑爲知頓使。並州長史李沖玄以道出妒女祠, 俗云盛服過者必致風雷之災, 乃發數萬人別開禦道。仁傑曰: “天子之行, 千乘萬騎, 風伯清塵, 雨師灑道, 何妒女之害耶?” 遽令罷之。高宗聞之, 歎曰: “真大丈夫也!”)65)

64) 『舊唐書·列傳第三十九·狄仁傑』, 中華書局, 1975, 2887-2888쪽.

65) 『舊唐書·列傳第三十九·狄仁傑』, 中華書局, 1975, 2887쪽.

狄仁傑의 이런 현실주의적 성격은 그가 江南巡撫使에 임명되고 난 후 ‘淫祠 철폐’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원동력이 된다. 『舊唐書』의 기록을 통해 그의 江南巡撫使로서의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冬官侍郎이 되어 江南巡撫使로 임명되었다. 吳楚의 風俗에 淫祠가 많아 狄仁傑이 상주하여 千七百 所를 허물고, 오직 夏禹와 吳太伯, 季割, 伍員(伍子胥)의 4개 祠廟만 남겼다.

( … 徵爲冬官侍郎, 充江南巡撫使。吳、楚之俗多淫祠, 仁傑奏毀一千七百所, 唯留夏禹、吳太伯、季割、伍員四祠。)66)

『舊唐書』의 기록 외에 『隋唐嘉話』에는 周赧王, 楚王項羽, 吳王夫差, 越王勾踐, 吳夫概王, 春申君, 趙佗, 馬援, 吳桓王 등을 모시는 신묘가 백성들에게 해를 입히자 모두 철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67)

狄仁傑의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江南巡撫使로 임명된 688년 6월에서 豫州刺史로 전임된 9월까지 약 2개월 간 이루어진다. 짧은 기간 동안 효과적으로 음사를 철폐하였으나 狄仁傑이 떠나고 난 뒤에 다시금 음사들이 세워진 것은 그다지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淫祠를 철폐하는데 온 힘을 쓴 狄仁傑을 신으로 모시는 祠廟가 狄仁傑의 생전에 세워진 것은 아이러니한 일일 것이다.68)

狄仁傑의 정치역정은 항상 굴곡의 연속이었다. 『舊唐書』에는 그가 재상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酷吏 來俊臣의 무고로 하옥되는 장면이 등장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來俊臣의 무고로 인해 하옥되었다. 이때 한번 물음에 모반을 인정하는 자는 죽음을 면하는 예가 있어 來俊臣이 狄仁傑을 핍박하여 한번에 반역을 인정하라 하였다. 狄仁傑이 탄식하며 “大周의 혁명으로 만물이 새

66) 『舊唐書·列傳第三十九·狄仁傑』, 中華書局, 1975, 2887쪽.

67) 劉餗 撰, 『隋唐嘉話』, 中華書局 1997, 40쪽. (狄內史仁傑, 始爲江南安撫使, 以周赧王、楚王項羽、吳王夫差、越王勾踐、吳夫概王、春申君、趙佗、馬援、吳桓王等神廟七百餘所, 有害於人, 悉除之。惟夏禹、吳太伯、季札、伍胥四廟存焉。)

68) 김상범, 『당대 국가권력과 민간신앙』, 신서원, 2005, 138-140쪽.



롭게 되었으니, 당 왕조의 옛 신하로 기꺼이 죽임을 당하리라. 반역한 것은 사실이오.” 하였다. 來俊臣은 이내 조금 너그럽게 대했다. 判官 王德壽가 狄仁傑에게 일러 말하길 “상서계선 필시 사형에서 감형되실 겁니다. 제가 승진을 하려하니 상서계서 楊執柔를 끌어들이실 수 있겠는지요?”라고 하자, 狄仁傑이 말하길 “어떻게 그를 끌어들이는가?” 하니 王德壽가 말하길 “상서계서 春官이 실 때, 楊執柔가 그 司의 員外를 맡았으니 그를 끌어들이면 됩니다.”라고 하였다. 狄仁傑이 말하길 “皇天后土께서 나 狄仁傑을 보내어 이러한 일을 행하게 하셨다!” 하며 머리를 기둥에 부딪치니 피가 흘러 얼굴을 덮었다. 王德壽는 두려워하며 그에게 사죄하였다.

(未幾，爲來俊臣誣構下獄。時一問即承者例得減死，來俊臣逼脅仁傑，令一問承反。仁傑歎曰：大周革命，萬物唯新，唐朝舊臣，甘從誅戮。反是實！俊臣乃少寬之。判官王德壽謂仁傑曰：“尚書必得減死。德壽意欲求少階級，憑尚書牽楊執柔，可乎？”仁傑曰：“若何牽之？”德壽曰：“尚書爲春官時，執柔任其司員外，引之可也。”仁傑曰：“皇天后土，遣仁傑行此事！”以頭觸柱，流血被面，德壽懼而謝焉。)69)

來俊臣은 이 사건 전에 武則天으로부터 한 번에 죄를 인정하면 감형해줄 수 있도록 칙령을 받아내었다. 그는 이를 가지고 조정의 신료들을 역모로 몰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인정치 않아 고문을 당하는 등 고초를 겪었다. 하지만 狄仁傑은 기민한 판단으로 우선 죄를 인정하고 몸을 보전하여 후일을 도모하고자 하였음을 사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또한 王德壽의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하는 단호한 태도는 그가 당의 충신으로서 동료를 배신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다음은 才智를 발휘하여 누명을 벗는 부분이다.

이미 반역을 인정하였기에 이를 맡은 관청은 형을 행할 때를 기다릴 뿐 더는 엄하게 감시하지 않았다. 狄仁傑이 간수에게 지필묵을 얻어 이불보를 찢어서 원통함을 호소하는 글을 쓰고 솜옷 안에 두고는 王德壽에게 말했다. “때가 한창 더워지니, 청컨대 가족들에게 이 솜옷을 가져가게 해 주시오.” 王德壽는

69) 『舊唐書·列傳第三十九·狄仁傑』, 中華書局, 1975, 2888쪽.

이를 자세히 살피지 않았다. 狄仁傑의 아들 狄光遠이 서신을 얻어 이것을 가지고 고변하니 武則天이 불러 알현하였다. 서신을 보고 來俊臣에게 물으니 來俊臣이 말했다. “狄仁傑은 冠帶를 벗지 않았으며 자는 곳도 매우 편안한데 사실이 아니라면 무슨 이유로 죄를 자복하겠습니까?” 武則天이 사람을 시켜 그를 감시하게 하자 來俊臣은 狄仁傑에게 두건과 혁대를 착용하게 하여 사자를 만나게 하고, 이내 王德壽에게 狄仁傑 대신 謝死表를 짓게 하여 사자로 하여금 올리게 하였다. 武則天이 狄仁傑을 소환하여 말했다. “반역을 승복한 것은 어찌된 것인가?” 狄仁傑이 대답하였다. “만약 인정하지 않았다면 이미 고문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하였다. 武則天이 물었다. “어찌하여 謝死表를 지었는가?” 狄仁傑은 대답했다. “신은 그러한 表文을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에게 보이니 이내 대신 작성한 것임을 알게 되어, 이 때문에 죽음을 면하게 되고 彭澤令으로 좌천되었다. 武承嗣가 누차 상주하여 그를 주살할 것을 청했으나 武則天은 말했다. “짐은 원래부터 악한 이를 죽이는 것을 좋아하나 뜻은 구제하는데 있다오. 이미 명령이 하달되었으니 다시 바꿀 수 없소.”

(既承反，所司但待日行刑，不復嚴備。仁傑求守者得筆硯，拆被頭帛書冤，置綿衣中，謂德壽曰：“時方熱，請付家人去其綿。”德壽不之察。仁傑子光遠得書，持以告變。則天召見，覽之而問俊臣，俊臣曰：“仁傑不免冠帶，寢處甚安，何由伏罪？”則天使人視之，俊臣遽命仁傑巾帶而見使者。乃令德壽代仁傑作謝死表，附使者進之。則天召仁傑，謂曰：“承反何也？”對曰：“向若不承反，已死於鞭笞矣。”“何爲作謝死表？”曰：“臣無此表。”示之，乃知代署也。故得免死，貶彭澤令。武承嗣屢奏請誅之，則天曰：“朕好生惡殺，志在恤刑。渙汗已行，不可更返。”)<sup>70)</sup>

이미 죄를 인정했기에 더 이상 엄한 감시가 없는 것을 확인한 狄仁傑은 몰래 자신의 사정을 설명한 글을 이불보에다 쓰고는 아들에게 은밀히 가지고 가게 하였다. 결국 武則天은 저간의 사정을 파악하고서 그를 좌천시키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한다.

이처럼 狄仁傑은 흑리들에게 시달리고, 무씨 일파에게 공격을 받는 등 정치적

70) 『舊唐書·列傳第三十九·狄仁傑』, 中華書局, 1975. 2888-2889쪽.

으로 박해를 당하게 된다. 이는 狄仁傑이 여전히 당의 충신이었기 때문이고, 강직한 청관이었기 때문이다. 彭澤縣令으로 좌천된 狄仁傑은 후에 거란이 침입하면서 다시금 중임을 맡게 된다.

『舊唐書』에는 狄仁傑이 거란의 침입 이후 魏州刺史로 임명되고 또다시 재상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고 서술되어있다. 이때부터 그는 武則天의 무한한 총애를 받는 신하로서 관직생활을 이어간다. 다음의 예는 이를 잘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다.

聖曆 3년(700)에 武則天이 三陽宮으로 순행을 떠났는데 종친들과 대소신료들이 모두 시종하고 있었으나 오직 狄仁傑에게만 특별히 머무를 수 있는 저택을 한 채 하사하였으니, 당시의 은총은 다른 이들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聖曆三年，則天幸三陽宮，王公百僚咸經侍從，唯仁傑特賜宅一區，當時恩寵無比。)71)

武則天이 狄仁傑을 얼마나 총애했는지는 久視 원년에 그가 낙양의 사택에서 병사한 후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다. 『資治通鑑』은 이를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太后가 內史인 梁文惠公 狄仁傑을 믿고 중히 여겼는데, 신하들은 따라가지 못하였고, 항상 그를 ‘國老’라고 이르며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狄仁傑은 자주 태후의 면전에서 그 허물을 직간하였는데 태후는 매번 뜻을 굽히고 그를 따랐다. 일찍이 태후를 좇아서 遊幸하는데, 바람을 만나서 狄仁傑의 巾이 떨어지고 말이 놀라서 멈추지 않자 태후가 태자에게 명하여 쫓아가 말의 재갈을 잡게 하고 그것을 잡아매게 하였다. 狄仁傑이 여러 차례 노환으로 사직을 청하였지만 태후가 허락하지 않았다. … 辛丑日에 사망하자, 태후가 울면서 말하였다. “朝堂이 텅 비었구나!” 이로부터 조정에서 큰일이 있거나 많은 사람들이 결정을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면 태후가 번번이 탄식하며 말하였다. “하늘이 나의 國老를 빼앗아 간 것이 어찌 이리도 이르단 말인가!”

71) 『舊唐書·列傳第三十九·狄仁傑』, 中華書局, 1975. 2893쪽.

(太后信重內史梁文惠公狄仁傑，群臣莫及，常謂之國老而不名。仁傑好面引廷爭，太后每屈意從之。嘗從太后遊幸，遇風吹仁傑巾墜，而馬驚不能止，太后命太子追執其鞅而繫之。仁傑屢以老疾乞骸骨，太后不許。… 辛丑，薨，太后泣曰：“朝堂空矣！”自是朝廷人事，眾或不能決，太后輒歎曰：“天奪吾國老何太早邪！” )<sup>72)</sup>

狄仁傑은 武則天의 이러한 충애를 이용하여 당에 충성할만한 인물들을 조정에 추천했다. 桓彥範, 敬暉, 竇懷貞, 姚崇 등 公卿大夫에 오른 자들이 수십 명이었을 정도였다. 狄仁傑 사후 武則天에게 양위를 얻어내고 廬陵王을 복위시킨 대표적인 인물인 張柬之 또한 狄仁傑이 추천한 인물이었다. 『舊唐書』를 통해 狄仁傑이 張柬之를 추천하는 장면을 살펴보겠다.

일찍이 武則天이 狄仁傑에게 물었다. “짐이 좋은 인재를 관리로 임명코자 하는데 누가 있겠소?” 狄仁傑이 말했다. “폐하께서는 어떻게 쓰시려 하십니까?” 武則天이 말했다. “짐은 將相으로 쓰려하오.” … 狄仁傑이 말했다. “荊州長史 張柬之는 비록 늙었으나 진실로 재상을 맡을 만한 인재입니다. 오래도록 기회를 만나지 못했으니 만약 그를 쓰신다면 반드시 국가에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武則天이 이내 불러다 洛州司馬에 임명했다. 다른 날에 또 현인을 구하였다. 狄仁傑이 말했다. “신이 전에 말씀드렸던 張柬之는 아직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武則天이 말했다. “이미 그를 임명했소.” 狄仁傑이 대답하였다. “신은 그를 재상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지금 洛州司馬로 삼으셨으니 그를 쓰시지 않으신 것이지요.” 그러자 다시 秋官侍郎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후에 재상으로 삼았다. 張柬之가 정말로 中宗을 복위시켰으니 모두 狄仁傑이 추천해서였다.

(初，則天嘗問仁杰曰：“朕要一好漢任使，有乎？”仁杰曰：“陛下作何任使？”則天曰：“朕欲待以將相。” … 仁杰曰：“荊州長史張柬之，其人雖老，真宰相才也。且久不遇，若用之，必盡節於國家矣。”則天乃召拜洛州司馬。他日，又求賢。仁杰曰：“臣前言張柬之，猶未用也。”則天曰：“已遷之矣。”對曰：“臣薦之爲相，今爲洛州司馬，非用之也。”又遷爲秋官侍郎，後竟召爲相。柬之果能興復

72) 司馬光 撰, 권중달 譯, 『자치통감 22』, 삼화출판사, 2009, 153~154쪽.

中宗, 蓋仁杰之推薦也。)

狄仁傑은 인재를 추천함으로써 조정에 당에 충성할 신하들을 많이 심어두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자신은 武則天의 총애를 받는 총신으로서 오명을 얻게 되었지만 결국 武則天에게서 당 왕조를 다시 찾아오게 되었으니 그의 목표는 완수된 것이었다.

이상 『舊唐書』와 관련 자료를 통하여 狄仁傑의 면모를 살펴보았다. 狄仁傑은 효성스럽고 동료와의 의리를 지켰으며, 명관관으로 수많은 미제사건을 해결하고, 불의에 맞서 싸우는 강직한 간관으로서의 모습까지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역사상 실존인물로서의 狄仁傑은 청관이자 노련한 정치가의 행적이 두드러진다는 점이 특징이라 하겠다.

## 2. 문학인물로서의 狄仁傑

중국의 많은 역사적 인물들은 흔히 문학작품을 통해 ‘문학인물’로 형상화되는 경우가 많다. 張國風은 그의 책 『公案小說漫話』에서 중국인들은 대부분의 역사지식을 역사서에서 얻는 것이 아닌 문학작품, 특히 소설에서 습득하는 경우가 많으며, 동시에 역사진실과 예술진실의 경계를 그다지 중시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한 것이며, 이런 이유로 역사적 인물은 문학 속에서 긍정적으로 제고되거나 신격화되고, 혹은 부정적으로 왜곡되거나 폄하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말한다.<sup>73)</sup>

狄仁傑은 當代에는 물론 後代에 이르기까지 그 명성이 매우 높은 인물이었다. 그의 事跡은 사서의 기록을 통해서도 전해졌지만 민중들의 입이나 문학가들의 붓에 의해 세상에 전해지게 된다. 狄仁傑은 민간의 전설, 역대의 소설, 잡극에 이르기까지 누대에 걸쳐 다양한 문학작품에 등장하였다. 작품 속에서 狄仁傑은 사서에 기록을 벗어나 보다 다양하게 변모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73) 張國風, 『公案小說漫話』, 江蘇古籍出版社, 1995, 88~89쪽.

狄仁傑을 제재로 삼은 작품은 문언소설이나 백화소설 모두에서 찾아볼 수 있다. 狄仁傑과 관련된 고대소설은 모두 30종의 책에 달하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3: 狄仁傑 관련 고대소설><sup>74)</sup>

시대	작자	서명	수록된 狄仁傑고사
唐代	薛用弱	『集異記』	「集翠裘」, 「狄梁公」
唐代	戴孚	『廣異記』	「霍有鄰」, 「狄仁傑」, 「狄仁傑」
唐代	劉餗	『隋唐嘉話』	「毀淫祠」
唐代	劉肅	『大唐新語』	「持法第七」, 「政能第八」, 「舉賢第十二」, 「識量第十四」, 「容恕第十五」, 「酷忍第二十七」
唐代	封演	『封氏聞見記』	「剛正」篇兩則, 「狄仁傑諫勿改道」; 「毀淫祠」
唐代	張鷟	『朝野僉載』	四則, 「爲武后解鸚鵡夢」; 「狄仁傑晚年貪財」; 「與同僚調笑」; 「毀淫祠」.
唐代	李亢	『獨異志』	二則, 「狄仁傑斷獄萬七千條」; 「狄仁傑毀淫祠」.
唐代	呂道生	『定命錄』	狄仁傑이 霍獻可를 발탁한 이야기
唐代	李濬	『松窗雜錄』	「狄梁公」
唐代	袁郊	『甘澤謠』	「素娥」
五代	王仁裕	『玉堂閑話』	「狄仁傑祠」
宋代	無名氏	『梁公九諫』	狄仁傑이 후사 문제로 武則天에게 아홉 번 간언한 이야기
宋代	王謙	『唐語林』	「方正」中兩則, 「雅量」, 「賢媛」各一則
宋代	孔平仲	『續世說』	卷一, 「出使絕域」, 卷三, 「婁師德薦狄仁傑」, 卷四, 「狄仁傑薦張柬之」, 卷四, 「狄仁傑無暇與吏語」, 卷五, 「狄仁傑深得武后信任」
宋代	王楙	『野客叢書』 卷二十一	「望雲思親」
明代	何良俊	『何氏語林』	「集翠裘」, 「識鑒」, 「妒女祠」
明代	馮夢龍	『智囊全集』	「妒女祠」, 「狄仁傑」(諫立嗣), 「毀淫祠」, 「盧姨」
明代	馮夢龍	『情史』	卷十七情穢類「集翠裘」
明代	曹臣	『舌華錄』	「謔語第八」狄仁傑과 盧獻의 농담, 「譏語第十三」당이모 노씨 이야기, 「淒語第十八」望雲思親 이야기
明代	張岱	『夜航船』	卷六, 「公門桃李」, 「藥籠中物」,

74) 汪達文, 「古代小說中的狄仁傑形象流變研究」, 北京外國語大學 석사논문, 2015, 42쪽.

			「滄海遺珠」、「集翠裘」
明代	劉元卿	『賢弈編』	狄仁傑이 사당을 세우는 것에 대해 간언함
明代	羅貫中	『隋唐兩朝志傳』	第九十七回 「婁師德唾面自干」
明代	嘉禾餐花主人	『濃情快史』	전서 30회 중, 9회에 걸쳐狄仁傑에 대해 서술함
清代	褚人獲	『隋唐演義』	100회 중, 70회에서 75회까지狄仁傑에 대해 서술함
清代	如蓮居士	『薛剛反唐』	100회 중 9회에 걸쳐狄仁傑에 대해 서술함
清代	無名氏	『唐宮春武則天』	18회로狄仁傑이廬陵王을 맞이하고,武則天을 꺾박하여 퇴위시켰으며李唐天下를 회복함
清代	不奇生	『武則天外史』	28회 중 3회에 걸쳐狄仁傑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함
清代	無名氏	『綠牡丹』	64회 중, 45회부터狄仁傑에 대한 이야기가 서술됨
清代	無名氏	『狄公案』	64회로狄仁傑이 주인공임
清代	於敏中, 朱彝尊 등	『日下舊聞考』 卷一百五十八	二則。「狄仁傑毀白羊祠」, 「狄仁傑審虎」

狄仁傑과 관련된 당대로부터 청대에 이르기까지의狄仁傑 관련 소설작품을 분석하면 크게 명대 이전의 작품과 명 청대의 작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명대 이전에는 문언필기류의 단편소설작품이 주를 이루고 『梁公九諫』 한 편만이 백화화본소설이다. 명청대의 작품은 장편백화소설로 인물형상이 쓰이는 양상이 매우 다양한데 汪達文은 그의 논문<sup>75)</sup>에서 역사연의소설, 염정소설, 공안소설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앞서 살펴 본狄仁傑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실제인물에서 문학인물로 변화하는狄仁傑의 형상을 명대 이전시기와 명청 시기의 작품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이를 통해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狄仁傑의 형상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 1) 명대 이전 시기

명대 이전 시기는狄仁傑 인물형상의 분화과정에서 초기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명대 이전의 소설은 문언필기 형식의 소설이 주를 이루는데 이를 체재로 분류하

75) 汪達文, 「古代小說中的狄仁傑形象流變研究」, 北京外國語大學 석사논문, 2015.

면 지인소설과 지괴소설로 양 갈래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지인소설은 주로 인물에 얽힌 숨겨진 이야기나 正史에 전해지지 않는 野史를 기록한 형태의 소설작품을 말한다. 그러므로 대다수의 작품들은 비교적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서술되었고, 이를 통해 형상화된 인물형상 또한 실제인물의 행적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지인소설작품의 狄仁傑 인물형상도 앞서 다룬 사서 속 狄仁傑의 행적에 근거하여 형상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지인소설작품 속에서 狄仁傑은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켜 형상화되었다. 예를 들어 『封氏聞見記』에서 狄仁傑이 高宗에게 직간하여 귀신 때문에 巡幸하는 행로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장면, 『續世說』에서 동료인 鄭崇質을 대신하여 변방으로 떠나며 鄭崇質에게 병든 모친을 돌볼 수 있게 한 장면 등은 『舊唐書』에 기록된 狄仁傑의 행적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묘사하였다.

반면에 『松窗雜錄』은 狄仁傑의 부정적인 면을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 狄仁傑의 부정적인 면이란 武則天을 섬기는 寵臣으로서의 모습을 뜻한다. 『松窗雜錄』에는 狄仁傑이 재상이 된 후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狄仁傑이 재상이 되었는데 당이모 노씨가 午橋 남쪽의 한적한 곳에 살고 있었다. 당이모는 아들이 여태껏 도성의 친척집을 왕래하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 狄仁傑은 매번 복날과 선달그믐날에 매우 정중하게 예물을 갖추었다. 狄仁傑이 한번은 눈이 매우 많이 온 후에 휴가를 주었기에 당이모 노씨를 찾아가 안부를 물었는데, 마침 그의 사촌동생이 활을 옆에 끼고 썰매와 토끼를 들고 돌아오더니 음식을 북당으로 차려 올렸다. 그는 양공을 돌아보고 인사하였으나 그 의도가 매우 경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이었다. 狄仁傑이 당이모에게 말했다. “제가 지금 재상이 되었으니 사촌동생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힘을 다해 그 뜻을 들어주고자 합니다.” 당이모가 말했다. “재상이 본디 귀하긴 하지만 네 이모는 하나 뿐인 자식에게 女主(武則天)를 섬기게 하고 싶지 않구나.” 狄仁傑은 크게 부끄러워하며 물러났다.

(狄仁傑之爲相也，有盧氏堂姨居於午橋南別墅。姨止有一子，而未嘗來都城親戚家。梁公每遇伏臘晦朔，修禮甚謹。嘗經甚雪多休暇，因候盧姨安否，適見表弟



挾弓矢攜雉兔來歸，膳味進於北堂。顧揖梁公，意甚輕簡。公因啟姨曰：“某今爲相，表弟有何樂從，願悉力以從其旨。”姨曰：“相自貴，爾姨止有一子，不欲令其事女主。”人傑大慚而退。)76)

제상이 된 그는 으스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한 번도 자신을 찾지 않던 당이모 모자를 찾아가 도움을 주겠다 말하지만 뜻밖에도 당이모에게 단호하게 거절당한다. 그러자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부끄러워하며 자리를 떠났다. 이 작품에서 狄仁傑은 당시 모순적 처지에 처해있던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公大慚而退.”라는 짧은 문장이지만 그의 자괴감을 여실히 드러내는 표현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松窗雜錄』의 작가는 어째서 狄仁傑을 비난한 것일까? 이는 ‘忠臣不事二君’이란 말이 있듯이 狄仁傑의 행태가 사실 두 임금을 섬긴 것이기 때문이다. 작가는 당의 신하이자, 유학자로서 狄仁傑의 처세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唐 前期의 정치 환경의 영향도 있었으리라 추측된다. 武則天을 비롯하여 太平公主나 中宗의 황후인 韋씨에 이르기까지 높은 지위를 가진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했으며 당 정계에 일정정도의 영향을 끼쳤고, 심지어는 정국의 동요를 가져오기도 했다.<sup>77)</sup>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의 사대부들이 女主를 위해 일하는 狄仁傑을 좋게 볼 리가 만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목소리를 낼 수는 없으니 문학을 빌려 자기의 생각을 드러낸 것이 아니겠는가.

지괴소설은 또 어떻게 狄仁傑을 묘사하고 있을까? 지괴소설은 지인소설과는 달리 신선, 귀신 등 허구적 소재를 동원한다. 따라서 실제인물을 대상으로 서술한다 하더라도 허구가 많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지괴소설 속에서 狄仁傑은 神人 과 같은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대표적인 지괴소설인 『廣異記』를 통해 지괴소설에 묘사된 狄仁傑의 인물형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廣異記』에는 狄仁傑을 소재로 한 세 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앞서 제시한 표를 보면 「狄仁傑」이란 이름의 서로 다른 두 편의 작품과 「霍有隣」이라는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우선 『廣異記』 4권에 수록된 첫 번째 「狄仁傑」 조부터 살펴보

76) 李昉, 『太平廣記 卷298』, 中華書局, 1961, 2127쪽.

77) 汪達文, 「古代小說中的狄仁傑形象流變研究」, 北京外國語大學 석사논문, 2015, 7쪽.

자. 대략의 내용은 狄仁傑이 668년에 江南巡撫使로 임명되어 강남지방의 淫祠를 철폐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高宗 때 狄仁傑은 監察禦使가 되어 江南과 嶺南지역에서 神祠들을 거의 다 불살라버렸는데, 端州에 이르러서는 蠻神(오랑캐의 신)과 부딪히게 되었다. 인물은 그 사당도 불태우길 원했지만, 보내는 사람마다 사당에 들어가면 바로 죽어나오곤 했다. 이에 狄仁傑은 10만 냥의 현상금을 걸고 사당을 불사를 수 있는 자를 구했는데, 마침 두 명이 모집에 응했다. 狄仁傑이 가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묻자, 勅牒을 얻고자 한다고 답하니 狄仁傑이 勅牒을 주었다. 그들은 勅牒을 가지고 가 그 사당에 이르러서는 바로 勅牒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곤 勅牒을 펼치고 들어가 그것을 읽으니, 蠻神은 더 이상 요동도 못했고, 마침내 神廟를 불태워버릴 수 있었다. 그 후 狄仁傑은 변주로 돌아왔는데 우연히 만난 見鬼者(귀신에게 비는 일을 업으로 삼은 자)가 말했다. “侍御史 뒤에 만신이 있는데, (侍御史 때문에)사당이 불타버렸으므로 항상 복수하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狄仁傑이 말했다. “일이 결국 어찌 되었소?” 見鬼者가 말했다. “侍御史께서는 반드시 台輔(재상)가 되실 것이며, 게다가 20여 명의 귀신이 수행하고 있으니 蠻神이라 해도 어쩔 도리가 있겠습니까?” 한참이 지난 후 蠻神은 영남으로 돌아갔다.

(高宗時，狄仁傑爲監察禦史，江嶺神祠，焚燒略盡。至端州，有蠻神，仁傑欲燒之，使人入廟者立死。仁傑募焚之者，賞錢百千。時有二人出應募，仁傑問：“往復何用？”人云：“願得敕牒。”仁傑以牒與之。其人持往，至廟，便云有敕。因開牒以入，宣之，神不復動，遂焚毀之。其後仁傑還至汴州，遇見鬼者曰：“侍禦後有一蠻神。云被焚舍，常欲報復。”仁傑問：“事竟如何？”見鬼者（見字者字原缺。據明抄本補。）云：“侍禦方須台輔，還有鬼神二十餘人隨從。彼亦何所能爲？久之，其神還嶺南矣。)<sup>78)</sup>

위의 작품은 史書에 언급된 바 있는 狄仁傑의 淫祠 철폐라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였다. 狄仁傑이 淫祠를 철폐하면서 겪은 수많은 어려움을 端州지방의 蠻神

78) 李昉, 『太平廣記 卷298』, 中華書局, 1961, 2371쪽.

을 예로 표현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淫祠의 철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蠻神의 淫祠를 태우고 난 후의 상황까지도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 狄仁傑을 귀신의 비호를 받는 신비로운 존재로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형상은 이후 청대의 『日下舊聞考』에서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는 白羊 요괴를 참살하고 그 사당을 불태우는 모습으로 표현되며 狄仁傑을 협객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두 번째 「狄仁傑」조에는 狄仁傑이 寧州刺史로 부임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서술하고 있다. 이야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시 寧州刺史의 관사는 전임자사 십 수 명의 목숨을 앗아간 흉가였다. 狄仁傑은 다른 이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관사에 머물게 된 지 며칠째 괴이한 일을 셀 수 없이 겪다가 크게 소리치며 말한다. “나는 刺史이고, 이곳은 나의 관사이다. 너는 그릇되고 나는 바른데, 어찌 이치도 분별치 못하면서 오히려 샷됨으로 바름을 거스르려 하느냐? 네가 만약 신이라면 그대의 현명한 가르침을 들을 것이나, 만약 귀신이라면 어찌 감히 날 침범하려 드는가? 나는 그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 공연히 온갖 변화를 부리는 것이다. 반드시 나를 만나고자 한다면 어찌 예의를 갖추어 나타나지 않는가?” 그러자 의복을 갖춘 귀신이 나와 사실 그는 어느 왕조의 관리로 관사의 계단 서쪽 나무아래 묻혀있는데 나무뿌리로 얽혀있어 고통스러움을 호소하려다 고의가 아니게 전임자사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라 전했다. 다음날 狄仁傑의 귀신의 말에 따라 나무 아래를 파보니 정말로 시신이 나무뿌리와 얽혀있었고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치르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79)

다음으로 「霍有隣」조를 살펴보자. 앞서의 두 이야기가 狄仁傑을 주인공으로 한다면, 「霍有隣」은 狄仁傑의 외조카 霍有隣을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이다. 이 작품에서 狄仁傑은 저승의 한 관청인 御史大夫院의 御史大夫를 맡고 있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唐 顯宗 開元 말년에 霍有隣이라는 이가 汲縣의 縣尉였는데 어떠한 문제로 인

79) 李昉, 『太平廣記 卷329』, 中華書局, 1961, 2614쪽.

해 저승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閻王에 의해 그가 잘못 잡혀온 것이 드러나 결국 다시 인간세계로 돌아가게 된다. 인간세계로 돌아가던 길에 우연히 어떤 관청을 보게 되고 그곳이 霍有隣의 외숙인 狄仁傑이 공무를 보는 관청임을 알게 되어 狄仁傑과 상봉한다. 그곳에서 狄仁傑은 저승의 어사가 되어 인간세계의 관리 임용을 비준하는 등의 일을 하고 있었다. 당시 그는 李適之의 재상 등용에 대한 것을 심사하여 비준하였는데 霍有隣이 인간세상으로 돌아간 후 한 달이 지나자 정말로 이적이 재상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일을 마친 狄仁傑이 霍有隣에게 말하길 “네가 온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몸의 형체가 손상되었으리라.”하며 좌우를 불러 약 두 알을 주어 보냈다. 인간세상으로 돌아 왔을 때 계절이 여름이고, 또한 죽은 지 칠 일이 지나 다시 살아났으므로 심장은 다시 온기를 찾았으나 신체는 이미 많은 곳이 상하였다. 두 손에 쥐고 있던 약을 가루 내어 손상된 부위에 바르자 곧 좋아져 수일 후에 일어날 수 있었다.<sup>80)</sup>

이 이야기에서 狄仁傑은 저승의 어사가 되어 인간계의 관리임용을 비준하는 일을 맡음으로서 인간계와 저승 양 계에 두루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그려진다. 더하여 저승으로 잘못 불려온 조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까지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화본소설 『梁公九諫』에서 묘사하고 있는 狄仁傑의 인물형상을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梁公九諫』은 狄仁傑이 武則天 사후 무씨세력으로의 황위계승을 저지하는 일화를 소재로 하고 있다. 다음은 魯迅의 『中國小說史略』에 인용된 ‘六諫(여섯 번째 간언)’ 부분이다.

則天武后가三更까지 잠을 자다 다시 꿈을 꾸었다. 꿈에 大羅天女를 상대로 바둑을 두는데, 바둑관의 돌들이 금방 잡혀 번번이 천녀에게 지다가 갑자기 놀라 깨어났다. 다음날 조례를 받을 때 여러 대신에게 그 꿈이 어떤가를 물어 보았다. 재상인 狄仁傑이 상주하였다. "신이 그 꿈의 길흉을 따져보건대 나라에 상서롭지 않습니다. 폐하께서 大羅天女를 상대로 바둑을 두는데, 바둑관의 돌들이 금방 잡혀 번번이 天女에게 지신 것은 그 바둑관의 돌이 그 위치를 제

80) 李昉, 『太平廣記 卷381』, 中華書局, 1961, 3032쪽.

대로 잡지 못하였기에 금방 잡혀 그 다스림을 잃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태자인 廬陵王이 貶謫되어 천리나 떨어진 房州에 가 있는데, 이는 바로 바둑판에 돌이 있기는 하나 그 위치를 제대로 잡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며, 급기야 [폐하께서] 그런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신이 원컨대 동궁의 자리에 빨리 廬陵王을 태자로 옹립해야지, 만약 武三思를 옹립한다면 끝내 아니 될 것이옵니다!"

(則天睡至三更，又得一夢。夢與大羅天女對手着棋，局中有子，旋被打將，頻輸天女，忽然驚覺。來日受朝，問諸大臣：“其夢如何？”狄相奏曰：“臣圓此夢，於國不祥。陛下夢與大羅天女對手着棋，局中有子，旋被打將，頻輸天女，蓋謂局中有子，不得其位，旋被打將，失其所主。今太子廬陵王貶房州千里，是謂局中有子，不得其位，遂感此夢。臣願東宮之位，速立廬陵王爲儲君；若立武三思，終當不得。”) 81)

이러한 아홉 차례의 계속되는 간언에 武則天은 결국 마음을 돌리고 武三思에게 황위를 넘기려는 계획을 철회하고 귀양 보냈던 廬陵王을 복위시킨다. 『梁公九諫』에는 주로 인물간의 대화를 통해 이야기를 전개하고, 또한 상대의 심리를 이용해 讖言이나 解夢 등의 수법으로 간언을 이어간다. 여기서의 등장인물은 武則天, 狄仁傑, 張易之로 각각의 대화에서 인물형상의 대비가 명확하다. 武則天은 주로 狄仁傑을 달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는 등의 태도를 취한다. 張易之는 ‘五諫’과 ‘七諫’에 등장하는데 ‘五諫’에서 武則天의 꿈을 두고 狄仁傑과 다른 해석을 내놓고, ‘七諫’에서 狄仁傑에게 재물을 하사하여 武三思를 책봉하는데 문제없게 해야 한다고 간언하였다고 서술한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狄仁傑은 武則天의 달래기와 위협을 모두 물리치고 끝까지 廬陵王의 복위를 위해 간언을 계속한다. ‘三諫’의 참언에 대한 해석과 ‘五諫’, ‘六諫’, ‘七諫’에 공통적으로 쓰인 解夢은 『梁公九諫』이 운용하는 서사적 장치라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狄仁傑의 반짝이는 재치와 함께 온갖 회유와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강직한 태도를 형상화하였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매번 끝나는 부분에서 사용한 “東宮의 자리는 廬陵王이 아니면 안 됩니다. 武三思를 세우시는 것은 결코 안 될 것입니다.(東宮之位，非廬陵王不

81) 魯迅, 『中國小說史』, 조관희 譯, 소명출판, 2004, 274-275쪽.

可，立武三思，終當不得。)”라는 일종의 형식적인 結語는 전체적으로 인물형상의 생동감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 2) 명청 시기

명청 시기에 이르러 백화소설은 크게 발전하여 가히 '소설의 시대'라고 불릴 만큼 많은 작품이 창작되었는데, 전대와 비교하였을 때 인물형상의 묘사나 서사구조의 짜임새 등이 더욱 성숙되었다. 그에 따라 狄仁傑과 관련된 백화소설작품도 다수 창작되어 狄仁傑 인물형상의 변화, 발전에 기여한다. 물론 狄仁傑을 주요인물로 다룬 문인필기소설류도 창작되었는데, 예를 들면 馮夢龍의 『情史』에 수록된 「集翠裘」나 『智囊全傳』에 수록된 4종의 이야기, 何良俊의 『何氏語林』에 수록된 3종의 이야기 등이다. 이러한 문인필기소설류의 작품들은 당대의 필기소설류에 등장하는 狄仁傑의 형상이나 성격들을 답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sup>82)</sup> 따라서 여기서는 명청 시기 백화소설을 위주로 서술하고자 한다.

우선 역사연의소설에는 狄仁傑 인물형상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狄仁傑이 언급되어있는 역사연의류의 소설작품으로는 羅貫中의 『隋唐志傳通俗演義』, 褚人穫의 『隋唐演義』, 如蓮居士의 『薛剛反唐』, 無名氏의 『征西說唐三傳』이 있다. 『三國志演義』로 유명한 羅貫中의 『隋唐志傳通俗演義』는 당대의 역사를 다루는 연의소설로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의 작품이다. 이 작품과 褚人穫의 『隋唐演義』는 모두 狄仁傑의 주요 事跡을 토대로 두려움 없이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누대에 걸쳐 황제의 신임을 받는 신하로서의 형상으로 부각시킨다. 이 두 작품은 전대의 작품들에 비해 인물형상을 풍부하게 묘사하고, 통속적인 생동감이 느껴지는 언어를 사용하는 등의 발전양상을 보이기는 하나 여전히 역사적 사실에 치중되어 인물형상의 유의미한 발전에는 미치지 못한다.

반면 如蓮居士의 『薛剛反唐』은 唐代의 대장군 薛仁貴의 손자인 薛剛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이다. 허구의 인물인 薛剛은 武則天에 반기를 들고 狄仁傑의 도움을 받아 廬陵王을 보좌하며 제위에 오르게 한다. 이야기의 내용은 허구에서 비롯된 것이 많으나 그 창작 동기는 武則天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룬다. 작가는 武則天

82) 汪達文, 「古代小說中的狄仁傑形象流變研究」, 北京外國語大學 석사논문, 2015, 12쪽.

을 잔악무도하고 음탕한昏君으로 그리고 있으며, 狄仁傑을 그 대척점에 두어 송양의 대상으로 형상화하였다. 狄仁傑을 신격화하기 위해 작가는 여러 장치를 마련하였는데 예를 들어 1회에서 狄仁傑이 과거를 치르러 가는 도중 목은 객점의 여주인의 유혹에 홀리지 않고 오히려 여주인을 교화하는 장면이나 31회에서 설장일행을 구하기 위해 空城計를 펼치는 기지를 보이는 장면은 물론이거니와 2회에는 아예 과거에 장원하는 것이 그의 숙명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당시 司天監인 李淳風은 당태종을 비밀리에 알현하여 무씨 성을 가진 이가 장차 나라를 어지럽히고 帝位를 차지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했다. 이는 당시 태종의 총애를 받던 武媚娘을 축출하라는 간언이었으나 태종은 듣지 않고 오히려 말을 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경이 미래의 天意를 알 수 있다하니, 이번 과거의 장원이 누구인지도 알 수 있겠구려,” 李淳風은 하루가 지나고 대전 앞에서 부복하여 말했다. “폐하께서 궁중에서 무씨와 淫樂을 행하시니 상제께서 크게 노하시어, 반드시 그녀를 죽여야만 하늘의 뜻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번 과거의 장원을 물으셔서 신이 하늘의 방안에서 이름을 보았사운데 바로 ‘불과 개, 두 사람의 호걸(火犬二人之傑)’이옵니다.”<sup>83)</sup> 여기서 ‘불과 개, 두 사람의 호걸’은 破字로 狄仁傑을 뜻함이었다. 그리고 李淳風은 狄仁傑이 과거시험 때 지은 시를 미리 적어두어 과거시험이 끝나고 확인하게 하였다. 그런데 정말로 狄仁傑이 과거에서 장원을 차지하고 과거시험 때 지은 시가 李淳風이 미리 적어둔 시와 한 글자도 다르지 않았다.

역사연의소설에서 狄仁傑의 인물형상은 대체로 사서의 기록에 치중하여 그려진다. 초반에는 나라에 충성하고 자신의 직책을 열심히 수행하는 관리로서 묘사되었다고 한다면 후반으로 갈수록 ‘反周歸唐(武周에 반대하고 당 왕조로 돌아감)’의 기치를 내건 당 왕조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는 인물로 표현된다. 이러한 인물형상은 『梁公九諫』의 인물형상을 이어받아 좀 더 풍부하게 발전시킨 것이라 여겨진다.

그렇다면 염정소설은 狄仁傑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명대 중엽을 지나면서

83) 如蓮居士, 『薛剛反唐』, 三秦出版社, 2003, 7쪽.

번영하기 시작한 염정소설 중 狄仁傑과 관련된 작품으로 嘉禾餐花主人의 『濃情快史』와 不奇生의 『武則天外史』, 無名氏의 『唐宮春武則天』 등이 있다. 우선 『濃情快史』를 살펴보자. 『濃情快史』는 향시 금서목록에 빠지지 않고 들었던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狄仁傑의 인물형상은 전통적인 ‘反周歸唐’에 기초하고 있지만 처음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하는 관관으로서의 형상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첫 번째 사건은 사람을 죽이고 몇 년 동안 멀리 달아난 강도에 대한 사건이다. 일반적인 공안사건인데 여기서의 狄仁傑은 公堂에서 진행된 문답으로 사건의 전말을 파악한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건의 범인은 법망을 빠져나가고 狄仁傑에게는 무력감을 선사한다. 그러나 두 번째 안건에서 조정의 대신인 張昌宗과 武三思 등과 이치를 두고 다투어 결국 죄 없는 억울한 백성의 죄를 벗겨준다. 『濃情快史』의 관관 형상은 이후의 본격적인 공안소설에 비하면 모호한 면이 많지만 역사사실에 치중된 인물형상을 벗어나 새롭게 관관형상을 만들어내어 狄仁傑의 인물형상을 다각화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다음으로는 『武則天外史』이다. 『武則天外史』는 『濃情快史』와는 달리 새로운 유형의 인물형상이 등장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직간하는 전형적인 충신의 형상에서 벗어나 권모술수를 잘 부리는 노련한 정치가로서의 형상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이 독특하다. 『梁公九諫』에서처럼 武則天으로 하여금 조카에게 황위를 물려줄 계획을 철회하게 만듦과 동시에 당시에 武則天의 총애를 받던 薛懷義를 모략으로 제거하고, 張昌宗을 위협하고 구슬려서 廬陵王의 복위를 돕게 한다.

염정소설에서 狄仁傑의 형상은 역사전기소설에서 그리고 있는 狄仁傑의 형상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위해 술수를 부릴 수 있는 정치가이자 약자를 보호하며 공정하게 사건을 판결하는 관관으로서의 형상까지 보다 다양한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다. 어째서 염정소설은 狄仁傑의 형상을 부각시키려 노력하였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인물형상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우선 狄仁傑 관련 염정소설에서 주인공은 단연 武則天이다. 작자는 武則天을 음탕하고 사악하며 어리석게 표현한다. 반면 조연으로서의 狄仁傑은 武則天과 상대되는 인물로 묘사한다. 그러면서 狄仁傑에게 음탕함을 혐오하는 군자, 당 왕조에 충성을 다하는 충신, 그러면서도 능력이 뛰어나 대척점에 있는 武則天의 신임



을 받는 能臣으로서의 형상을 씌운다. 이를 통해 작가는 비판하려는 대상인 武則天을 역으로 부각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狄仁傑 인물형상은 자연스럽게 완벽한 형상에 가까워졌다.

마지막으로 공안소설에서 狄仁傑 형상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본 논문에서 다룬 『狄公案』 이전의 狄仁傑 관련 공안소설은 『綠牧丹』이 유일하다. 앞서 언급하였듯 『濃情快史』에서 단편적으로나마 狄仁傑 형상이 등장하지만 본격적으로 狄仁傑의 판결능력을 보여주는 소설은 『綠牧丹』이 처음이다. 『綠牧丹』은 이전의 狄仁傑 관련 작품들에서 보이는 모든 인물형상을 모아놓은 것처럼 다양한 인물형상을 그려낸다. 물론 이 작품 안에서 狄仁傑의 위치는 조연에 불과하다. 협객인 駱宏勳, 산동의 유명한 도둑인 花振芳, 그리고 해적인 包自安까지 여러 협객들이 주연이지만 사실상 이들을 부러 사건을 조사하게 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은 狄仁傑이므로 狄仁傑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겠다.

『綠牧丹』에서 狄仁傑은 당 왕조에 충성하고, 인재를 아끼며 공평무사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綠牧丹』은 『濃情快史』와는 달리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서 관아에서 일문일답하는 형식으로 조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수하를 파견하여 적극적으로 사건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한다. 또한 후반부에 이르면 狄仁傑이 당 왕조를 복원하기 위해 대군을 지휘하여 반대파를 패퇴시키고 廬陵王과 함께 도성으로 돌아온다. 일 잘하는 관리나 狄仁傑의 형상에다 군략가로서의 모습도 함께 묘사한 것이다. 이러한 여러 인물형상은 이후 『狄公案』에도 반영되어 작품 속 狄仁傑을 좀 더 풍부하고 생동감 있게 묘사하게 하였다.

### 3. 소결

이상으로 역사인물 狄仁傑이 문학인물로 형상화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실제 역사인물의 문학적 형상화는 매우 지난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인물형상을 소조해내는 과정에서 작가들은 모두 그 인물의 긍정적 이미지에 대해서는 과장하여 부각시켰으나 부정적 이미지는 제거해나가며 보다 완벽한 인물로 표현해나갔다.

狄仁傑의 형상 또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문학적으로 형상화되었다. 史書에 기록된 역사인물 狄仁傑은 간관이자 노련한 정치가로 묘사되고 있다. 간관으로서의 그의 강직한 성품은 그의 형상을 청관이자 명판관으로서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었다.

문언필기소설은 이러한 狄仁傑의 사적을 바탕으로 소설 속 인물로의 변화에 첫 단추를 끼웠다. 당대의 문인들이 지은 문언필기소설에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과장을 가한 부분과 상상력을 동원한 허구적인 부분이 한데 섞여있다. 심지어는 지괴소설의 제재를 빌어 狄仁傑을 인간을 초월한 무소불위의 형상으로까지 묘사하였다.

송대 화본인 『梁公九諫』은 狄仁傑을 ‘反周爲唐’이라는 기치를 내건 최전선의 투사로 표현해내었다. 이는 명·청대 소설로 이어져 狄仁傑의 충신 형상을 고착화시켰다.

명청시기에 이르러서는 그동안 만들어진 충신형상을 더욱 선명하게 그려내었다. 한편으로는 명판관으로서의 狄仁傑의 모습을 처음으로 묘사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濃情快史』에서 초보적인 형상화가 이루어졌고, 『綠牧丹』에서 판관으로서의 형상을 완성했다. 이렇게 완성된 판관형상은 『狄公案』으로 이어져 『狄公案』에서의 狄仁傑 형상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문학작품 속 狄仁傑은 전형적인 청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학에서의 청관은 대중에게 추앙의 대상이 된다. 그들은 청관을 그들의 대변자로 내세워 당시의 부패와 전횡이 난무하던 혼란한 사회에서 자신들의 이상과 염원을 투영하는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문학작품에서 狄仁傑은 초월적 능력을 부리는 무소불위의 인물로 그려지기도 한다. 이는 현실에서의 능력으로는 당시의 사회현실을 변화시킬 수 없기에 청관에게 초월적 능력을 부여하여 암울한 현실을 타파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다.

## IV. 『狄公案』의 인물형상

인물(Character)이란 용어는 본시 영어에서 인물과 성격의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되었는데, 문학 작품 속에서 말하는 인물은 행동의 주체자로, 그 인물의 개성과 관계되는 그의 관심, 욕망, 정서, 도덕률 등을 포괄한 총화로서의 뜻으로 쓰인다.<sup>84)</sup> 인물은 작품의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품 안의 모든 사건은 인물에 의해 표현되어진다. 이 말은 곧 인물형상은 작품 안에서 그 등장인물의 행동으로 야기된 사건을 통해서 분석하여야 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장은 『狄公案』의 등장인물을 주인공인 狄仁傑과 부차적인 인물군상으로 나누고, 이들이 작품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狄仁傑의 인물형상

공안소설에서 인물이라 함은 대개 판관과 그를 돕는 조력자, 피해자, 가해자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많은 공안소설들이 사건 발생을 위주로 서술하고 있지만 독자들의 머릿속에는 판관의 형상만 남게 된다. 이것은 판관이란 인물의 창조가 성공했다는 의미가 아닌 공안소설에 등장한 판관이 발생한 사건을 해결하는데 있어 절대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sup>85)</sup> 하지만 애초부터 공안소설에서 판관의 형상이 주목받은 것은 아니었다. 송대의 話本이나 명대 短篇公案專集에서 판관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저 사건을 판결하여 종결하거나 사건 해결과정에서 수사지휘를 하는 등의 서사를 진행하는 하나의 요소로 이용될 뿐이었다. 이후 명말의 의화본 공안소설이나 청대의 협의공안소설에 이르면서 판관의 역할이 강조되고 본격적으로 다양한 인물형상으로 표현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공안소설에서 판관의 중요성을 王德威는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84) 이규정, 『현대소설의 이론과 기법』, 박이정, 1998, 19쪽.

85) 吳曉麗, 「명대 공안소설의 서사전략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17, 151쪽.

전통적인 공안 소설에서 청명하고 현명한 관리는 왕왕 전체 줄거리 발전의 관건이 된다. 아무리 기괴한 사건이라도 淸官은 언제나, 또한 반드시 잘못을 바로잡고 억울한 사정을 깨끗이 해결해낸다. 淸官의 판결을 바탕으로 이야기 속의 윤리적 도덕양식을 재건하고, 그것이 대표하는 정치적 안정성도 재조명되었다. 서구 문학의 어휘로 설명하자면, 淸官의 행실은 모두 이치에 맞지 않아도 되지만, 그 최종적인 행동은 반드시 "기계 장치의 신(Deus Ex Machina)"의 기능을 갖추어, 잃어버린 도덕적 정치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다.<sup>86)</sup>

관관은 淸官이라는 상위요소에 포함된 하위개념으로 앞서 언급한 바 있는 劉亦發의 글에도 서술하였듯 관관으로서의 ‘엄격한 법집행’은 淸官의 역할 가운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나 공안소설이라는 특수한 장르에서 관관은 필수불가결한 존재로 관관이 없는 공안소설은 공안소설이라 부를 수 없는 것이다. 秦川은 공안소설에 묘사되는 淸官으로서의 관관형상에 대해 작은 조짐을 보고도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고, 예리하게 세세한 것도 놓치지 않으며, 백성을 자식처럼 아끼고, 청렴하면서도 정직한 인덕을 가지고 간악하고 포악한 무리를 제거하는 등 고대의 이상적인 관리의 풍모로 백성들의 숭배대상이 되었다<sup>87)</sup>고 하였다.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 역사인물인 狄仁傑이 문학으로 형상화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狄仁傑의 인물형상은 매우 다양하다. 『狄公案』에서도 狄仁傑은 누대에 걸쳐 형성된 다양한 인물형상으로 작품 곳곳에 묘사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물형상은 모두 그가 관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보이는 여러 가지 모습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묶어 관관 형상이라 칭하여야 할 것이다.

## 1) 관관 형상

86) 王德威, 『想象中國的方法-歷史·小說·敘事』, 新華書店, 1998, 66쪽. “在傳統公案小說裏, 一位清明睿智的官吏往往是整個情節發展的關鍵所在。不論案情有多麼奇詭錯綜, 一位淸官總能(也應該)加以平反以昭雪冤情。藉着淸官的斷案, 故事中的倫理道德模式得以再建, 而其所代表的政治安定力量也重獲肯定。以西方文學詞彙來解釋, 淸官的行止或毋需盡合情理, 但其最終的作為卻必具有“機器神”的功能, 俾可力挽狂瀾, 使道德政治秩序失而復得。”

87) 秦川, 「明清小說的倫理觀與和諧文化」, 『明清小說研究』, 2012年 3期, 46쪽.

『狄公案』속에서 狄仁傑은 예리한 통찰력으로 사건을 파악하는 능력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사건인 六里墩 사건에는 고변자인 孔萬德에게 살해 혐의를 씌우고 혐의를 벗겨주는 대가를 요구한 胡德의 행위를 파악하고 그의 죄를 묻는 장면이 등장한다.

적공이 그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고함을 치며 말하기를 “네 이놈! 본관이 누가 흉수인지 묻지 않았는데도 너는 공무를 보는 사람으로서 어찌 법을 알면서도 법을 어겼느냐? 시신을 옮긴 것이 어떠한 죄에 해당하는지 아느냐? 孔萬德이 사람을 해할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 그가 시체를 마을입구에 버렸다면 너는 마땅히 먼저 縣에 알려 그 연유를 설명하고 본관이 검시한 후에 封印의 표시를 보이는 것인데 너는 어찌하여 왕법을 경시하여 감히 두 사람의 시신을 이곳으로 옮겼단 말이냐! 이는 일부러 꾸민 것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이 아니면 그(孔萬德)와 공모하여 그들을 해하고서는 장물을 나눔에 불평하여 먼저 자수한 것이로다. 본관은 먼저 너에게 엄히 책임을 묻고 이후에 다시 엄혹한 형벌로 고문하리라.” 라고 하였다. 아전에게 명하여 刑杖 200대를 때리게 하니 바로 고함소리가 하늘에 닿고 피부가 찢기고 살이 터졌다. 마을에 있던 모든 백성들은 孔萬德이 억울하게도 胡德에게 무고를 당한 것임을 알게 되었으나 인명사건이라 하는 수 없이 감히 험담하지 못했다. 이때에 적공의 이러한 판결을 보고 衆人들은 마음속 깊이 흠모하며 말했다. “과연 명불허전이구나. 정말로 뛰어나신 清官이다!”

(狄公不等他說完，當時喝道：“汝這狗頭，本縣且不問誰是凶手，你既是在公人役，豈能知法犯法，可知道移屍該當何罪？無論孔萬德是有意害人，既經他將屍骸拋棄在鎮口，汝當先行報縣，說明原故，等本縣相驗之後，方能請示標封。汝爲何藐視王法，敢將這兩口屍骸移置此處！這有心索詐，已可概見；不然即與他通同謀害，因分贓不平，先行出首。本縣先將汝重責一頓，再則嚴刑拷問。”着令差役，重打了二百刑杖。登時喊叫連天，皮開肉綻。所有那鎮上的百姓，明知孔萬德是個冤枉，被胡德誣害，無奈是人命案件，不敢摻入裏面，此時見狄公如此辦法，眾人已是欽服，說道：“果然名不虛傳，好一個精明的清官！”)<sup>88)</sup>

狄仁傑은 胡德의 간계를 이미 파악하고서 胡德이 시신을 사건현장에 보존해야 한다는 법을 어긴 것을 핑계로 그를 징치하고, 또한 고변자인 孔萬德이 무고하다는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공표한다. 胡德의 이러한 범죄는 사실상 일반 민중들의 ‘懼訟’ 심리를 이용한 것이라 보아야 한다.<sup>89)</sup> 소송은 관청에서 관관에 의해 심리되므로 법정에 나가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렵기도 하고, 귀찮기도 한 마음에 웬만한 일은 소송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는 심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懼訟’ 심리인 것이다. 孔萬德은 오랫동안 객점을 열고 장사를 하던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평판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노린 胡德은 孔萬德이 관아에 신고하지 않고 본인이 요구하는 재물을 주어 이를 무마시킬 것이라 여기고 이러한 일을 벌인 것이다. 이는 孔萬德으로 대변되는 당시 민중의 법률의식을 꼬집고, 반면에 狄仁傑의 뛰어난 통찰력을 찬양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세 번째 사건인 華國祥 며느리 급사사건에서 고발인인 華國祥은 범인으로 의심되는 胡作賓을 고문해서라도 그 죄상을 밝혀달라고 청원한다. 하지만 狄仁傑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일은 애들 장난에 비할게 아닌 인명이 걸린 중대한 사건이니, 어찌 자신의 편견에 근거하여 깊이 믿어 의심치 않으시오? 胡作賓은 평소에도 와서 놀았고, 요 며칠 동안은 伴姑가 곁에 있었는데 그가 어찌 손을 쓸 수 있었겠소? 이 사건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니 伴姑를 넘겨주시어 본관이 그녀에게 물을 수 있도록 해주시오.

(此事非比兒戲，人命重案，豈可據一己偏見，深信不疑。即今胡作賓素來嬉戲，這兩日有伴姑在旁，他亦豈能下手。這事另有別故，且請將伴姑交出，讓本縣問她一問。)90)

88) 『狄公案』 2회.

89) 邢意和, 『狄公案』中國家法律思想與民間法律思想的矛盾, 瀋陽農業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5年 1期, 63쪽.

90) 『狄公案』 20회.

狄仁傑이 한사코 胡作賓에 대한 고문을 거절하자 華國祥은 그가 胡作賓을 비호한다고 여길 정도였다. 하지만 그는 사건의 정황상 胡作賓에게 혐의를 두기에는 모호한 면이 많음을 인지하고 다른 조사부터 진행하기 시작한다. 이는 엄격한 법집행과 더불어 합리적인 태도로 불필요한 형벌의 사용을 자제하고 조사과정 중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관관으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관관은 주어진 증거를 토대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사건해결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작업은 관관의 몫이 아닌 경우가 많다. 초기 공안작품의 경우 사건의 조사라는 과정이 모두 법정에서 관관의 물음에 증인이나 범인이 대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저 대화에 의한 증거의 수집 일 뿐 사건현장을 돌아본다든지 주변을 탐문조사 한다든지 하는 법정 밖에서 이루어지는 증거수집의 경우 모두 관관에 소속된 수하들이 전담하는 구조이다. 하지만 『狄公案』의 狄仁傑은 실제로 법정을 떠나 직접 사건현장에 현장검증을 하러가거나 變服하여 주변인들을 탐문하는 모습을 보인다. 다음은 첫 번째 사건을 조사하려 변복하고 나서는 장면이다.

다음날 아침에 微行儀服으로 갈아입고 약을 파는 의원인 척 많은 약초를 가지고 관아를 나섰다. 먼저 南鄉官路 일대의 큰 마을의 저자로 가서 만나질을 걸었으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큰 가게를 찾아 약초들을 내려놓고 누가 오는지 봐야겠군.” 생각해보니 앞으로 集鎮이 있는데, 비록 도시의 활기참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역시나 관도이므로 객상들이나 관리들이 이곳에 모일 것 같았다. 동북쪽 모퉁이에 문이 하나 있는데 위에 “皇華鎮”이란 세 글자가 쓰여 있었다. 문으로 들어가니 문을 마주하고 크고 높은 담이 있고 그 가운데 문루 하나가 있는데, 문 앞에는 네모난 패가 하나 세워져 있었고, 위에 ‘代當’이란 두 글자가 쓰여 있었다. 적공이 말했다. “전당 포였군. 보아하니 이곳은 널찍하니 약봉지들을 열어놓으면 누군가 치료 받으러 오겠어.” 생각을 마치고 높은 담 아래 서서 약초를 꺼내놓고는 먼저 그 천을 바닥에 깔고 모든 약들을 위에 늘어놓고, 몸을 세워 소리 높여 말했다. “이리저리 왔다갔다 쉬고 또 쉬니, 오직 즐거움만 알뿐 근심은 모르네. 세간

에는 신선술이 부족하니 질병이 오면 자유롭지 못하네. 저는 성이 仁이고, 이름은 下傑로 山西 太原 사람입니다. 어려서 기이한 서적들을 많이 접하여 의학에 정통하지요. 비록 화타의 환생은 아닙니다만 편작의 유품은 가지고 있지요. 남녀의 方脈, 내외의 각 과, 그리고 난치병을 막론하고 제 앞에서 한번 보기만 하면 병을 진단하고 증상에 맞게 약을 드립니다. 병이 경미한 사람은 당장에 효과를 보고 중한 사람도 사흘이면 병이 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뵙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세상을 구하고 이름을 떨치고자 하니 병환이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가르침을 주십시오.”

(次日一早, 換了微行衣服, 裝成賣藥醫生, 帶了許多藥草, 出了衙署。先到那南鄉官路一帶大鎮市上, 走了半日, 全無一人理問。心下想道: “我且找一個寬闊的店舖, 下這藥草, 看是有人來否。”想着, 前面到了個集鎮, 雖不比城市間熱鬧, 卻也是官塘大路, 客商仕宦, 湊集其間。見東北角有個牌坊, 上寫着“皇華鎮”三字。走進牌坊, 對門一個大的高牆, 中間現出一座門樓, 門前樹着一塊方牌, 上寫着“代當”兩字。狄公道: “原來是個典當, 我看此地倒甚寬闊, 且將藥包打開, 看有人來醫治。”想罷依着高牆站下, 將藥草取出, 先把那塊布包銷在地下, 然後將所有的藥, 鋪列上面, 站定身軀, 高聲唱道: “南來北往體更休, 只知歡喜不知愁。世間缺少神仙術, 疾病來時不自由。在下姓仁名下傑, 山西太原人氏, 自幼博採奇書, 精求醫理。雖非華陀轉世, 也有扁鵲遺風。無論男女方脈, 內外各科, 以及疑難雜症, 只要在下面前, 就可一望而知, 對症發藥。輕者當面見效, 重者三日病除。今團訪友到此, 救世揚名, 哪位有病症的, 前來請教。”)<sup>91)</sup>

능청스럽게 거리 한쪽에 자리 잡고 의원행세를 하며 여러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 사건에 대한 단서를 얻으려 하는 장면이다. 하지만 그는 뜻밖에도 그곳에서 두 번째 사건의 피해자 가족을 우연히 만나게 되고 결국 첫 번째 사건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두 번째 사건을 조사하게 된다. 이렇게 한 사건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또 다른 사건이 이어지는 방식을 연쇄형 구조라 칭하는데 이에 관해서는 이후에 서사구조를 설명할 때 자세히 서술하도록 하겠다.

91) 『狄公案』 3회.



## 2) 간관 형상

『狄公案』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1회부터 30회까지의 전반부는 昌平縣丞으로서 세 가지 형사사건을 다룬다. 하지만 30회부터 64회까지의 후반부는 狄仁傑이 승진하여 조정에 나아가 무씨 일족과 그들을 따르는 세력들을 공격하고 그들의 패악을 정치하는 것에 치중되어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판관으로서의 형상은 조금 약화되지만, 그 대신 조정에서 武則天에게 상주하여 무씨 세력을 곤란하게 만드는 간관으로서의 형상으로 묘사되고 있다.

간관이란 군주의 과실에 대해 직언으로 권고하고 고치도록 하는 관리이다. 당시 武則天은 武三思와 武承嗣와 같은 무씨 일족들이 한결같이 무씨 성을 가진 이에게 황위를 물려줄 것을 청하자 마음이 살짝 기운 상태였다. 또한 張昌宗, 張易之, 薛懷義와 같은 남총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그들의 권세를 빌어 조정과 민간에 해를 끼치는 자들을 방관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조정의 대신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하여 당시 山東巡撫였던 閻立本은 그의 인물됨과 강직함을 보고 조정에 추천하게 된다. 원래 昌平縣丞에서 汴州判佐로 승진될 예정이었으나 閻立本의 추천으로 특별히 河南巡撫로 임명되고 同平章事로 승진된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조정으로 들어가게 된 狄仁傑은 가는 도중에 清河縣에서 張昌宗의 가노출신인 현령 周卜成과 장씨 가문 하녀의 아들인 曾有才가 백성들에게 횡포를 부린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이 사실을 武則天에게 알리고 싶었으나 武則天을 만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장애물인 黃門官 朱利人을 넘어서야 했다. 황문관은 황제의 근거리에서 황제를 보좌하는 자리인데 武三思가 처남인 朱利人을 그 자리에 앉힐 것을 누차 청하니 武則天이 이를 윤허한 것이다. 하지만 朱利人은 이 자리를 이용하여 武則天을 알현하러 오는 이들에게 일정정도의 뇌물을 받았다. 이 사실을 안 狄仁傑은 같은 조정대신인 元行沖과 함께 모의하여 이들의 죄를 낱낱이 武則天에게 고변했다.

武則天은 狄仁傑이 알현하러 오자 그가 무릎을 꿇고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재상의 풍모라 여기고 그에게 어찌하여 京師에 도착했으면서도 黃門官에 이름을 올리고 가지 않아 알현하지 않았는가 물었다. 그러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적공이 즉시 아뢰었다. “신은 재주가 우매하고, 지식도 없는데 성은으로 발탁되어 그 직분에 합당하지 않을까 깊이 두려워하며, 성상께서 후대해주시니 힘을 다하여 보답할 뿐입니다. 신이 지난달에昌平을 떠나京師로 오면서 농작물의 수확을 보니 가히 풍작을 예상할 수 있었습시다만 오직 탐관오리들이 너무 많아 백성들이 편안히 생활할 수 없을까 진심으로 염려스럽습니다.”

(狄公當即奏道：“臣愚昧這才，毫無知識，蒙恩拔擢，深懼不稱其職，只以聖眷優隆，惟有竭力報效。臣於前月由昌平赴京，沿途年歲，可卜豐收，惟貪官污吏太多，百性自不聊生，誠爲可慮。”)<sup>92)</sup>

武則天은 狄仁傑의 이 말을 듣고 급히 狄仁傑이 말한 그 탐관오리가 누구인지 물었다. 그러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 武則天에게 상주하였다.

“현재 河南府의 清河縣令 周卜成은 뇌물을 받아먹고 법을 어겼으며 백성들을 학대하고 평소에 악덕 토호들과 결탁하여 백성들을 마구 짓밟았습니다. 경내에 부호인 曾有才라는 자는 백성들의 전답을 강점하고, 민가의 여인들을 간음하는 등 여러 악행이 길거리에 널리 퍼졌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관청에 고소하였으나 반대로 백성들의 잘못이라 하였다 합니다. 그 연유를 살펴보니 이 두 사람은 모두 張昌宗의 家奴였습니다. 張昌宗은 황상의 총신으로 법을 안중에도 두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탐관오리들이 법을 잘 집행하지 않으면 날이 갈수록 백성들의 피해가 끝이 없고 반드시 큰 사변이 일 것이오니 이는 外官의 악습입니다.

京官들의 폐단은 신이 막 京師로 들어와 아직 다 알지는 못하옵니다. 하지만 黃門官 朱利人으로 말하자면, 신은 황명을 받든 중신이자 지방에 파견된 巡撫로 상경하여 폐하를 알현하려면 응당 먼저 그곳에서 이름을 올려야 합니다. 黃門官 朱利人은 제가 巡撫로 승진한 것이 武三思에게 뇌물을 주어 청탁하여 된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는 바로 武三思의 처남으로 스스로를 皇親이라 칭하며 신에게 은 천 냥을 보내야 폐하를 뵈 수 있게 해주겠다고 강요하였습니다.

92) 『狄公案』 33회.

그러나 신은 현령에서 천거 받아 승진하였고, 평소 청렴결백하여 응당 받아야 할 봉록을 제외하고는 저에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데 어떻게 뇌물을 그에게 주겠습니까? 그러자 그가 진입을 막고 黃門으로 거짓 성지를 내려 신의 입조를 허락지 않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만약 폐하의 은덕으로 조서를 전하여 알현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일 년 후에도 聖上을 다시 뵙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인들은 관직을 맡아 나랏일을 함에 모두 武三思와 張昌宗 등의 힘을 등에 업고 있는데, 만일 이들을 배척하고 축출하여 京師 바깥으로 보내지 않으면 공권력은 정돈되지 않을 것이고 백성들의 피해도 날로 심해져 천하의 대국이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신은 나라의 큰 은혜를 입었으므로 죽을 각오로 상주하오니 폐하께서 시행해주시기를 간곡히 청하옵니다.”

(“現有河南府清河縣周卜成，便貪贓枉法，害虐民生，平日專同惡棍土豪魚肉百姓，境內有富戶曾有才，霸佔民田，奸佔民女，諸般惡跡，道路宣傳。百姓控告衙門，反說小民的不是。推原其故，皆這兩個人是張昌宗的家奴，張昌宗是皇上的寵臣，以故目無法紀。若此貪官污吏，如不盡法懲治，則日甚一日，百姓受害無窮，必至激成大變，此乃外官的惡習。

京官的竇弊，臣入京都未能盡悉。但是黃門官朱利人而言，臣是奉命的重臣，簡放的巡撫，進京陛見，理合先赴該處掛號。黃門官朱利人，謂臣升任巡撫，是因請託武三思賄賂而來。他乃武三思的妻舅，自稱是皇親國戚，勒令臣下送他一千兩例規，方肯帶領引見。臣乃由縣令薦升，平日清正廉明，除應得的俸祿，餘皆一塵不染，哪裏有這贓銀送他？誰知他阻撓入觀，令黃門假傳聖旨，不準微臣入朝。設非陛下厚恩，傳詔宣見，恐再遲一年，也難得再見聖上。這班小人，居官當國，皆是全仗武三思、張昌宗等人之力，若不將等此人罷斥，驅逐出京，恐官力不能整飭，百姓受害日深，天下大局，不堪設想！臣受國厚恩，故冒死演奏，伏乞我主施行。”)<sup>93)</sup>

이 말을 들은 武則天은 朱利人에게는 두 계급 강등과 黃門官의 일에서 제외시키고, 周卜成은 면직시켰으며, 曾有才는 狄仁傑이 부임하여 죄를 다스리게 하였

93) 『狄公案』 33회.

다. 하지만 정작 그들에게 자신의 권세를 나눠준 武三思와 張昌宗에 대해서는 나라에 공이 많으므로 치죄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武則天의 그들에 대한 신뢰와 총애가 굳건한 듯하자 狄仁傑은 순순히 물러나 다음을 기약하였다. 이 이후에도 계속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狄仁傑은 武則天에게 바로 상주하였고 武則天은 그의 계속되는 상소에 “경이 입조한 이래로 매일같이 상주하고 있는데 오늘은 무슨 일인가? 또 대신을 탄핵하는 것은 아니겠지?”<sup>94)</sup>하며 기꺼워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한편, 네 번째 사건인 淫僧 懷義의 민부검탈사건에서 狄仁傑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薛懷義의 죄상을 밝혀냈고, 납치되었던 이씨를 찾아내었으나 그녀는 스스로 기둥에 머리를 부딪쳐 자결하고 만다. 이렇게 사건이 종결되고 狄仁傑은 薛懷義의 처리를 위해 武則天을 알현하여 보고했다. 하지만 갑자기 武三思가 상주하여 이 일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며 두 사람의 언쟁이 시작된다.

武三思도 出班하여 아뢰었다. “어제 신이 狄仁傑의 관아에서 이 일에 다른 연유가 있을 것 같았으나 狄仁傑이 마음먹고 홀로 행동했고, 그가 폐하의 뜻을 받드는 대신이므로 감히 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懷義를 원수로 여겨 해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狄仁傑은 이 말을 듣고 재빨리 말했다. “우선이 두 사람이 그가 죽인 것이 아니라 하셨는데 사람의 머리가 어찌하여 토굴 속에 있습니까? 白馬寺는 청정한 곳인데 무슨 까닭으로 이런 토굴 암실을 만들었을까요? 분명히 평소에도 온갖 못된 짓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王毓書의 며느리로 말하자면 이 일은 무대인께서도 직접 목도하셨습니다. 민가의 부녀자를 강제로 꺾박하면 무슨 죄에 해당합니까? 하물며 이 부인은 정절을 다하고 죽었으니 이것만 해도 그를 참수해야 하거늘 어찌 그가 공술한 바도 분명히 알지 못하면서 그를 용서하라 하십니까? 국가의 존엄은 어디에 있고, 법률은 또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여태껏 국가의 큰 환란은 모두 그대들과 같은 무리들이 악에 기대 군왕을 속여 큰 화를 불러일으킨 것이요. 지금 懷義를 참수하지 않는다면 王家庄의 그 많은 백성들이 큰 변란을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신은 실로 걱정을 금할 수 없사오니 폐하께서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4) 『狄公案』 40회. “卿家入京以來每日皆有啓奏，今日有何事件？莫非又參劾大臣麼？”

(武三思也出班奏道：“昨日臣在狄仁傑衙門，也恐此事另有別故，只因狄仁傑立意獨行，他乃奉旨的大臣，故不敢過問。但恐懷義爲仇家所害。”狄仁傑聽了此言，忙道：“姑作這兩人非他所殺，人頭何以在地窖裏面？白馬寺清淨地方，何故造這地窖暗室？顯見平日無惡不作。即以王毓書媳婦而論，這事乃武大人親目所睹。強逼良家婦女，須當何罪？而況此婦人盡節而死，就此而言，也該斬首，豈得因他所供不清，便爾寬恕？於國體何在，於法律又何在！從來國家大患，皆汝等這班黨類，佔惡欺君，送至釀成大禍，今日不將懷義斬首，恐王家莊那許多百姓，激成大變。臣實擔憂不起，且請陛下三思。”)<sup>95)</sup>

武三思는 武則天이 薛懷義를 아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狄仁傑의 조사로 薛懷義의 죄가 밝혀지자 武三思는 武則天을 위해 薛懷義를 변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狄仁傑이 薛懷義를 원수로 여겨 고의로 그에게 죄를 씌운 것이라 하는 등 논점을 흐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狄仁傑은 여러 증거들과 武三思도 직접 목격한 사실을 토대로 武三思의 논리를 무너뜨렸다. 그러자 武三思는 억지를 부리듯 말을 이어갔다.

武三思는 바로 입을 열지 않고 그가 말을 마치기를 기다렸다가 말했다. “적대인, 그대가 비록 懷義를 몹시 증오한다지만 내가 보건대 그가 이씨를 속여서 가둬두었다 하였는데 만약 그녀를毆박하였다고 하여도 또한 아직 강간을 하지 않았고, 그 이씨 또한 스스로 기둥에 부딪쳐 죽은 것이니 懷義와 무슨 관련이 있겠소?” 적공은 이 말을 듣고 더욱 노하여 말했다. “군왕을 속이고 악을 따르는 이 개 대가리아! 이씨가 그가毆박하지도 않았는데 어찌하여 스스로 죽었겠는가? 그녀가 죽은 것은 바로 懷義가 말썽을 피웠기 때문이니 이 일은 관례에 따라 참형을 논하지 않으신다면 성상께서는 국법을 폐기하시어 공연히 유명무실한 규정이 되지 않게 하여주옵소서. 죄가 가벼운 사람은 무고함에도 사형을 당하고, 죄가 무거운 자는 도리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달아나니 어찌 백성들이 마음으로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武三思直不開口，等他言畢，乃言道：“狄大人，你雖痛恨這懷義，在我看來，說

95) 『狄公案』 46회.

他騙困李氏有之，若說強逼她，又未嘗成奸，那李氏自己觸柱而死，於懷義何涉？”狄公聽了此言，愈加怒道：“汝這欺君附惡的狗頭，李氏不爲他強逼，爲何自己尋死？她死正爲懷義羅咄，此事不依例論斬，且請聖上，將國法註銷，免得徒有虛文。罪輕者無辜受殺，罪重者反逃法外，何能令百姓心服！”<sup>96)</sup>

武三思는 이씨가 강간을 당하지 않았고, 또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므로 薛懷義는 이 일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주장했다. 그러자 분에 못이긴 狄仁傑은 薛懷義를 죽이지 않을 것이라면 차라리 국법을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武則天은 刑部에 다시 조사하라 명하고 조회를 마친다. 여전히 薛懷義를 두둔하고 있는 것이다.

狄仁傑은 이처럼 황제 앞에서 황제가 비호하는 총신들에 대해 (간관에 대한 정리)

### 3) 군 지휘관 형상

여타의 공안소설과 달리 『狄公案』은 강한 정치성을 띤다. 그러므로 앞서 언급한 간관형상이 작품의 후반부를 채우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성격을 띤 작품들은 光緒 28년에 출간된 惜紅居士의 『李公案奇聞』과 宣統 원년에 출간된 彭養歐의 『黑籍冤魂』 등이 있다. 이 당시의 공안작품들은 모두 이러한 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狄公案』은 여기서 더 나아가 狄仁傑을 모반을 진압하는 군 지휘관으로서의 형상으로도 묘사하고 있다. 이미 공안소설의 제재라고 보기에는 너무 멀리 나간 것이 아닐까 할 정도이다.

狄仁傑이 武則天의 명을 받아 군사를 일으키는 것은 57회에 처음 등장한다. 武三思를 따르던 李飛雄이 군사를 일으켜 懷慶府를 공격하면서 廬陵王의 복위를 구호로 삼았기에 武則天은 이를 廬陵王의 모반이라 여기고 모반을 제압한 후 廬陵王을 잡아다 치죄하라 명하였다. 狄仁傑이 간언하여 말려보려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고 武承嗣 등의 총신들은 이에 더욱더 강하게 廬陵王을 공격하였다. 그때 安金藏이라는 신하가 廬陵王을 위해 그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가지고 있던 칼로

96) 『狄公案』 46회.

자신의 가슴을 가르는 자해행위를 했다. 이에 놀란 武則天은 그를 데리고나가 치료하라 명하였고 廬陵王의 모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된다. 그러자 여러 대신들이 廬陵王의 모반은 누군가의 음해라 주장하였고 武則天은 廬陵王의 모반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李飛雄의 군세를 제압하는 게 우선이라 말한다. 이에 狄仁傑이 나서서 이를 자신이 해결해보겠다고 청하게 된다.

狄仁傑이 말했다. “폐하께서 신에게 군대를 내어주신다면 무장들을 대동하여 나아가 저들을 토벌하고 적장 李飛雄을 생포하여 데려오겠습니다. 한편으로는 元行冲에게 명하여 적의 거짓 조서를 가지고 房州로 가서 태자께 보게 하십시오. 태자께서 이 역모의 글을 보시고 어찌 조정을 중히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때는 폐하께서 그에게 적을 토벌하라 명하지 않으셔도 태자께서 필사적으로 앞으로 나아가 속내를 밝히실 것입니다. 이는 일거양득으로 폐하께서는 思義를 다 갖추시게 되니, 그 奸賊들은 그 수법(武則天과 廬陵王을 이간질함)을 쓸 방도가 없을 것입니다.” 武后는 이때 기호지세의 형국이라 운허하여 武承業의 병사들을 적공이 거느리게 하고 맹장 백 명을 선발하여 밤새 懷慶府로 가서 도적들을 멸하게 하였다. 다시 성지를 내려 李飛雄의 거짓 조서와 함께 元行冲에게 가지고 房州로 가게 하였다. 두 사람은 성은에 사례하고 물러나왔다.

(狄仁傑道。“陛下若能委臣一旅之師，帶同武將，前往征討，定可將李飛雄活捉來京。一面命元行衝將敵人的偽詔，帶住房州，與太子觀看。太子見此逆書，豈不以朝廷爲重，那時陛下雖不命他征剿賊人，太子也要奮力前驅，以明心跡。似此一舉兩得，陛下思義俱全，那班奸賊，也無從施其伎倆。”武后此時騎虎之勢，只得准奏，將武承業之兵，歸狄公統帶，聽其挑選猛將百員，星夜往懷慶滅寇。復下一道御書，並李飛雄偽詔，一併交元行冲，帶住房州而去。兩人謝恩已畢，然後退朝。)97)

狄仁傑은 다음날 아침 오만대군과 십 수 명의 상장을 거느리고 懷慶府로 진격했다. 이때 懷慶府의 수비를 맡고 있던 金城은 사실 武三思 등과 내통하고 있던

97) 『狄公案』 57회.

사이었는데 이를 안 狄仁傑이 하루는 그에게 성을 나서서 적을 맞으라고 명했다. 狄仁傑의 명을 받고 가지 않을 수 없던 金城은 성을 나서서 李飛雄과 맞서게 되었는데 李飛雄은 그가 武三思 등과 한패임을 모른 채 오직 懷慶府를 수비하는 장수로만 여겨 그를 죽이게 된다.

李飛雄은 고개를 들어 金城을 보았는데 연일 성 위에서 胡世經과 수비를 하던 자라 이미 눈에 익은지라 급히 말머리를 당겨 앞으로 나아가 외쳤다. “거기 온 자는 懷慶府의 수비를 맡은 金城이 아닌가?” 錦城은 그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고는 武三思가 일찍이 李飛雄에게 그가 성중에서 수비를 맡고 있다고 말하였는가 싶어서 그에게 대답했다. “내가 바로 金城이다! 네가 내 이름을 안다면 내 내력 또한 알 터이다. 지금 적대인의 명을 받들어 말에 올라 너와 생사를 걸고 승부를 겨루겠다.” 李飛雄은 그가 말한 암어를 알아듣지 못하고 얼른 외쳐 말했다. “너 이 무명잡배야! 군왕의 봉록을 먹는다면 마땅히 군왕의 은혜에 보답해야 할 것이다. 당 황실의 강산은 바로 廬陵王 전하의 천하인데 지금 武后가 조정의 기강을 어지럽히고 소인들을 총애하여 태자전하를 먼 곳에 유배 보내니 지금 얼른 복위하시어 조정의 기강을 정돈하고자 특별히 혈서를 내리시어 본 원수에게 사직의 어려움을 생각하여 토벌하라 명하셨다. 일전에 조서가 여기 있었는데 너는 어찌하여 順逆을 몰라 관문을 막고 지키면서 왕의 군대에 저항하느냐? 이제 대대가 와서 먼저 개전하였는데 잘 왔도다. 본 원수가 너를 두 동강 내어도 내 수법을 알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泰山壓頂으로 머리를 쪼개려 하였다.

(李飛雄擡頭看見是金城，連日見他在城上與胡世經把守，早已認熟在眼中，忙將馬頭一領，上前喝道：“來者莫非懷慶守備金城麼？”金城見他道他姓名，疑是武三思曾與李飛雄言過，說他在這城中爲守備，也就答道：“老爺便是金城！汝既知名姓，諒知我來歷。今奉狄撫之命，上馬前來與汝決一死戰。”李飛雄不知他說的暗話，連忙喝道：“汝這無名小輩，既食君祿，當報君恩。唐室江山，乃廬陵王天下，現爲武后荒亂朝綱，寵嬖小人，致將太子遠謫，目下亟思復位，整理朝綱，特下血書，命本帥念社稷艱難，爲此征討。日前草詔在於茲，汝何不知順逆，閉關自守，抗拒王師？此時大隊前來，首先開戰，來得好，本帥不將汝分爲兩段，也不知



俺手段!”說着一個泰山壓頂，當頭劈來。)98)

李飛雄은 金城을 죽이고 의기양양하게 승전고를 치며 군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는 狄仁傑의 借刀殺人の 계책이었다. 내통자인 金성을 그렇게 처리한 狄仁傑은 이때를 틈타 趙大成과 方如海라는 上將을 보내어 적 군영을 공격하게 한다. 그리고 한 가지 계책을 더 내었는데 그것은 일찍이 李飛雄과 한패였던 狄仁傑의 수하 馬榮을 이용하는 계책이었다. 狄仁傑은 馬榮을 李飛雄에게 보내어 李飛雄 군영의 허실을 파악하게 하고 이를 통해 완벽한 작전을 짜 李飛雄을 궁지로 몰아넣는다.

수많은 달아난 병사들이 벌떼처럼 몰려와 李飛雄에게 말했다. “채주, 큰일입니다. 출병한 후 마 장군이 군영 앞에서 관전하지 않고 갑자기 후영으로 나가 대포를 몇 번 쏘았습지요. 순식간에 왼쪽의 산 아래서 많은 병마가 나와 산을 넘어 본영으로 몰려왔습니다. 저희들은 그에게 적을 물리칠 것을 청했습니다만 그가 도리어 적병을 데리고 들어와 군영에 불을 지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군영의 군량미와 장막들이 모두 타버렸으니 앞으로 가서는 절대 안됩니다.” 李飛雄이 이 말을 듣고 크게 소리쳤다. “馬榮, 내가 너를 옛 친구라 부르며 나를 도울 줄 알았는데 네가 간첩으로 나의 모든 것을 철저히 무너뜨릴 줄 누가 알았겠나! 오늘 나 또한 목숨을 걸고 너를 죽이고야 말겠다!” 그때 馬榮을 찾아가려 하였으나 뒤에서 裘萬里의 추격병이 도착하여 큰 소리로 말했다. “李飛雄, 네 보금자리가 이미 사라졌는데 아직도 말에서 내려 항복하지 않느냐!” 李飛雄은 분노에 가득 차 대도를 들어 裘萬里에 응전했는데 서로 대여섯 합을 나누고 나자 대병이 조수처럼 밀려와 분분히 사면을 에워싸 돌을 가두어 적을 잡으라 소리치는 것을 보았다. 李飛雄은 대업이 이미 물 건너간 것을 보고 몸을 빼기도 어려움을 예상하고는 미친 듯이 몇 번 소리치더니 칼을 들어 스스로 목을 베려 하였다. 하지만 裘萬里가 이를 보고는 오른손의 쇠 채찍으로 몸을 감고 왼손으로 李飛雄의 허리를 잡아끌어 李飛雄을 안장에서 끌어올렸다가 다시 땅으로 던져버렸다. 사방의 병사들이 적의 수장을

98) 『狄公案』 57회.

잡은 것을 보고 크게 함성을 질렀고 그를 묶었다. 裘萬里는 자기가 적의 수장을 잡았으므로 마음속으로 매우 기뻐하며 말 머리를 돌리고 채찍을 들고 고삐를 잡고서는 李飛雄을 압송하여 군영으로 돌아갔다.

(只見許多逃殘兵士，蜂擁而來，向着李飛雄說道：“寨主不好了，出兵之後，馬將軍並不到營前觀戰，忽自出了後營，放了幾聲大炮。頃刻左邊山下，出來許多兵馬，穿山越嶺，向本營擁來。我等正請他退敵，誰知他反將敵兵，帶入營中放火燒寨。現在軍中糧餉，以及帳棚，皆爲他焚燒殆盡，前面萬不可去了。”李飛雄聽了此言，只得大叫一聲：“馬榮，我道你是舊日良朋，前來助我，誰知你是奸細，害得我瓦解冰消！今日俺也拚作一死，只與汝送了性命！”當時便想去尋馬榮。後面裘萬里追兵已到，高聲叫道：“李飛雄，汝窠已失，還不下馬投降！”飛雄正是忿火中燒，舉起大刀向萬里復戰，彼此又交了五六回合，早見大兵如潮水相似，紛紛擁攏四面圍來，將兩匹坐騎困在核心，齊呼捉賊。李飛雄見大事已去，料想難以逃脫，狂叫數聲，便想舉刀自刎，裘萬里早已看見，右手將鋼鞭順轉，身軀一進，左手只在李飛雄腰間一把，說聲帶過，早把飛雄提高坐騎，復行向地下一擲。四面兵了見賊首已得，一聲吶喊，捆綁起來。裘萬里因自己擒了賊首，心下得意非常，撥轉馬頭，提鞭執轡，押着大隊回營。)99)

결국 반란군의 수괴인 李飛雄을 잡은 狄仁傑은 馬榮의 설득으로 李飛雄을 복속시킨다. 이때 房州로 갔던 元行冲이 사람을 보내어 武承嗣가 자객을 보내어 廬陵王을 암살하고자 시도하였다고 알려왔다. 하지만 결국 廬陵王은 조정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에 따라 廬陵王의 역모 사건을 꾸민 武承嗣, 武承業, 許敬宗 등은 자진하거나 도망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만다.

지금까지 『狄公案』속 狄仁傑의 형상을 살펴보았다. 공안소설이라는 장르의 특성 상 가장 중요한 역할은 판관이다. 그는 판관으로서 여러 가지 기이한 사건들을 해결한다. 이 과정에서 그는 법정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스스로 변복하여 탐문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했다. 또한 張昌宗이나 武三思 등 조정의 대신들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과감하게 판결하는 모습도 보인다. 물론 판관으로서의 그의 능력을 부각시키려 직관에 의존하는 것처럼 묘사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99) 『狄公案』 60회.

대부분의 공안소설에서도 자주 쓰이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작품 후반부에 이르러 조정으로 들어온 狄仁傑은 武則天의 면전에서 무찌 일파의 부정을 고발한다. 군왕 앞에서도 과감하게 직언하는 간관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군대를 지휘하여 반란군을 토벌하는 역할도 수행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는 狄仁傑이 문학작품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수많은 인물형상들이 『狄公案』 속에 대부분 반영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 2. 부차적 인물의 인물형상

주인공인 狄仁傑을 핵심인물이라 한다면 그 나머지 인물들은 부차적 인물이라 칭할 수 있다. 공안소설이라는 장르적 특성에 기인하여 주인공은 관관이 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소설의 경우 주인공이 설정되면 그 주인공의 대척점에 서있는 반면인물이 묘사되고, 반면인물과 대적하는 주인공을 돕는 조력자들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공안소설은 관관이라는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관관에 비해 여타 다른 인물들이 관관과 대등할 정도로는 부각되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으로 말미암아 본 논문은 주인공을 제외한 나머지 인물을 부차적 인물이라 칭하여 서술하도록 하겠다. 吳曉麗의 논문<sup>100)</sup>에는 이러한 부차적 인물을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는데 바로 생계형 피해자, 직업적 가해자, 다양한 조력자가 바로 그것이다.

### 1) 조력자 형상

조력자는 말 그대로 주인공을 도와 사건을 해결하는 자들을 말한다. 『狄公案』에는 狄仁傑을 수행하는 네 명의 수행원이 등장한다. 그를 따르는 네 명의 수하는 馬榮, 喬泰, 洪亮, 陶干으로 『包公案』류 소설에서 包拯을 돕는 네 호걸인 王

100) 吳曉麗, 「명대 공안소설의 서사전략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17.

朝, 馬漢, 張龍, 趙虎와 대비된다. 『狄公案』의 1회에 그들에 대한 정보가 제시된다.

수하로는 네 명의 측근이 있으니, 喬泰라 불리는 자와 馬榮이라 불리는 자는 녹림의 호걸이다. 어느 날 그(狄仁傑)가 일을 보러 京師로 가던 중 두 사람이 그의 행낭을 빼앗으려 하였다. 狄仁傑은 馬榮과 喬泰 모두 영웅의 기질이 있고 무예가 고명했으므로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내 저들을 귀순시켜 장래에 황가를 대신하여 일을 한다면 그 두 사람이 서로 도울 수 있고, 자신들의 재주를 썩히지 않으리라.’ 그리하여 그때 몸을 피하기는커녕 도리어 용감하게 나서 그들과 인사를 나누고는 누차 권했다. 馬榮과 喬泰가 매우 감격할지 어찌 알았겠는가. 말했다. "우리는 도적으로 모두 천하가 분분하고 난신들이 득세하여 다만 이런 재주가 있어도 알아봐줄 이를 만나지 못하였기에 도적이 되어 이런 하책이나 쓰게 되었소. 기왕에 공께서 이런 후의를 베푸시니 기꺼이 채찍을 들고 등자를 잡으며 공께 보답하겠습니다." 狄仁傑이 두 사람을 받아들여 측근으로 삼았다. 나머지 한 사람은 洪亮이라 불리는 자로 并州 사람이다. 어려서 狄家の 使喚으로 있었는데 그는 비록 무예를 사용하는 능력은 없었으나 담대하고 세심한 사람으로 어떠한 일이든 기꺼이 나섰고 일을 할 때에는 기회를 보아 헤아릴 줄 알았으며 경솔하지도 않았다. 이 사람이 狄仁傑을 가장 오래 따랐다. 마지막으로 陶干이라 불리는 자가 있었는데 강호인 이었다가 후에 개과천선하여 관청의 差役이 되었다. 원수진 자가 많아 늘 사람들이 와서 보복을 했기에 적공의 휘하로 투신하여 馬榮 등과 절친한 친구가 되었다. 昌平縣에 부임한 이후 이 네 사람은 모두 狄仁傑을 모시고 은밀히 조사하며 많은 난제사건들을 해결했다.

(手下有四個親隨，一個姓喬叫喬泰，一個姓馬叫馬榮，這兩人乃是綠林的豪客。這日他進京公幹，遇了他兩人要劫他的衣囊行李，仁杰見馬榮、喬泰，皆是英雄氣派，而且武藝高明，心下想道：“我何不收服他們，將來代皇家出力，做了一番事業，他兩人也可相助爲理，方不埋沒了這身本領。”當時不但不去躲避，反而挺身而出，招呼他兩人站下，歷勸了一番。哪知馬榮同喬泰，十分感激。說：“我等爲此盜賊，皆因天下紛紛，亂臣當道，徒有這身本領，無奈不遇識者，所以落草爲

寇，出此下策。既是尊公如此厚義，情願隨鞭執鐙，報效尊公。”當時仁杰就將兩人，收爲親隨。其餘一人姓洪，叫洪亮，即是并州人氏，自幼在狄家使喚。其人雖沒有那用武的本事，卻是一個膽大心細的人，無論何事，皆肯前去，到了辦事的時候，又能見機揣度，不至魯莽。此人隨他最久。又有一人，姓陶叫陶干，也是江湖上的朋友，後來改邪歸正，爲了公門的差役。親因仇家太多，時常有人來報復，所以他投在狄公麾下，與馬榮等人，結爲至友。從昌平到任之後，這四人皆帶他私行暗訪，結了許多疑難案件。)101)

이 중 馬榮과 喬泰 그리고 陶干은 녹림의 호걸출신이라고 설정이 되어있다. 이러한 설정은 청대의 협의공안소설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청 말의 어지러운 사회현실 속에서 정치는 부패하고 백성들은 살기 어려워지며 사회질서의 붕괴가 가속화되던 시점이었다. 이때 등장한 협의공안소설들은 봉건 예교가 허용한 범위 안에서 흉악한 이들을 징치하고 백성들을 보호하며 정의를 신장시키는 淸官과 악한 무리들을 죽이고 곤란함을 당한 이들을 위기에서 구해주는 협객을 동경하고 열망하는 이러한 민중들의 심리를 내포하고 있다.<sup>102)</sup> 예를 들어 『三俠五義』에 등장하는 展昭나 五鼠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본디 강호에서 활동하는 협객으로 자유롭게 세상을 활보하던 이들이었다. 하지만 包拯에게 감화되어 판관인 包拯의 통솔 아래 각종 사건을 해결하고 조정엔 큰 도움을 주게 된다.

『狄公案』의 협사들은 물론 무협소설에 등장하는 영웅적인 성격을 띠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狄仁傑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狄仁傑과 비견될 만큼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狄仁傑이 가지고 있지 않은 무력이라는 능력을 그들이 지니고 있어서기도 하지만,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 사건의 단서가 발견되는 등 이야기가 진행됨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조력자들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狄公案』에는 그들의 언행을 통해 그들의 호협기질을 숨김없이 드러내는데 예를 들어 두 번째 사건인 皇華鎮 사건에서 馬榮은 사건조사가 느리게 진전되자 조급한 마음에 狄仁傑에게 용의자인 徐德泰의 스승인 楊得忠을

101) 『狄公案』 1회.

102) 袁行霈, 『中國文學史 第四卷』, 高等教育出版社, 2005, 385쪽.

체포하여 조사하자고 건의한다. 하지만 狄仁傑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에피소드는 楊得忠으로 대변되는 고대의 紳士계층의 특수한 지위라는 사회질서를 반영함과 동시에 馬榮의 솔직하지만 경솔한 성격 특징을 매우 잘 드러내는 대목이라 하겠다.<sup>103)</sup>

한편 22회에는 狄仁傑의 명에 따라 석방된 두 번째 사건의 범인 주씨를 감시하던 중 강호인만의 특수능력이 발휘되는 장면이 등장한다.

말을 하는 사이에 洪亮과 陶干이 밖에서 들어와 적공 앞에서 문안을 드리고는 한쪽에 섰다. 적공이 물었다. “너희들이 그곳에 간지 며칠 지났는데 대관절 무슨 허점을 발견하였으며 밤낮으로 조사한 것은 어찌되었는가?” 洪亮이 말했다. “소인들은 명을 받은 후 낮에는 何愷(皇華鎮의 地甲)의 집에 머물다 매 저녁 이후부터 五更까지 필가를 감시하였으나 연이어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런 동정도 없었습니다. 어젯밤에는 소인이 초조해서 급히 陶干과 함께 야행수법을 펼쳐서 그 집 위로 뛰어올라가 귀를 기울였지요. 우선 주씨가 밖에서 시어머니를 향해 욕을 했사운데 그녀가 나리를 집에 데려와 병을 치료하게 한 것을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인은 이것이 그녀의 습관인 줄 알았는데 그 뒤에 병어리가 갑자기 방에서 소리를 지르자 주씨가 욕을 했습니다. “이 천박한 년아, 또 소란을 피워! 쥐가 야단법석을 떠는 것에 뭘 그렇게 크게 놀라!” 그러면서 광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소인은 집 위에 엎드려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마치 안에 남자가 말하는 소리가 들려서 내려가 보고 싶었지만 들고 나는 곳이 분명치 않아 감히 경솔히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후에 陶干이 기와를 들어내어 자세히 보려했지만 아무런 흔적도 보이지 않았지요. 그리하여 소인들이 돌아와 나리께 아뢰는 것이오니 나리께서는 분부를 내려주시지요.”

(“小人奉命之後，日間在那何愷裏邊居住，每至定更以後，以及五更時間，即到畢家察訪，一連數日，皆無形影。昨晚小人着急，急同陶干兩人施展夜行工夫，跳在那房上細聽。但聞周氏先在外面，向那婆婆叫罵了一回，抱怨她將太爺帶至家中醫病，小人以為是她的慣伎，後來那啞子忽然在房中叫了一聲，周氏聽了罵道：‘小

103) 王凡, 『『狄公案』中的江湖豪俠形象及其意蘊探微』, 『鄖陽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2015年 1期,

賤貨，又造反了，老鼠吵鬧，有什麼大驚小怪！’說着只聽撲通一聲，將門關起。當時小人就有點疑惑，她女兒雖是個啞子，不能見老鼠就會叫起來。小人只得伏在屋上細聽，好像裏面有男人說話，欲想下去，又未明見進出的地方，不敢造次。後來陶干將瓦屋揭去，望下細看，又不見什麼形跡。因此小人回來稟明太爺，請太爺示下。”<sup>104)</sup>

洪亮과 陶干은 狄仁傑의 명으로 주씨의 집을 감시한다. 하지만 바깥에서 전혀 안의 동정을 알 수 없었기에 강호에서 사용하는 기술인 야행술을 이용하여 몰래 지붕 위로 숨어들어 주씨의 동태를 살폈다. 이처럼 그들은 강호에서 쌓은 무공과 여러 가지 기술 등을 이용하여 관관인 狄仁傑을 도와 사건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 네 명의 수하 말고도 강호의 호협으로 狄仁傑의 사건 조사에 도움을 준 이가 있다. 바로 첫 번째 사건인 六里墩 사건에서 범인인 邵禮懷를 돕던 趙萬全이다. 趙萬全과 狄仁傑이 처음 만난 때는 狄仁傑이 첫 번째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雙土寨에 변복하여 탐문조사를 벌이는 와중이었다. 당시 狄仁傑은 북경에서 온 비단상인으로 위장하여 雙土寨 이곳저곳을 둘러보던 중이었는데 우연히 만난 趙萬全은 한눈에 그의 변장을 알아보았다. 무협지에 많이 등장하는 역용술은 얼굴 등의 외형을 변화시켜 본 모습을 감추는 기술이다. 물론 狄仁傑이 강호인들이 사용하는 역용술을 펼친 것은 아니지만 趙萬全이 아닌 다른 이들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정교하게 변장하였다. 하지만 趙萬全은 단박에 그가 상인이 아니라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임을 눈치 챘다. 이는 趙萬全의 강호경험이 풍부하다는 사실에 대한 반증이고, 작가는 이를 통해 趙萬全의 강호인으로서의 형상을 부각하고 강화시켰다고 말할 수 있겠다.

趙萬全은 원래 邵禮懷와의 의리를 지키고자 수사에 혼선을 주었다. 하지만 馬榮과 蔣忠의 설득으로 인해 그의 심리에 큰 변화가 생긴다. 邵禮懷를 지키는 쪽에서 邵禮懷를 잡는데 도움을 주는 쪽으로 생각을 바꾼 것이다. 이는 邵禮懷의 행동 때문이기도 한데, 애초에 邵禮懷는 동행하던 서씨를 죽이고 재물을 강탈하려 하였으나 근처를 지나던 車夫에게 발각되고 결국 그들마저 죽인 邵禮懷는 차

104) 『狄公案』 22회.

부가 몰던 수레에 비단을 싣고 趙萬全에게 떠넘긴 것이다. 이는 법률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었고, 이로 인해 趙萬全이 邵禮懷와의 의리를 저버림에도 비난받지 않은 이유가 되기도 한다.

『狄公案』은 협의공안소설로 분류하기에는 협객의 형상이 두드러지게 묘사된 편이 아니다. 하지만 『狄公案』의 조력자들은 비록 조연에 불과하나 이야기의 진행상황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사용된다. 또한 馬榮 등의 수하와 趙萬全과 같은 녹림의 호걸들을 통해 작가의 협의관을 반영하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 2) 가해자 형상

가해자는 사건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해를 끼친 자를 말한다. 『狄公案』에는 세 번째 사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해자가 존재한다. 세 번째 사건은 華國祥의 며느리가 급사한 사건인데 사람이 해를 끼친 것이 아닌 기둥 위에 살던 뱀 한 마리가 우연히 찻잔에다 독액을 흘려 그것을 마신 華國祥의 며느리가 죽은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가해자가 없다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가해자를 두 부류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는 惡漢이고, 둘째는 惡婦의 형상이다.<sup>105)</sup>

### (1) 惡漢 형상

惡漢이란 악독한 짓을 하는 남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狄公案』에서 묘사되고 있는 악한의 형상은 평민인 악한과 승려인 악한, 그리고 부패한 조정대신과 그를 따르는 세력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평민계층의 악한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狄公案』에서 평민계층의 악한이 등장하는 사건은 첫 번째 사건인 六里墩 사건이다. 욕리돈 사건의 가해자는 邵禮懷라는 상인이다.

“소인은 어려서부터 湖州縣에서 장사를 하며 매년 이곳에 자리를 잡았는데 작

105) 이는 강주완의 논문(『『百家公案』연구』, 2002)에서 반면인물의 형상을 분석할 때 세운 기준으로 강주완의 논문에는 惡漢과 惡婦, 妖怪 및 神鬼의 형상으로 구분했다. 하지만 『狄公案』에는 요괴 및 신귀의 형상은 표현되고 있지 않으므로 악한과 악부의 형상만으로 분석하겠다.



년에 한 여인과 사귀게 되어 많은 돈을 썼지요. 고향에 돌아온 뒤엔 빚이 쌓여만 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성이 徐씨고 이름이 光啓라고 하는 현지의 동종 업계 사람이 이곳에서 같이 장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소인은 그가 이삼백 냥이나 되는 현금과 칠팔백 냥 어치의 비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저도 모르게 갑자기 흑심이 생겨서 그를 죽이고 재물을 얻어 여인과 안정된 생활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는 동안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었으나 기회를 만나지 못하였지요. 이 날은 六里墩 지방을 지나가는데 보아하니 행인도 적어 보여 공가객점에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에 억지로 술을 먹여 그를 취하게 한 후에 다음 날 오경에 길을 떠났습니다. 그때 그는 아직 잠에서 깨지 않았는데 억지로 재촉하여 길을 떠나게 하여 鎭門을 나서면서 등 뒤로 칼을 내질러 그를 베어 쓰러뜨렸습니다. 바로 그의 몸을 뒤져 재물을 수습하려는데 갑자기 길을 건너온 車夫들이 보고서는 내가 길을 막고 강도짓을 한다고 말하며 소리를 치려고 하였습니다.

소인은 민가를 놀라게 할까 걱정되어 그들을 베어 죽이고 그들의 마차를 빼앗아 실려 있던 물건들을 밀어버리고는 길을 재촉하여 도망갔지요. 갈수록 마음이 두려워지는데 두 역참을 지나 우연히 趙萬全을 만나 거짓말로 그에게 물건을 팔아 은자 수백 냥을 얻어 수레도 그에게 넘겼습니다. 이는 모두 소인이 사실대로 자백한 것입니다. 소인은 죄가 무거움을 알고 있사오나 대인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에겐 늙으신 어머니가 계십니다.”

(“小人自幼在湖州縣行生理，每年在此坐莊，只因去年結識了一個女人，花費了許多本錢，回鄉之後，負債累累。今年有一徐姓小官，名叫光啓，也是當地的同行，約同到此買賣。小人見他有二三百金現銀外，七八百兩絲貨，不覺陡起歹意，想將他治死，得了錢財，與這婦女安居樂業。一路之間雖有此意，只是未逢其便。這日路過治下六里墩地方，見該處行人尚少，因此投在孔家客店。晚間用酒將他灌醉，次日五更動身，彼時他還未醒，勉強催他行路，走出了鎭門，背後一刀，將他砍倒。正擬取他身邊銀兩，突來過路的車夫，瞥眼看見，說我攔街劫盜，當時就欲聲張。

小人惟恐驚動民居，也就將他砍死，得了他的車輛，推着包裹物件，得路奔逃。誰知心下越走越怕，過了兩站路程，卻巧遇了這趙萬全，謊言請他售貨，得了他幾百

銀子，將車子與他推載。此皆小人一派實供，小人情知罪重，只求大人開恩。我尚有老母！”)<sup>106)</sup>

邵禮懷는 빛 때문에 사건을 저질렀음을 고백하고 있다. 그리고 원래부터 서씨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하다가 인적이 드문 六里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이를 차부에게 들키고 결국 차부까지 죽이기에 이른다.

한편, 승려가 가해자인 경우는 공안소설에 자주 보이는 오래된 제재라 볼 수 있다. 『淸平山堂話本』 중의 「簡帖和尚」은 승려가 악한으로 등장하는 대표적인 작품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왜 공안소설에는 승려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을까? 이는 중국 불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다. 송원시기 이후 불교가 성행하면서 교단이 비대화되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승려의 소양이 제각각이어서 진정으로 수행에 목적을 두는 수행자도 있었지만 나쁜 짓을 하고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도피처로 택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리하여 명말청초에 이르러서는 승려들의 살인, 강간, 절도 사건이 많이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켰다.<sup>107)</sup> 이러한 상황에서 승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문학작품 속에서도 이들을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하는 경향이 심화된 것이다. ‘淫僧’이란 단어가 그들을 부르는 대표적인 단어라 할 수 있겠다. 공안소설에서 이들 음승은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쳐 상대방을 살해하는 경우와 절에 온 여인을 상습적으로 감금하고 강간하는 경우 등으로 표현된다.

『狄公案』 속에서 음승은 ‘薛懷義’가 유일하다. 그는 王員外의 며느리인 이씨가 아름답다는 것을 알고 거짓으로 성지를 조작하여 왕원외를 겁박하였고, 결국 왕원외와 그의 가족들이 모두 薛懷義가 주지로 있는 백마사에 분향하러 오게 만든다. 그리고는 다른 가족들과 이씨를 떨어뜨려두고 이씨를 유인하여 토굴에 가두게 된다. 하지만 이는 이씨부인이 유일한 피해자가 아니었으니 薛懷義에게 밀려 산문을 지키게 된 전임 주지에게서 그가 상습적으로 납치하고 음란한 짓을 벌였음을 듣게 된다. 狄仁傑은 그의 죄를 확정하고 공술까지 받았으나 武三思 등 대

106) 『狄公案』 19회.

107) 吳曉麗, 「명대 공안소설의 서사전략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17, 177쪽.

신들의 방해를 받게 된다. 하지만 끝까지 대신들과 투쟁하여 결국 武則天으로부터 참수하여 효수하라는 명을 받게 된다.

이밖에도 조정대신들과 이들을 위시한 부패세력들을 악한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인물묘사의 경우 앞서의 평민인 악한이나 승려와 같이 독특한 면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그들이 실제인물이거나 실제인물을 모티브로 하는 가상인물이므로 실제 역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라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그들이 반영하는 사회의 어두운 현실과 폐단 등은 공안소설의 현실성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분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 (2) 惡婦 형상

『狄公案』 전반부에서 편폭이 가장 긴 사건은 두 번째 사건인 皇華鎮 사건이다. 皇華鎮 사건의 범인인 주씨는 ‘淫婦’라고 하는 공안소설의 가해자 중 대표적인 인물유형에 속하는 인물이다. 특히나 주씨가 남편을 살해한 방법인 쇠못을 정수리에 꽂는 방법은 ‘勘釘’ 고사라 하여 아주 오래된 연원을 갖는 이야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강주완은 이러한 惡婦형상에 대해 妬忌型, 詐欺型, 通奸型<sup>108)</sup>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강주완의 분류로 주씨를 분석하면 通奸型 惡婦형상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惡婦 중에서도 특히 淫婦는 공안소설 속에서 하나의 전통적인 제재로 사용되지만 여기에는 당시 사회의 편견과 억압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狄公案』에서 狄仁傑은 첫 번째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약을 파는 의원으로 변복하였는데, 이때 한 노파의 치료를 맡게 되면서 주씨를 처음 만나게 된다. 狄仁傑의 언행을 통해 주씨에 대한 狄仁傑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그 며느리를 보니 나이도 서른 안쪽이고, 비록 수수하게 꾸몄지만 공교롭게도 그 한 쌍의 淫眼이 빛을 발하자 실제로 사람들이 혼비백산 하였다. 눈썹이 조금 올라가면 하얀 얼굴에 양 볼이 살짝 홍조를 띠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낮선 사람이 들어온 것을 보고는 몸을 뒤로 물리고 쿵 소리 내며 문을 닫았다. 안

108) 강주완, 『『百家公案』研究』,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02, 218쪽.

에서 욕하는 소리만 들렸다. “이 천박한 늙은이야! 저런 약 파는 의원까지도 집에 데리고 와! 며칠 조용하나 했는데 오늘 또 소란스럽게 하니, 어디서 온 불운인지 모르겠네!”

(但見那個媳婦，年紀也在三十以內，雖是素裝打扮，無奈那一副淫眼，露出光芒，實令人魂魄消散。眉稍上起，雪白的面孔，兩頰上微微的暈出那淡紅的顏色——卻是生於自然。見有生人進來，即將身子向後一縮，撲咚的一聲，將房門緊閉。只聽在裏面罵道：“老賤婦，連這賣藥的郎中，也帶上門來了。才能清淨了幾天，今日又要吵鬧一晚，也不知是哪裏的晦氣！”)<sup>109)</sup>

작가는 이 장면에서 이미 ‘淫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그녀의 정체를 드러냈다. 또한 시어머니에게 욕을 하는 장면으로 그녀의 성격이 좋지 못함 또한 묘사하였다. 그녀의 이러한 성격은 법정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계속되었는데 다음의 예를 보도록 하자.

적공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녀가 먼저 물었다. “소녀 주씨가 나리께 인사 올립니다. 나리께서 무슨 분부가 있으셔서 특별히 심부름꾼을 보내셔서 심문 하셨는지 모르겠으니 나리께서는 빨리 관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려서 과부가 되어 공당에 오래 꿰어앉을 수 없습니다.” 적공이 이 말을 듣고 노하지 않을 수 없어 냉소하며 말했다. “너는 잘도 ‘과부’라는 말을 쓰는구나. 너는 그 노부인이나 속일 수 있을 뿐 본관이 어찌 너에게 속임을 당하겠느냐! 너는 고개를 들어 본관이 누구인지 보거라.” 주씨가 이 말을 듣고서 고개를 들어 위를 보았는데 크게 놀라 속으로 생각했다. ‘저자는 분명 어제 약을 팔러 왔던 의원인데 어찌 昌平縣승이 되었던 말이나. 어쩐지 요 며칠 마음이 어지러웠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었어. 만일 그가 다 밝혀내게 되면 그때는 어찌면 좋지?’ 마음속으로는 매우 겁을 먹었지만 바깥으로는 그런 기색을 내비치지 않고 도리어 높은 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어제 나리께서 오신건지도 모르고 무례하였습니다. 비록 제가 잘못하였지만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오니 나리께서는 淸官이신데 어찌 이 일로 화풀이하시겠어요?”

109) 『狄公案』 4회.

(狄公還未開口，只見她已先問道：“小婦人周氏叩見太爺。不知太爺有何見諭，特令公差到鎮提訊，求太爺從速判明。我乃少年孀婦，不能久跪公堂。”狄公聽了這話，已是不由不動怒，冷笑道：“你好個‘孀婦’兩字，你只能欺那老婦糊塗，本縣豈能爲你朦混！你且擡起頭來，看本縣是誰？”周氏聽說，即向上面一望——這一驚不小，心下想道：“這明是前日賣藥的郎中先生，怎麼做了這昌平知縣，怪不得我連日心慌意亂，原來出了這事。設若爲他盤出，那時如何是好？”心內雖是十分恐怕，外面卻不敢過形於色，反而高聲回道：“小婦人前日不知是太爺前來，以致出言冒犯。雖是小婦人過失，但不知不罪，太爺是個清官，豈爲這事遷怒？”)<sup>110)</sup>

주씨는 전날 방문했던 의원이 狄仁傑임을 알게 되었지만 뻔뻔하게도 관리에게 무례한 죄를 물을 수 없도록 말로 방어한다. 그러자 狄仁傑은 남편을 죽인 사실에 대해 물으며 그녀를 압박한다. 그녀는 그 말을 듣자 넋이 나간 듯 혼란스러워 하였으나 재빨리 대답하여 말했다.

“나리께서는 백성의 부모이신데 제가 어제 설사 무심코 무례를 저질렀음에도 어찌 이 작은 일을 가지고 이렇게 큰 죄명으로 모해하실 수 있습니까? 이는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일이니 나리께서는 은혜를 베푸시어 마음대로 억울한 누명을 씌우셔서 안 됩니다.” 적공이 소리치며 말했다. “본관은 네가 달변이라 증거를 가지고 너에게 보여주어도 인정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네 남편이 陰狀에 너의 죄명을 밝혀두었는데 그는 그가 죽은 후 네가 그의 딸이 커서 후에 계략이 드러나 너의 일을 망칠까 두려워 간통한 남자와 공모하여 약으로 딸을 병어리로 만들었다. 어제 본관이 직접 본 것인데 아직도 발뺌할 셈이냐? 또다시 사실대로 밝히지 않으면 본관은 형을 사용하여 고문하겠다.”

(“太爺是百姓的父母，小婦人前日實是無心冒犯，何能爲這小事，想出這罪名誣害？此乃人命攸關之事，太爺總要開恩，不能任意的冤屈呢。”狄公喝道：“本縣知你這淫婦，是個利口，不將證據還你，諒你也不肯招。你丈夫陰狀上面寫明你的罪名，他說身死之後，你恐他女兒長大，隨後露了機關，敗壞你事，因此與姦夫通同謀害，用藥將女兒藥啞。昨日本縣已親眼見着，你還有何賴？再不從實供明，本縣

110) 『狄公案』 7회.

就用刑拷問了。”)<sup>111)</sup>

이렇게 죄상이 드러났음에도 그녀는 인정치 않고 계속해서 발뺌하였다. 그러자 狄仁傑은 고문을 가하여 그녀가 시인하기를 바랐으나 그녀는 끝까지 잡아떼었고, 결국 저승의 재판정이라는 미신을 동원하여 속임수 연극을 펼쳐 그녀의 자백을 받아내었다.

『狄公案』에서 주씨의 형상은 매우 부정적이며 여러 사건 중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주씨의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狄公案』의 작가는 주씨에게 주목한 것일까? 이는 분명 당시의 여성관이 반영된 결과라 보아야 할 것이다. 중국의 전통적인 여성관은 혼인제도의 모순 등 사회제도의 문제로 인해 부정적으로 표현되어왔다. 苗懷明은 이를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첫째는 부부관계가 좋지 못하여 부인이 남편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즐거움을 찾는 경우이다. 이는 당시의 혼인풍습이 자유연애가 아닌 중매로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생겨난 일종의 사회현상이라 보아야 한다. 서로가 상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 살면서 서로에 대한 불만이 쌓여갔다. 남편의 경우 바깥으로 돌아다니며 집에 들어오지 않는 방법을 택하거나 첩실을 들이는 방법으로 이런 상황을 해결했다면, 부인의 경우는 현대의 여성들처럼 자유롭게 이혼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간통이라는 방법으로 보상할 수밖에 없던 것이다. 둘째는 남편이 장사를 하거나 벼슬을 하여 오래도록 떨어져 살게 되는 상황에서 다른 남자들이 기회를 틈타 여자가 世情에 어둡고, 고독을 잘 참지 못하며 쉽게 충동적이게 되는 심리적 특징을 이용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남성이 여성의 심리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인데, 공안소설에서 특히 많이 사용되는 제재이기도 하다. 이때 남편은 상인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셋째는 남편이 사망하여 과부가 되었는데 봉건적인 예교에 의해 재가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 장기간 홀로 고독을 견뎌야 했는데, 성욕이 들끓어 간통하는 방식으로 이를 보상하는 경우이다.<sup>112)</sup> 이 세 가지 경우 다 봉건적인 혼인제도의 모순 때문에 벌어지는 어찌 보면 안타까운 상

111) 『狄公案』 7회.

112) 苗懷明, 『中國古代公案小說史論』, 南京大學出版社, 2005, 231~232쪽.

황이기도 하다.

『狄公案』에서 묘사하고 있는 주씨 형상은 그녀가 천성적으로 성욕이 왕성하고, 성품이 좋지 않다는 개인적인 요소와 더불어 위에서 설명한 사회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王凡是 이를 ‘女性禍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女性禍水’란 중국의 고대사회에서 전해 내려온 매우 광범위한 관점이다. 제왕과 천자가 미색에 의해 나라를 망치는 일이 역사에 끊이지 않는데, 역사의 기록은 왕왕 그 죄를 여성에게 전가한다. 예를 들어 商 紂王 때의 妲己, 周 幽王 때의 褒姒, 唐 玄宗 때의 楊貴妃와 같은 이들이 미모가 재앙의 근원이 되는 전형적인 인물이라 하겠다.<sup>113)</sup> 이러한 ‘女性禍水’의 개념으로 『狄公案』의 주씨를 설명한다면 타고난 미모로 인해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그 가족을 몰락시켰으며, 결국 그녀 자신마저 죽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狄公案』의 작가는 ‘女性禍水’의 관점에서 주씨의 사건을 서술하여 주씨를 매우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으나 같이 죄를 지은 간통한 남자인 徐德泰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오히려 불쌍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점은 당시의 사회가 남성중심의 사회였음을 반영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한다. 또한 작가는 주씨의 淫行을 통해 당시의 집권자인 慈禧太后的 淫行을 풍자하고자 한 것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3) 피해자 형상

피해자는 가해자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狄公案의 전반부는 살해 사건이 대부분이어서 피해자가 모두 죽은 상태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하지만 후반부의 음승 회의를 사건은 납치된 이씨가 狄仁傑에 의해 구출된다는 점에서 앞의 두 이야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 (1) 피해자 - 상인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은 공통점이 있다. 바로 피해자가 상인이라는 점이다. 첫 번째 사건의 피해자인 비단 상인 서씨는 같이 동행하던 상인에 의해 목

113) 王凡, 「由周氏的“淫婦”形象看『狄公案』的女性觀」, 『淄博师专学报』, 2014年 1期, 70쪽.

숨을 잃는다. 범인인 邵禮懷의 말에 따르면 그가 이삼백 냥의 현금 외에도 칠팔백 냥 어치의 비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또한 두 번째 사건의 피해자인 畢順은 털실 장사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부인에 의해 목숨을 잃는다. 하지만 『狄公案』에는 이들 피해자에 대한 묘사가 거의 없다. 있다하더라도 증인에 의한 증언이나 범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할 때 잠시 언급할 따름이다. 그렇다면 어쩌서 이 상인들은 범죄의 대상이 되었던 것일까?

吳曉麗는 상인들이 사고를 당한 이유를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는 사회적 무질서로 인해 장사환경이 좋지 않았던 점, 둘째는 교통수단의 한계로 수로를 이용하다 해를 입는 경우, 셋째는 여정이 너무 멀고 길어 집에 있는 처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간통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라고 정리한 것이다.<sup>114)</sup> 이러한 분류에 따라 위의 두 사건을 적용해보면 첫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사건에 적용되고, 세 번째 이유는 두 번째 사건에 적용됨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사건의 범인인 邵禮懷는 죄를 자백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길을 가는 동안 이런 뜻이 있었으나 단지 그 기회를 만나지 못했다. 그날은 六里墩 지방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보아하니 이곳은 행인들이 적은지라 孔家客店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一路之間雖有此意，只是未逢其便。這日路過治下六里墩地方，見該處行人尚少，因此投在孔家客店。)115)

길을 떠나기 전 동행할 상인 서씨의 재물에 눈이 먼 邵禮懷는 길을 가는 도중에도 범행을 벌이려 계획하였으나 결국 이루지 못하고 행인이 적은 六里墩의 공가객점에 이르러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두 번째 사건의 피해자인 畢順 또한 상인이지만 위의 분류와는 설정이 조금 다르다. 畢順은 마을에서 털실 매장을 운영하는 상인이지만 애초에 멀리 떠난다거나 하는 설정은 보이지 않는다. 畢順의 부인이자 畢順을 죽인 범인인 주씨의 자백에는 畢順에 대한 설명이 잠시 언급된다.

114) 吳曉麗, 「명대 공안소설의 서사전략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17, 175쪽.

115) 『狄公案』 19회.



제 남편은 평소에 皇華鎮에서 털실 매장을 열었는데 제가 집에 들어오고 나서 부터 장사가 날로 점차 시들해져, 하루 종일 세끼 식사를 하면서 음식 먹는 것이 힘들었지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밤낮으로 불안해하며 이유 없이 떠들어 대는데, 저는 이로 인해 그릇된 생각이 생겨 이혼하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 고자 했습니다.

(我丈夫平日在皇華鎮上開設絨線店面，自從小婦人進門後，生意日漸淡薄，終日三餐，飲食維艱。加之婆婆日夜不安，無端吵鬧，小婦人不該因此生了邪念，想別嫁他人。)116)

畢順은 마을에서 장사를 하던 상인으로 주씨가 시집오면서부터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해 먹고살 걱정을 해야 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주씨의 불만은 커져만 갔으며, 결국 가게를 방문한 손님인 徐德泰와 간통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주씨는 이렇게 이중생활을 이어가다 어느 날 밤 畢順에게 술을 먹여 잠에 취하게 한 후 머리에 가느다란 쇠못을 찔러 죽인다. 畢順은 이후 狄仁傑이 畢順의 무덤을 찾아 헤매고 있을 때 陰魂으로 등장하여 그가 자신의 무덤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설정은 畢順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왜 작가는 상인을 피해자로 설정한 것일까? 우선 상인이란 계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인은 농업인구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이들이 종사하는 계층이다. 송대 이후 경제의 규모가 날로 커져가면서 상업 활동 또한 더욱 활성화 된다. 이로 인해 상업인구가 늘어나 상인 간의 경쟁이 심화되었는데 여기서 발생한 사건사고들이 공안소설의 주요 제재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들이 공안소설의 주요한 독자층임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통속소설 중에서도 공안소설은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장르였고, 주요 독자층인 상인들을 반영한 작품들이 많이 간행된 것이라 추측해볼 수 있다.

## (2) 피해자 - 烈婦

---

116) 『狄公案』 28회.

또 다른 피해자는 네 번째 사건의 피해자인 王毓書의 며느리인 이씨이다. 이씨의 형상은 앞에서 惡婦로 그려진 주씨나 薛懷義의 情婦인 王道婆와 반대로 정절을 지킨 烈婦로 그려지고 있다. 우선 馬榮의 말을 토대로 王道婆가 어떻게 묘사되었는지 살펴보겠다.

馬榮은 노기가 치밀어 팽하는 소리와 함께 뺨을 후려치며 큰소리로 욕했다. “이 천한 것, 내가 누구인줄 알고 감히 감언이설을 늘어놓느냐? 나는 금과 옥, 松柏과 같은 사람인데 어찌 너 같은 과리나 구더기가 좋아할 썩은 것에 비하겠나!”

(馬榮正是怒氣填胸，只聽得“光”一聲，打了一個巴掌，一個高聲罵道：“你這賤貨，當着我是誰，敢用這派花言巧語？可知我乃金玉之體，松柏之姿，怎比得你這蠅蛆 逐臭的爛物！”)<sup>117)</sup>

이부인은 薛懷義와 王道婆의 강압과 설득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절을 끝까지 지켜냈다. 다음은 狄仁傑이 이씨부인을 구하는 장면이다.

이때, 적공은 馬榮과 淨慧에게 명하여 문을 열게 하였는데, 과연 안에 매우 아름다운 여자가 있어 나이는 대략 스물 이상 되었고 진실로 沈魚落雁이요, 閉月羞花의 용모였다. 하지만 남자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욕하며 말했다. “너 이 개자식아, 또 무엇을 하려고 왔느냐! 내가 반드시 죽어서 懷義 너 이 빌어먹을 놈과 염라대왕 전에서 결판을 내겠다.” 馬榮이 말했다. “낭자,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적 대인의 명으로 이 일을 조사하러 왔습니다. 왕원의 께서 巡撫衙門에 懷義가 거짓으로 성지를 전하고 낭자를 유인하여 간통한다고 고발하였으므로 적 대인께서 성상께 상주하시어 조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欽差께서 여기에 와계시니 빨리 저를 따라 나가십시다.”

(當時狄公命馬榮同淨慧，將門開了，果見裏面一個極美的女子，年約二十以外，真乃是沉魚落雁之容，閉月羞花之貌。見有男子進去，當時罵道：“你這混帳種子，一又前來何事！我終久拚作一死，與懷義這賊禿，到閻羅殿前算帳。”馬榮

117) 『狄公案』 42회.

道：“娘子你錯認人了。我等奉狄大人之命，前來追查這事。只因王毓書在巡撫衙門控告，說懷義假傳聖旨，騙奸娘子，因此狄大人奏明聖上，前來查辦。此時欽差在此，趕快隨我出去。”<sup>118)</sup>

작가는 이씨의 외모를 沉魚落雁과 閉月羞花에 비유하며 그녀의 아름다움을 묘사했다. 하지만 반대로 정절을 지키기 위해 욕을 하는 모습을 그려 악부 주씨와 대비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방을 나와서 고개를 드니 관을 쓰고 요대를 맨 두 명의 대신이 보였는데 누가 적공인지 몰라 절하며 말했다. “저 왕이씨는 懷義, 저 간악한 승려가 거짓으로 성지를 전하여 저희 집 시아버지를 속이고 가족과 함께 절에서 향을 사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노비에게 저를 이곳에 유인하게 하고는 강제로 강간하려고 괴롭게 핍박하였습니다. 비록 저항하여 간통은 당하지 않았으나 저는 이러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도 얼굴을 들고 돌아가 부모님과 시부모님을 뵈 수 없습니다. 오늘 대인께서 오셨으니 바로 저의 결백을 밝힐 날이 되겠습니다. 죽어도 애석하지 않고, 좋은 명성만 남기렵니다.” 말을 마치고는 그 쇠기 등에 온 힘을 다해 부딪쳤다. 적공은 크게 놀라 馬榮에게 목숨을 구하게 하였으나 뇌수가 터져 한순간에 황천길로 가버렸다. 武三思와 懷義는 몸을 부르르 떨며 놀랐고, 적공 역시 탄식하며 애석함을 금치 못했다. 武三思를 향해 말했다. “이는 皇親께서 직접 보신 것이니 사람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走出房來，擡頭見兩位頂冠束帶的大臣，也不知誰是狄公，隨即隨身下拜道：“小婦人王李氏，爲懷義這奸僧假傳聖旨，騙我家公公閤家入廟燒香，將奴家騙人此處，強行苦逼，雖然抗拒，未得成奸，小婦人遭此羞辱，也無顏回去見父母翁姑。今日大人前來，正奴家清白之日。一死不惜，留得好名聲。”說罷對那根鐵柱子，拚命的碰去。早把狄公吃了一驚，趕命馬榮前去救護，誰知又是一下，腦漿並裂，一命嗚呼。把個武三思同懷義，直嚇得渾身的抖戰，狄公也是嘆惜不已，又向武三思道：“此是貴皇親親目所睹，切勿以人命爲兒戲。”<sup>119)</sup>

118) 『狄公案』 45회.

이씨는 자신이 강간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몸이 더럽혀졌다고 여겼다. 그리하여 자신의 결백을 증명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이렇듯 정절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다. 명청시기에 이르러 정절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는 점점 커져갔고, 국가차원의 정절에 대한 장려(貞節牌 등)가 시작되면서 더욱 관습화되는 상황에 이른다. 작자는 이렇게 정절을 지키고 자결한 이씨와 음란한 사생활을 보이던 慈禧太后를 대비시켜 慈禧太后의 부정함을 폭로했다고도 할 수 있다.

#### 4. 소결

이 장은 『狄公案』의 인물형상을 핵심인물인 狄仁傑의 인물형상과 나머지 부차적인 인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狄公案』 속 狄仁傑 형상은 오랜 기간에 걸친 문학적 형상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여러 이미지들을 모아놓은 총화라고 말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판관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후반부에 조정에 들어가 무씨 일당의 부정을 폭로하는 간관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반란을 진압하는 군 지휘관으로서의 모습도 보여준다. 이는 하늘을 대신하여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의 어두운 면을 공격하여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대중의 열망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狄公案』의 부차적 인물은 조력자, 가해자, 피해자로 구분할 수 있다. 조력자의 경우 狄仁傑을 따르는 네 명의 수하들과 改心한 녹림의 호걸들을 통해 작가의 협의관을 파악할 수 있었다. 가해자는 惡漢과 惡婦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악한은 주로 평민계층, 승려 그리고 지배계층 등으로 설정되어있다. 평민계층과 승려의 경우 그 형상이 매우 독특하고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면, 지배계층은 단편적으로 표현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狄公案』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 형상화한 인물은 바로 악부인 주씨이다. 주씨는 천성이 음욕이 많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

119) 『狄公案』 45회.

있다고 설정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전통적인 혼인제도라는 사회적인 모순이 함께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형성된 악부의 형상은 당시의 집권자인 慈禧太后를 풍자비판하기 위한 작가의 의도가 숨어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경우 주로 상인계층이 피해자가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이유는 당시 번성했던 경제를 뒷받침하던 상인계층 안에서 벌어진 사건들이 공안소설에 반영되었기 때문이고, 또한 공안소설의 작가들이 주요독자층인 상인계층의 이목을 끌고자 했기 때문이다. 또한 烈婦인 이씨를 통해 慈禧太后의 부정을 폭로 비판한 점은 『狄公案』의 주제의식을 더욱 부각시키는 요소가 되었다.

## V. 『狄公案』의 서사구조

### 1. 공안소설 서사구조의 특징

#### 1) 화본체의 沿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명청대의 본격적인 공안소설은 대부분 화본소설의 체제를 沿用하고 있다. 화본의 체제는 ‘題目’, ‘篇首’, ‘入話’, ‘頭回’, ‘正話’, ‘結尾’의 여섯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단계별로 역할과 서사방식이 다르다. 胡士瑩의 『話本小說概論』<sup>120)</sup>에는 각 단계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언급되어있다. 여기서는 『話本小說概論』의 내용을 정리하고, 일반적인 공안소설과 『狄公案』에 적용된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題目 : 화본소설의 제목은 正話를 근거로 확정되며 이것의 최초형태는 아마도 인명이나 별명, 사물명, 지명 등 짧은 단어로 이루어졌으리라 생각된다. 『醉翁談錄·小說開闢』에 열거된 것들이 그러한 예일 것이다. 그러나 설화인이 공연할 때 내용을 더 주목하게 하고 청중을 더 쉽게 끌어들이기 위하여 왕왕 제목을 7언이나 8언의 구 형태로 만들어 이야기 하였는데, 후에 화본을 지을 때도 이러한 예를 따라 썼다.

공안소설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으니 대표적인 공안소설인 『百家公案』을 예로 들면 대체로 7언 혹은 8언으로 된 구가 제목으로 달려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狄公案』에는 7언이나 8언으로 된 두 구가 대구를 이루는 형태를 보이는데, 이는 그 당시에 출간된 공안소설에서 흔히 나타나는 예이다.

(2) 篇首 : 소설화본은 통상 시나 사 한 수를 머리말로 삼는데, 이러한 詩詞

120) 胡士瑩, 『話本小說概論 上』, 商務印書館, 2011, 174~190쪽의 내용을 간추림.

는 ‘言語’라 칭하기도 하였으며 작가가 직접 짓거나 古人の 것을 인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篇首는 주제를 밝히고, 전편의 대의를 개괄하며, 또는 의경을 조성한 다거나 특정한 정서를 두드러지게 하고, 혹은 감탄을 토로하거나 정면 또는 반면으로 이야기의 내용을 돋보이게 하는 등의 작용을 한다.

공안소설에서 篇首는 단편이나 장편이나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百家公案』은 각 회의 첫머리에 “斷云”으로 시작하여 7언 4구의 시가 제시된다. 『百家公案』은 단편작품집으로 각 회마다 다루는 사건이 달라지기에 편수를 달리 넣지만, 장편의 경우 사건이 몇 회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으므로 편수를 삽입하는 것이 애매하다. 그러므로 『狄公案』은 1회의 첫머리에 “詩曰”로 시작하는 7언 율시가 편수로 삽입되어있다.

(3) 入話 : 篇首의 詩詞 뒤에 해석을 가하고 이후에 正話로 끌어들이는 것을 入話라 한다. 입화라는 단어는 송대 문헌에는 보이지 않으며 명대 사람들이 사용한 말이라 생각되는데 『청평산당화본』에서 처음 보이기 때문이다. 화본에는 어째서 입화가 있는 것일까? 이는 설화인이 화본을 가지고 먹고살았기 때문이다. 설화인의 입장에서 청중이 모일 때 당연히 많이 모일수록 좋은 것이다. 그들은 길거리에서든지 공연장에서든지 이야기를 할 때 약간의 시간을 지연시킨다. 설화인들은 이를 통해 더 많은 관객이 모일 수 있게 하며 또한 이미 온 청중들을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입화임에도 불구하고 공안소설은 화본소설의 구색을 맞추기 위한 정도로만 쓰였다. 보통의 화본소설과 비교했을 때 그 분량과 내용면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 『狄公案』의 경우도 1회에 한 번 제시되고 있을 뿐이다.

(4) 頭回 : 頭回는 편수와 입화 뒤에 삽입된 정화와 비슷하거나 상반된 이야기를 서술한 부분을 말한다. 頭回는 입화와 위치와 쓰임 면에서 유사한 성격을 띤다. 하지만 入話가 篇首의 詩詞와 관련이 있고, 해석의 성격이 강한데 반해 頭回는 이야기의 성격을 띠고 正話의 내용을 돋보이게 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공안소설에서 頭回는 入話와 마찬가지로 찾아보기 어렵다.

(5) 正話 : 본격적인 이야기 부분으로 “正話” 혹은 “正傳”으로 불린다. 체제 측면에서 볼 때, 정화는 산문과 운문 두 갈래로 나뉘며 각각의 독특한 작용이 있다. 散文은 당시의 口語로 강술하는 용으로 쓰인다. 주로 이야기를 서술하거나 인물형상을 塑造하는 작용을 하며 인물의 목소리나 웃는 모습, 동작이나 심리를 묘사하는데 유리하다. 반면 韻文은 念誦하거나 講唱할 때 사용한다. 운문은 주로 환경, 복식, 용모 등의 세세한 것을 묘사하거나 주요행동의 상세한 정보를 드러내는 작용을 한다. 또한 산문서술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여 예술형상의 감염력을 더해준다.

공안소설에서 正話는 사건의 발생으로부터 조사, 해결과정, 판결까지의 모든 것을 다루는 부분이다. 명대의 백화공안단편집, 특히 『百家公案』의 경우 내용이 너무 길어 分回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한 회 안에 사건의 모든 부분이 서술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狄公案』은 장편이므로 사건이 한 회에 다 마무리되지 않으며 또한 1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정화에 앞서 서술되는 편수, 입화, 두 회 등이 삽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모든 부분이 정화라 봐도 무방할 것이다.

(6) 結尾 : 화본에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결말이 존재한다. 이야기의 마무리는 줄거리 발전의 필연적 결과이며 주요 이야기에서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구성요소이다. 하지만 화본에서 결미는 이야기의 마무리와는 다른 성격의 글인데, 이야기가 끝이 나고 직접 설화인(혹은 작가)이 등장하여 전편의 대의를 총결하고 청중에게 권계하는 부분이라 하겠다. 주로 시사로 표현되거나 먼저 백화로 평론을 하고 거기에 시사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공안소설에서 결미부분은 사건이 하나 마무리되면 끝으로 결미부분에서 사건에 대한 평이나 권계의 말을 넣는다. 하지만 『狄公案』은 결말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사건이 단편적이지 않아 마무리가 일괄적이지 않기 때문이라 추측된다.

공안소설에는 화본의 체제와 더불어 화본의 서사장치 또한 자주 쓰인다. “正是”, “但見”, “生得”, “端的是”나 “有詩爲證”, “常言道”, “古人云”과 같은 단어를



예로 들 수 있다. 사실 이러한 단어들은 화본의 전지적 시점을 드러내는 요소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작가가 작품 속 이야기에 개입하기 위한 장치라는 말이다. 공안소설에서도 빈번하게 쓰이며 『狄公案』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狄公案』에는 ‘話說’ 혹은 ‘却說’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 ‘話說’은 이야기가 시작한다는 표시고, ‘却說’은 ‘且說’과 같이 쓰이며 화제를 전환할 때 쓰인다. 『狄公案』 전문에서 ‘話說’은 4회, ‘却說’은 61회 등장한다. ‘正是’는 우리말의 ‘바로’와 같은 것으로 별다른 의미가 없는 설화인의 습관적인 말이다. 『狄公案』의 경우 대화중에 쓰인 예를 제외하고 37번 사용되었다. 이 밖에도 ‘但見’ ‘生得’ 등의 단어도 자주 쓰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각 회 마지막 부분에서 다음 회로 넘어간다는 표시로 ‘且看下回分解’라는 말을 사용한다. 요즘 방송에서 나오는 “채널 고정”이나 “다음 이 시간에”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 이해하면 되겠다.

『狄公案』에서 작가가 작품에 직접 개입하여 상황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예는 두 번째 사건인 皇華鎮 淫婦 남편 살해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독자 여러분은 閻王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진짜 地獄이었을까요? 바로 적공이 이번 사건의 審理에서 自白을 받지 못하고 형을 가해도 결국 吐說하지 않은 까닭에 이러한 계책을 생각해 낸 것입니다. 馬榮에게 명하여 각 아전들 중 畢順(피해자)과 닮은 이를 찾아 죽은 귀신으로 변장하게 하였습니다. 馬榮은 판관으로, 喬泰와 洪亮은 소머리에 말 얼굴을 한 귀신으로, 陶干과 다른 아전들은 陰差(저승의 아전)으로 변장하였습니다. 나머지 그 칼산과 기름 술은 모두 종이로 만든 것이었지요. 적공은 위에서 검은 재를 얼굴에 발라 검게 하였고, 한밤중인 三更에는 달빛이 없고 위에는 아무런 등불도 없이 오직 한 쌍의 녹색 초만 켜놓았으니 이러한 처참한 모습이 어찌 地獄과 닮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적공은 자백을 얻고서 마음이 매우 기뻐하며 後堂으로 들어가 다음 날 다시 심문을 하기로 합니다.

(看官你道這閻王是誰人做的，真是個陰曹地府麼？乃是狄公因這案件審不出口供，難再用刑，無奈驗不出傷痕，終是不能定讞，以故想出這條計來，命馬榮在各差裏面，找了一人有點與畢順相同，便令他裝作死鬼畢順。馬榮裝了判官，喬泰同

洪亮裝了牛頭馬面，陶干同值日差，裝了陰差，其餘那些刀山油鋼，皆是紙紮而成。狄公在上面，又用黑煙將臉塗黑，半夜三更，又無月色，上面又別無燈光，只有一點綠豆似的蠟燭，那種淒慘的樣子，豈不像個陰曹地府麼？此時狄公既得了口供，心下甚是歡悅，當時退入後堂，以便明日復審。)121)

위의 예는 음부 주씨가 계속되는 심문에도 죄를 시인하지 않자 최후의 방법으로 거짓으로 저승의 재판정을 꾸며 그녀가 죄를 인정하게 만드는 대목 이후에 서술된 내용이다. 여기서 작가는 직접 전면에 등장하여 이것이 주씨를 속이기 위한 연극임과 속이는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장치는 무엇 때문에 사용되는 것일까? 화본은 기본적으로 설화인의 대본이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글이다. 그렇기 때문에 화본에서 설화인의 어투나 말하는 습관 등이 글 속에서 잘 드러나는 것이다. 공안소설에서 화본의 서사장치들이 활용되는 것은 공안소설이 백화문학적인 전통을 잇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적시에 설화인이 등장하여 분위기를 전환하고 이야기에 생동감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 2) 공안소설의 서사구조 양상

어떠한 문학작품이든 일정한 구조적 기초 위에서 만들어지는 법이다. 특히 공안소설의 경우 위진남북조 이래로 수많은 소설 양식이 계승, 발전되어 오면서 공안소설만의 독특한 서사구조를 형성하였다. 전통적인 전지적 시점에 따른 單線的인 서사구조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공안소설 속에서 범죄사실, 사건조사과정, 심리와 판결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현된다. 고숙희는 그의 논문에서122) 이를 범죄스토리과 추리스토리의 두 범주로 나누기도 하였다. 공안소설은 공안의 본래 의미처럼 사건에 대한 기록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역대의 공안을 소재로 한 작품들은 공안소설의 전형적인 서사구조에서 벗어나기 어

121) 『狄公案』 28회.

122) 고숙희, 「包公 公案小説 研究 : 『百家公案』과 『龍圖公案』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2003.

려왔다. 하지만 몇몇 작품에서 이러한 천편일률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약간의 변형을 이룬 경우가 있는데 張晨의 논문<sup>123)</sup>에는 공안소설의 서사구조를 네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框架式 구조, 螺旋式 구조, 多層套盒式 구조, 圓形式 구조가 바로 그것이다. 張晨의 논문을 통해 공안소설의 특징적인 서사구조를 파악해 보도록 하자.

框架式 구조는 문자 그대로 틀, 골조의 형태로 짜여진 서사구조를 말한다. 『廉明公案』, 『百家公案』, 『新民公案』 등이 이 형태의 작품이다. 이 작품들은 공안을 제재로 한 화본소설에 비해 서사구조가 더욱 정교해지고 안정하다 평가받는데, 그 이유는 이 시기의 공안작품들이 話本體에서 書判體로 문체의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書判體란 명대단편공안전집에 다수 나타나는 문체로 공안을 제재로 하는 작품 중 본격적인 "공안소설"이라 불릴 수 있는 작품들은 대개 書判體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書判體는 주로 訴狀과 判詞로 이루어졌으며 공안의 본래 의미에 충실하여 당시의 표준 공문서 양식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오히려 소설이라기보다는 재판기록집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書判體의 사용은 서사구조 측면에서 공안소설의 서사구조를 정립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나 예술적 측면에서 화본체 작품들을 따라갈 수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따라서 書判體의 영향을 받은 框架式 서사구조는 공안소설의 서사를 보다 완성도 있게 하였다고 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반대급부로 書判體의 천편일률적인 구조가 창작역량의 퇴보를 가져왔음도 자명한 사실이다. 예를 들어 앞서 어떠한 작가가 書判體의 框架式 서사구조를 이용하여 작품을 완성하였다면 그 다음 작가는 앞서 작품을 완성한 작가의 작품을 기초로 몇 가지만 수정하여 완성하여도 또 하나의 공안소설작품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풍조로 인해 공안소설이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둘째, 나선식 구조의 경우 매우 특수한 서사구조로 화본체의 공안소설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簡帖和尚』이나 『錯斬崔寧』과 같은 작품이다. 화본이란 설화인이 공연하는 대본으로 설화인은 청중을 사로잡기 위해 이야기의 전반부에 수수께끼와 같은 장치를 만들고, 후반부에 이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공연을

123) 張晨, 「中國古代白話公案小說的敘事特徵」, 天津師範大學 석사논문, 2011.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설화인은 사건의 단서나 진상을 층층이 숨겨두고 후반부에 이르러 사건을 해결하는 관리가 등장하여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는데 이러한 나선형의 순환식 구조는 청중(독자)들로 하여금 눈앞에서 보는 듯한 현실감을 선사하며 흥미를 유발한다.

셋째, 多層套合式 구조는 러시아의 전통인형인 마트료시카(Matryoshka)가 인형 안에 작은 인형이 차례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차례로 들어가 있는 구조를 의미한다. 어떠한 주요 이야기가 또 다른 이야기나 몇 개의 파생된 이야기들을 낳고, 큰 이야기가 작은 이야기를 덧씌우고 작은 이야기는 더 작은 이야기를 덧씌우는 형태인 것이다. 화본을 예로 든다면 篇首와 入話, 頭回는 각각의 독립된 작은 이야기 부분으로 소설의 시작부분이라는 큰 이야기의 요소가 된다. 정화부분에서 이러한 多層套合式 구조가 쓰이는 경우는 연쇄식으로 구성된다. 어떠한 이야기가 진행되는 와중에 또 다른 이야기가 삽입되고, 거기에 또 다른 이야기가 삽입되는 구조인 것이다. 서사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 기존의 단선구조가 복선구조처럼 변주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多層套合式 구조는 작가의 입장에서 서사의 운용에 더 많은 경우의 수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독자들이 끝까지 흥미를 잃지 않고 작품에 빠져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정리하겠다.

마지막으로 원형식 구조는 불교의 인과응보설이 문학으로 개입되어 서사구조에 영향을 끼친 것이라 보아야 한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평형의 상태에서 사건의 발생과 더불어 그 평형은 깨어진다. 여러 사건이 발생하여도 최종적으로는 피해자는 보상받고, 범죄자는 징벌을 받으면서 다시금 평형을 찾는 것으로 작품의 처음과 끝이 상통하는 서사구조이다.

원형식 구조의 경우 문제가 시작되면서 증상이 형성되고 교착상태에 빠지기는 하지만 결국 원만하게 해결된다. 이 과정에서 오해와 우연 등이 거듭되고, 더 이상 어떠한 방법으로도 난국을 타개할 수 없을 때, 지혜로운 명판관이 출현하여 진범을 찾아내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다. 이러한 서사구조는 독자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교화와 권선의 주제를 받아들이게 하는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네 가지 서사구조는 공안소설 중에서도 단편공안소설에 많이 사용되었다.

청대 장편공안소설에는 이러한 구조들이 복합적으로 구사되어 있어 명대의 단편 공안전집에 비해 더 발전한 모습을 보인다. 공안소설의 서사구조는 그동안 중국 고대소설에서 보았듯 典範化되는 경향이 있다. 천편일률적인 서사 속에서 작가는 여러 가지 서사양식을 결합, 변주하며 운용의 묘를 살린다. 이를 통해 독자는 보다 더 흥미를 느끼고 이에 따라 공안소설에 대한 독자들의 수요 또한 증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2. 『狄公案』의 서사구조

### 1) 『狄公案』 서사구조 도식

공안소설의 서사구조는 범죄사건의 기록이라는 원래의 의미처럼 보고서와 같은 형식으로 정형화된 형태이다. '사건의 발생 - 사건의 認知 - 사건의 해결과정 - 판결'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狄公案』은 사건의 발생부분이 생략되어있으므로 '사건의 인지 - 사건의 조사과정 - 사건의 심문과정 - 판결'로 구성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부터는 전통적인 공안소설의 서사구조 전개에 따라 『狄公案』의 줄거리를 도식화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狄公案』의 줄거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狄公案』만의 서사특징을 찾아보고자 한다.

『狄公案』은 일명 『武則天四大奇案』으로 불리는데 武則天 시대에 벌어진 네 가지 기이한 사건의 기록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네 가지 사건이란 첫째, 六里墩에서 일어난 비단 상인 피살사건, 둘째, 皇華鎮의 周氏가 남편을 해한 사건, 셋째, 화문준 처 急死 사건, 마지막으로 白馬寺의 淫僧이 寺院을 더럽히고 民婦를 劫奪한 사건이다. 이외에도 여러 에피소드가 있으나 이는 공안사건으로 분류하기에 애로점이 있어 위의 네 사건을 중심으로 서술하겠다.

위의 네 사건을 도식화하여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5-1 : 첫 번째 사건 - 六里墩 비단상인 살해사건>

전개과정	회수	이야기의 진행 과정
사건 인지	1	객점주인 孔萬德의 고변
사건 조사	2, 3, 11, 12, 13, 14, 15, 18	피해자 검시(시체 중 하나가 다른 사람임을 발견함) → 사건 현장에서 사라진 비단이 雙土寨로 흘러들어간 것을 확인 → 狄仁傑이 비단상인으로 변장하여 정탐 → 녹림출신 趙萬全과 蔣忠의 도움으로 邵禮懷 체포
사건 심문	18, 19	孔萬德과의 대질심문 → 고문 → 자백
사건 판결	30	斬首刑

<표5-2 : 두 번째 사건 - 皇華鎮 淫婦 남편 살해사건>

전개과정	회수	이야기의 진행 과정
사건 인지	4, 5	六里墩 사건 조사 중 狄仁傑의 미복 정탐 중 노부인을 진찰함 → 노부인과의 대화에서 노부인의 아들 畢順이 급사하였다는 것에 의문을 품음 → 畢順의 무덤을 찾던 중 검은 기운이 일어나 어느 무덤 앞에 머무름 → 이에 畢順이 억울함을 품고 죽었음을 인지
사건 조사	6, 7, 8, 9, 10, 11, 12, 15, 22, 23, 24, 25, 26	狄仁傑은 직관으로 아내 주씨가 畢順을 살해하였으리라 단정 → 狄仁傑이 거짓으로 畢順이 저승에서 고발하였다고 하며 아내 주씨를 심문 → 완강히 저항 → 검시하였으나 아무런 소득이 없음 → 일부러 풀어주고 감시 → 출입의 흔적은 없으나 남성의 소리를 들음 → 조사 끝에 徐德泰라는 인물을 찾음 → 徐德泰의 집을 수색 중 주씨의 집과 연결된 비밀통로 발견
사건 심문	27, 28, 29	徐德泰는 자백하였으나 주씨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아 고문함 → 고문하였음에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음 → 저승의 법정을 꾸며 속임수 연극을 시행 → 주씨가 죄를 인정하고 자백함
사건 판결	30	주씨 : 凌遲刑, 徐德泰 : 絞刑

<표5-3 : 세 번째 사건 - 華文俊 妻 急死사건>

전개과정	회수	이야기의 진행 과정
사건 인지	19	첫 번째 사건의 범인 심문이 끝난 후, 중년부인인 왕씨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함. 시아버지인 華國祥과 용의자로 지목된 胡作賓도 함께 옴.
사건 조사	20, 21, 22, 23	胡作賓이 계속 부인하자 옥에 가두고 현장 검증함 → 검시하였으나 의문이 증폭 → 사건조사가 진척이 없어 답답해 함 → 우연히 하인이 올린 차에 먼지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사건의 단서를 알아냄 → 사건현장에서 사건 당일의 행적 재현 → 방안에서 찻물을 끓이는 도중에 기둥 위에서 뱀 한 마리가 출현 → 뱀의 입에서 흐른 독이 찻물에 떨어지는 것을 확인 → 이로 인해 華文俊의 처 여고가 사망했음을 확정함
사건 심문		
사건 판결	24	뱀을 잡아 태워 죽임

<표5-4 : 네 번째 사건 - 淫僧 懷義의 민녀납치사건>

전개과정	회수	이야기의 진행 과정
사건 인지	40, 41, 42, 43	조정대신 元行沖과의 대화에서 승려 懷義가 궁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함 - 馬榮, 喬泰에게 승려 회의를 있는 白馬寺를 조사할 것을 지시 - 백마사 산문을 지키는 전 주지 淨慧로부터 승려 懷義가 평소 부녀자를 간음한다는 제보를 받음 - 당시 王員外의 며느리가 납치되어 있음을 확인 - 狄仁傑에게 보고 → 狄仁傑이 馬榮과 喬泰에게 다시 백마사로 가서 지시대로 처리할 것을 명함 - 다른 한 편으로는 陶干에게 명하여 왕원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고발할 것을 청함 → 다음날 왕원외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 억울함을 호소
사건 조사	43, 44, 45	馬榮과 喬泰는 승려 懷義와 함께 악한 일을 하던 王道婆와 젊은 여승에게서 정보를 얻고서 그들을 죽이고 狄仁傑에게 보고 → 狄仁傑이 武則天에게 상주하여 승려 懷義를 조사하게 해줄 것을 청함

		→ 武則天은 어쩔 수 없이 동의하였으나 武三思로 하여금 방해토록 함 → 武三思와 승려 懷義가 만나고 있을 때 狄仁傑이 그 장면을 포착하고 武三思에게 같이 조사할 것을 청함 → 武三思는 武則天의 명대로 산문을 지키던 전 주지 淨慧에게 혐의를 씌우려 하였으나 淨慧가 懷義의 죄와 함께 그의 암실이 있는 위치를 밝힘 → 그곳에서 王員外의 며느리 이씨를 발견 → 이씨는 강간당하지는 않았으나 스스로 목숨을 끊음
사건 심문	45, 46, 47, 48	승려 懷義를 체포하여 압송한 후 형을 가함 → 懷義가 형을 이기지 못하고 부녀자를 납치 강간한 사실을 인정함 → 狄仁傑은 이를 武則天에게 보고함 → 武則天은 이를 刑部에서 처리할 것을 명함 → 刑部尙書 武承業은 武則天의 조카로 武則天이 총애하는 懷義를 죽이지 않고 몰래 풀어주려 함 → 王員外와 그가 이끄는 백성들이 막아서고 이에 굴복한 武承業은 狄仁傑과 함께 사건을 심리함
사건 판결	48	武承業은 懷義가 스스로 죄를 인정하자 어쩔 수 없이 사형을 선고하고 옥에 가둠

## 2) 『狄公案』 서사요소의 전개 양상

위의 서사구조 도식에 따라 지금부터는 각 서사요소가 작품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狄公案』의 내용을 통해 예증해보도록 하겠다. 우선 소설의 도입부 부분이다.

### (1) 소설의 도입부 양상

『狄公案』 1회는 소설의 도입부로 편수의 7언 율시로부터 입화부분에 이르기까지 잘 짜인 구성을 보여준다. 아울러 주인공인 狄仁傑과 그를 따르는 4명의 수하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는 여타의 공안소설과 비슷한 양상이다. 아래는 狄仁傑에 대한 소개부분이다.



각설하고 이 책은 唐朝 中宗연간에 나왔으니, 이때는 武后가 조정에 임하여 사방에 일이 많았다. 당시 조정에는 한 명의 대신이 있었으니, 성은 狄이요, 이름은 仁傑이며, 호는 德英이라. 山西 太原縣 사람이다. 이 사람은 매우 강직하며 충심으로 나라를 위하였는데 侍郎平章事 직에 머물렀다. 이때의 조정의 신하들인 姚崇과 張柬之 등은 모두 그가 추천한 이들이었다. 武三思가 조정의 기강을 어지럽히고 태후가 중종을 폐하여 그(武三思)를 후계로 삼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狄仁傑은 태후의 노여움을 사면서도 격렬히 논쟁하면서 상주문을 바쳐 말하길 ... 이에 비로소 크게 깨달아 武三思를 후계로 삼을 생각을 버렸다. ... 이 모든 일생의 사적은 당조 이래로 사람들이 탄복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話說這部書，出自唐朝中宗年間，其時武后臨朝，四方多事。當朝有一位大臣，姓狄名人傑，號德英，山西太原縣人。其人耿直非常，忠心保國，身居侍郎平章之職，一時在朝諸臣，如姚崇、張柬之等人，皆是他所薦。只因武三思倡亂朝綱，太后欲廢中宗立他爲嗣，狄仁傑犯顏立爭，奏上一本，說 ... 因此才恍然大悟，除了這個念頭，... 此皆一生的事節，由唐朝以來，無不人人敬服。)<sup>124)</sup>

狄仁傑의 이러한 정치활동은 『舊唐書』 등 史書에 자세히 기록되어있으며, 또한 이 이야기는 위에서 언급하였듯 宋代에 『梁公九諫』이라는 화본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도입부의 이러한 서술은 주인공인 狄仁傑의 사적을 통해 간략하게나마 그의 일생을 정리하고, 책의 후반부에 武三思 등의 무씨 세력과 격렬한 정치투쟁을 벌일 것을 예고하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다음 부분은 狄仁傑이 전반부의 세 사건을 해결하는 昌平縣으로 부임하는 장면으로 또한 1회의 내용이다.

并州官府에 그의 文名이 퍼지니 明經科에 합격하자 汴州參軍에 임명되었고 승진하여 并州法曹에 제수되었다. 조정에서는 그가 관직에 임함이 청렴강직하니 그를 昌平令으로 직위를 바꾸었다. 부임한 이래로 지역을 위해 나쁜 무리를 제거하고 양민을 안정시켰으며 소송을 깨끗이 처리하였다.

124) 『狄公案』 1회.

(并州官府，聞了他的文名，先舉了明經，後調爲汴州參軍，又升授并州法曹。那朝廷因他居官清正，就遷他爲昌平令尹。到任來，爲地方上除暴安良，清理詞訟，自是他的餘事。)125)

이렇게 昌平令尹이 된 狄仁傑은 이곳에서 세 가지 奇案을 해결하게 된다. 이것이 『狄公案』 30회까지의 내용이 되겠다. 狄仁傑의 사건해결능력에 관해 앞서 『舊唐書』의 내용을 언급한 바가 있다. 그의 이러한 전무후무한 사건해결능력은 그가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이유이자, 『狄公案』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 중 하나일 것이다.

## (2) 사건의 발생과 전개

대부분의 공안소설에는 사건의 발생과 동시에 범인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범인이 먼저 드러난 상태에서 추리와 판결을 접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독자의 흥미를 저해하게 된다. 하지만 『狄公案』은 대부분의 사건에서 범인이 감추어져 있다. 발단 부분에서 범인은 드러나지 않고 단지 범행의 결과만이 제시되고 범인과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은 결말부분(혹은 전개부분)에 가서야 밝혀지게 된다.<sup>126)</sup> 예를 들어 1회에서 첫 번째 사건의 신고자인 孔萬德의 말에서 비단상인 두 사람이 죽었다는 사건의 결과가 제시된다. 하지만 범인이나 범행방법 등의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이렇듯 사건의 전개에 대한 제한적인 정보제공은 청대 공안소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흥수에 의한 사건의 발생이라는 직접적인 서술의 시작이 아닌 도치수법의 운용이라는 매우 드문 수단으로 서사기교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돌파’라 이야기 할 수 있다.<sup>127)</sup>

또한 사건의 발생이 한 사건이 매듭지어진 후 다른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아무런 인과관계도 없는 또 다른 사건이 시간차를 두고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125) 『狄公案』 1회.

126) 강주완, 「『百家公案』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03. 154쪽.

127) 安莉莉, 「試論中西『狄公案』的不同敘事視覺」, 『泉州師範學院學報』, 2006年 1期. 129쪽.

예를 들자면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은 狄仁傑이 첫 번째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약을 파는 의원으로 변복하여 길을 다니다 우연히 두 번째 사건을 접하게 되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또한 첫 번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邵禮懷를 심문하는 와중에 세 번째 사건을 고하기 위해 華國祥과 며느리인 여고의 어머니 이씨가 등장하는 것으로 볼 때 이 세 사건의 발생시점이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음을 뜻한다. 孟犁野는 이에 대해 “하나의 사건이 끝나기 전에 잠시 멈추어서 서스펜스를 형성하고 다른 새로운 사건을 발생시켜 적당한 곳에서 다시 그 전 사건을 이어가면서 독자들을 매료시킨다.”<sup>128)</sup>고 평했다.

### (3) 사건 발생의 인식

범죄 사건의 해결과정의 시작은 왕왕 사건을 해결하는 이가 범죄사건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sup>129)</sup> 이는 주로 소송이 제기되거나 혹은 초자연적인 존재가 등장하여 고변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는 訴狀이 제출되거나 관아 앞의 북을 울리는 경우 등이 있는데 아래는 첫 번째 사건의 신고상황이다.

하루는, 마침 후당에서 공무를 보고 있는데 홀연히 대청에서 어떤 사람이 북을 치는 소리가 들리자 사건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어 재빨리 의관을 갖추고 법정에 올랐다. 兩班의 差役들이 堂下에 모여 있는데 사오십 세 되어 보이는 백성이 얼굴빛은 창백하고 땀을 줄줄 흘리며 법정에 서서 쉬지 않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狄仁傑은 差役에게 그를 데리고 오라고 명하였고 그가 앞에 꿇어앉자 물었다. “너는 이름이 무엇인가? 무슨 억울함이 있기에 기다렸다가 고소하지 않고 이 시간에 북을 울리니 무엇 때문이냐?” 그 사람이 말했다. “소인은 성이 공씨요, 이름은 만덕으로 昌平縣 남문 밖 六里墩에 살고 있습니다. 집에 방이 여러 칸이 있는데 사람은 적고 방은 많아 객점을 열게 되었지요. 수십 년 동안 편안하게 아무 일이 없었는데 어제 저녁 쯤 두 명의 비단을 파는 손

128) 孟犁野, 『中國公案小說藝術發展史』, 警官教育出版社, 1996. 160쪽.

129) 강주완, 『『百家公案』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03. 166쪽.

님이 왔습니다. 그들은 호주 사람으로 바깥으로 물건을 팔러 가다 이곳을 지나게 되었는데 날이 어두워져 객점에서 묵으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소인이 보기에 길을 가는 손님이어서 그때 그들을 묵게 하였지요. 저녁동안에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여러 사람이 다 압니다. 오늘 아침 날이 밝아올 무렵 그 둘은 자리에서 일어나 떠났습니다. 진시 쯤 되어 갑자기 地甲(保長)인 胡德이 와서 알려주기를 ‘마을 입구에 두 구의 살해당한 시신이 있는데 바로 너희 집에 투숙했던 손님들이었다. 틀림없이 네놈이 재물을 탐내어 사람을 해치고서 그 시신을 마을 입구에 버려두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자 한 것이겠지.’라고 하며 제가 변명도 못하게 하고는 두 시신을 소인의 집 문 앞에 두고 큰 소리로 겁주며 은 오백 냥을 내놓으면 이 일을 덮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자 ‘이 두 사람은 네 집에서 나갔는데 어째서 마을에서 사건이 난단 말이나? 이는 네놈이 시체를 옮겨 흔적을 없애려 한 것이 아니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소인은 사정이 급하여 나리께 억울함을 풀어 주십사 청하러 왔습니다.”

(這一日正在後堂，看那些往來的公事，忽聽大堂上面，有人擊鼓，知道是出了案件，趕著穿了冠帶，升坐公堂。兩班皂吏齊集在下面。只見有個四五十歲的百姓，形色倉皇，汗流滿面，在那堂口不住的呼冤。狄人傑隨令差人把他帶上，在案前跪下，問道：“你這人姓甚名誰，有何冤抑，不等堂期控告，此時擊鼓何爲耶？”那人道：“小人姓孔，名叫萬德，就在昌平縣南門外六里墩居住。家有數間房屋，只因人少房多，故此開了客店，數十年來，安然無事。昨日向晚時節，有兩個販絲的客人，說是湖州人氏，因在外路辦貨，路過此地，因天色將晚，要在這店中住宿。小人見是路過的客人，當時就將他住下。晚間飲酒談笑，眾人皆知。今早天色將明，他兩就起身而去，到了辰牌時分，忽然地甲胡德前來報信，說：‘鎮口有兩個屍首，殺死地下，乃是你家投店的客人，准是你圖財害命，將他治死，把屍首拖在鎮口，貽害別人。’不容小人分辯，復將這兩個屍骸，拖到小人家門前，大言恐嚇，令我出五百銀兩，方肯遮掩此事。‘不然這兩人，是由你店中出去，何以就在這鎮上出了奇案？這不是你移屍滅跡！’因此小人情急，特來求大老爺伸冤。”)130)

130) 『狄公案』 1회.

六里墩에서 객점을 운영하는 孔萬德이 자신의 객점에 묵었다가 떠난 두 상인들이 피살당한 사건을 신고하는 예를 볼 수 있다. 특이한 점은 단순한 피살 사건 신고가 아닌 그 곳의 地甲(保長)인 胡德에게 모함을 당하고 이를 덮는 조건으로 500냥을 요구하는 일종의 협박사건이 같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소설은 이를 통해 범인 대 피해자라는 대립구도에서 힘 있는 이에게 협박당하는 백성의 안타까운 상황을 부가하여 당대 사회를 풍자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낸다. 그리하여 狄仁傑은 사건을 조사하기에 앞서 地甲인 胡德에게 장 200대의 형벌을 내리며 孔萬德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지역 사람들의 경탄을 샀다. 아래는 두 번째 예로 초자연적인 존재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이다.

이때는 이미 정오가 되었는데 홀연히 어두침침하지더니 땅에서 광풍이 일더니 모래 먼지를 한 장이나 불어 올렸는데 그 속에서 검은 덩어리가 엉기더니 곧장 적공 앞으로 달려들었다. 洪亮이 이 광경을 보고 기겁하여 얼굴이 흙빛이 되고 온 몸의 솜털이 곳곳하게 일어난 채로 적공의 뒤에 바짝 다가섰다. 적공은 검은 덩어리가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 말했다. “나는 그대가 억울한 것을 알지만 황폐한 무덤이 너무 많아 그대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찌 알 수 있겠는가? 여기서부터 길을 안내해주게!” 말을 마치자 음산한 바람이 솔솔 불어 점점 더 멀리 날아가더니 몇 개의 작은 길을 지나 멀리 고분 앞에 이르러 갑자기 보이지 않았다. 적공과 洪亮이 무덤 앞에서 사면을 둘러보니 갓 장례를 치룬 형상은 아니었으나 그리 오래되지 않은 무덤이었다. 적공이 말했다. “이렇게 귀신이 모습을 드러내었으니 너는 이곳의 마을 사람을 찾아 이 무덤이 필가가 묻힌 것이 맞는지 물어보아라. 내 여기서 너를 기다리마.”

(此時已是午正時候，忽然日光慘淡，當地起了一陣狂風，將沙灰刮起，有一丈高下，當中凝結一個黑團，直向狄公面前撲來。洪亮見了這光景已嚇得面如土色，渾身的汗毛豎立起來，緊緊地站在狄公後面。狄公見黑團子飛起，又說道：“狄某雖知你的冤抑，但這荒塚如雲，豈能知你屍骸所在，還不就此在前引路！”說畢，只見陰風瑟瑟，漸飛漸遠，過了幾條小路，遠遠見有個孤墳堆在前面，那風吹到彼處，忽然不見。狄公與洪亮也就到了墳前，四面細望，雖不是新葬的形象，卻非多年的舊墓。狄公道：“既是如此顯靈，你且前去，找個當地鄉民，問這墳墓究竟是

否畢家所葬，我且在此等你。”)<sup>131)</sup>

위의 예는 두 번째 사건인 周氏가 그의 남편 畢順을 살해한 사건 중의 한 장면이다. 狄仁傑이 사건을 조사하던 중 한낮에 갑자기 광풍이 불며 검은 덩어리가 나타난다. 공안소설에는 흔히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이 등장하여 관관으로 하여금 억울한 일이 일어났음을 감지하게 한다. 『狄公案』은 두 번째 사건의 피해자인 주씨의 남편 畢順의 원혼을 이러한 기현상을 일으키고 결국 숨겨진 그의 시체를 찾게 하는 소설적 장치로 이용하고 있다.

#### (4) 사건의 해결과정과 방식

범죄발생을 인지한 관관은 그만의 방식으로 주변을 탐색하고 관련인물을 조사하는 등의 행위로 사건을 해결해나간다. 이러한 과정들은 크게 현실적인 수사기법과 초월적인 능력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sup>132)</sup> 이는 독자의 관심을 끌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되어 ‘사건 발생 - 사건 조사 - 판결’이라는 단순한 서사구조를 보다 입체적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사건에 대한 판결기록이라는 공안의 원 의미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기에 사건의 해결과정과 방식은 공안소설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狄公案』에도 이에 대한 다양한 서술이 등장하는데 현실적인 수사기법과 초월적인 요소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 ① 현실적인 수사기법

현실적인 수사기법에는 檢屍, 현장검증, 함정수사, 현상수배, 탐문수사 등을 통한 증거의 확보를 들 수 있다.<sup>133)</sup> 수사기법에 따른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31) 『狄公案』 5회.

132) 黃巖柏의 『中國公案小說史』는 사건해결과정을 ‘人判’과 ‘神判’으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본 논문은 黃巖柏의 분류에 따라 ‘人判’을 현실적인 수사기법으로, ‘神判’을 초월적 능력으로 해석하고 있다.

133) 강주완, 『『百家公案』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03. 183쪽.

㉠ 검시 : 검시란 시신을 살펴 사람의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것인가를 판명하기 위한 조사과정이다. 공안소설에는 이러한 검시의 과정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狄公案』을 예로 설명해보겠다. 우선 첫 번째 사건인 욱리돈 사건에서 狄仁傑은 두 명의 비단상인의 시신을 검시하며 사인을 밝혀내려 한다. 다음은 첫 번째 사건의 검시장면이다.

적공은 공관을 나와 公案에 앉았다. 먼저 孔萬德을 데리고 올 것을 명하고는 말했다. “이 사건은 네가 비록 정황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너희 집에서 숙박하고 나갔으니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을 말하면 이름에 따라 검시를 시작하겠다.” 孔萬德이 말했다. “이 두 사람이 어젯밤 객점에 투숙했을 때 소인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한 사람은 서씨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구씨라 말했습니다. 당시에 급히 짐을 내려놓느라 이름까지는 물어볼 겨를이 없었지요.” 적공은 고개를 끄덕이며 朱筆로 “서씨 남자”라는 네 글자를 쓰고, 검시관에게 명하여 그 시체를 먼저 검시하게 하였다.

검시관이 朱批를 받아 들고 검시장에 가서는 먼저 왼쪽의 시신을 조삼과 당직 差役에게 들어 올리게 하고서는 적공에게 아뢰었다. “이 사람이 서씨인지 아닌지 孔萬德에게 확인하라 하여주십시오.” 적공이 孔萬德에게 검시장에 가서 보게 하니 孔萬德은 두려웠으나 전전공공하며 검시장으로 갔다. 선혈로 뒤덮힌 머리가 시신 위에 붙어있는데 그 五官이 이미 피와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다. 간신히 보고서 대답했다. “이 사람은 과연 어젯밤 묵었던 손님입니다.” 검시관은 이 말을 다 듣고서 갈대자리 예닐곱 장을 땅에 깔고 시신을 위에 올렸다. 먼저 뜨거운 물로 온 몸의 혈흔을 씻어내고 세세하게 검시하고서는 보고 하였다.

“남자 시체 한구는 어깨와 등에 刀傷이 한 곳인데 세로는 2촌 8푼이고 폭은 4푼입니다. 왼쪽 옆구리에 跌傷이 한 곳인데 깊이가 5푼이고 폭이 5촌입니다. 또한 인후에 도상이 한 곳 있는데, 길이가 3촌 1푼에 폭이 6푼이며 깊이와 길이가 같고, 치명상입니다.” 보고를 마치자 刑房이 檢屍票를 채워서 公案에 올렸다. 적공이 한번 보고서는 자리에서 내려와 직접 시신을 위아래로 둘러보

고 보고와 다른 것이 없자 바로 봉하여 건네고서는 관을 가져다 잠시 두고 내 보였다.

(狄公步出公館登場, 在公案坐下。先命將孔老兒帶上來, 說道: “此案汝雖不知情節, 既是由汝寓內出去, 也不能置身事外。且將這兩人姓名說來, 以便按名開驗。”孔老幾道: “這兩人前晚投店時, 小人也曾問他, 一個說是姓徐, 那一個說是姓邱。當時因匆匆卸那行李, 未暇問著名字。”狄公點點頭, 用朱筆批了“徐姓男子”四字, 命件作先驗這口屍首。

只見件作領了朱批到場, 場上先把左邊那屍身, 與趙三及值日的皂役, 抬到當中, 向著狄公稟道: “此人是否姓徐, 請領孔萬德前來看視。”狄公即叫孔老兒場上去看, 老兒雖駭怕, 只得戰戰兢兢走到場上。即見一個鮮血人頭, 牽連在屍首上面, 那五官已被血同泥土汙滿。勉強看了說道: “此果是前晚住的客人。”件作聽報已畢, 隨即取了六七扇蘆席鋪列地下, 將屍身仰放在上面, 先將熱水將周身血跡洗去, 細細驗了一回。

只聽報道: “男屍一具, 肩背刀傷一處, 徑二寸八分, 寬四分。左肋跌傷一處, 深五分, 寬五寸等。咽喉刀傷一處, 徑三寸一分, 寬六分, 深與徑等, 治命。”報畢, 刑房填了屍格, 呈在案上。狄公看了一回, 然後下了公座, 自己在屍身上下看視一周, 與所報無異, 隨即標封發下, 令人取棺暫厝, 出示招認。)134)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시신을 검시할 때 이 시신이 지난 밤 목였던 사람이 아니라 증언하게 되고 사건은 미궁에 빠지게 된다. 이 장면은 중국 고대 검시방법을 세세히 묘사하고 있다. 우선 시신의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검시관의 검시를 거친 후, 형방이 검시결과를 검시표에 옮겨 적고 이를 판관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과정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세 번째 사건인 華國祥 며느리의 독살사건에서 狄仁傑은 며느리인 黎姑의 시신을 검시하며 피해자의 사인을 알아보려 한다. 물론 처음 이 사건을 고변하러 온 黎姑의 어머니 이부인의 말에 의하면 칠공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하였으므로 독살인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으나 여러 가지 정황이 불분명하기에 검시라는 수단으로 이를 확인코자 하였던 것이다.

134) 『狄公案』 3회.



㉠ 현장검증 : 현장검증이란 범죄 현장이나 기타 사건 관련 장소에서 물증을 수집하고 목격자와 증인 등에 대한 심문과정을 포함하는 검증과정이다. 대부분의 공안소설에서 판관은 법정 안에서 범인과 증인을 심문하는 과정으로 일차적인 현장검증을 대신한다. 판결을 위한 모든 과정이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관의 직관을 부각시키는 효과는 있으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狄公案』에는 狄仁傑이 직접 사건현장을 방문하여 현장검증을 진행하는 경우가 왕왕 존재한다. 예를 들어 狄仁傑이 첫 번째 사건의 고변자인 孔萬德의 객잔에 방문하는 장면이나 세 번째 사건의 사망자인 여고의 시신이 발견된 華國祥의 저택을 방문하는 장면 등이 있다. 우선 孔萬德의 객잔에 방문하여 현장검증하는 부분을 살펴보자.

적공은 먼저 일상적으로 하는 몇 마디 말을 묻고서는 가마에서 내려와 말했다. “본관은 孔萬德의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고 난 후 검시장에서 검시를 하려하네.” 그러면서 먼저 객잔의 문 앞에 도착하니 과연 두 구의 시신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는데 칼에 맞아 죽은 것이었다. 이에 胡德에게 물었다. “이 시신은 본래 이곳에 쓰러져 있었는가?” 胡德은 적공이 먼저 이 말을 묻자 서둘러 대답을 올렸다. “이는 孔萬德이 의도적으로 사람을 해치고서 죽은 시체를 마을 어귀에 버려두고 나중에 잡아떼려 한 것입니다. 소인은 무고한 사람이 연루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여 원래대로 그의 집 문 앞으로 옮겨 두었습지요. 현령께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狄公先問了兩句尋常的言語，然後下轎說道：“本縣且到孔家踏勘一回，然後登場開驗。”說著，先到了客店門首，果見兩個屍身，倒在下面，委是刀傷身死。

隨即傳胡德問道：“這屍首，本是倒在此地的麼？”胡德見狄公先問這話，趕著回稟：“太爺恩典，此乃孔萬德有意害人，故將殺死屍骸，拋棄在鎖口，以便隨後抵賴。小人不能牽涉無辜，故仍然搬移在他家門前。求太爺明察。”)<sup>135)</sup>

胡德은 孔萬德의 제보에 따르면 孔萬德을 협박하여 재물을 뜯어내려 시신을

135) 『狄公案』 2회.

발견하자 孔萬德에게 혐의를 씌우고 이를 덮어주는 명목으로 재물을 요구하였다. 그 사실을 안 狄仁傑은 이 장면에서 胡德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胡德을 호되게 꾸짖으며 200대의 장형을 내린다. 胡德의 형이 마무리되고 狄仁傑은 孔萬德에게 그의 집에 머물던 손님들이 어느 방에 묵었는지를 묻는다.

孔萬德이 대답했다. “뒤쪽의 세 칸은 소인 부부와 제 딸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동쪽의 두 칸은 주방이고, 다섯 칸은 손님이 묵은 적이 없으며 오직 앞쪽 방과 중간 방만 손님이 묵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어제 두 손님들이 오셨는데 소인은 그 분들이 비단을 파는 손님이므로 늘 은화를 가지고 있기에 앞쪽 방은 마땅치 않다고 여겨 그분들에게 가운데 방에 머물러 달라 청했지요.” 그러면서 적공을 이끌어 가운데 방으로 가서 위쪽의 그 방을 가리켰다. 적공이 여러 사람들과 들어가서 자세히 보니 과연 탁자 위에 아직 안주와 술이 남아 치워지지 않았고, 침대 앞에는 여전히 두 개의 요강이 놓여 있었는데 슬쩍 보니 사실 아무런 흔적도 보이지 않아 그가 진술한 것이 사실이 아닌가 걱정되어 적공이 물었다. “너는 이곳에서 수십 년 동안 객잔을 열어왔으니 왕래하는 과객들이 필시 이곳에 많이 머물 터인데 어제는 오직 그 두 사람만 묵고 그 외에 다른 손님은 없었느냐?” 孔萬德이 말했다. “그 밖에도 세 분의 손님이 계셨는데, 한 분은 山西로 가서 가죽제품을 파는 분이셨고, 저 두 분은 주인과 하인으로 河南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지금은 여기서 병을 얻으셔서 아직도 앞쪽 방에 누워계십니다.”

(孔萬德道：“只後進三間，是小人夫婦同我那女兒居住。東邊兩間是廚房，這五間房屋，從不住客，惟有前進同中進，讓客居住。昨日那兩個客人前來，小人因他是販絲貨的客，不免總有銀錢，在前進不甚妥貼，因此請他在中進居住。”說著領了狄公到了中進，指著上首那間房屋。狄公與眾人進去細看，果見桌上尚有殘肴酒跡，未曾除去，床面前還擺著兩個夜壺，看了一遍，實無形跡，恐他所供不實，問道：“汝在這地既開了數十年客店，往來的過客，自必多住此處，難道昨日只有他兩人，以外別無一客麼？”孔萬德道：“此外尚有三個客人，一是往山西販賣皮貨的；那兩個是主仆兩人，由河南至此，現因抱病在此，尚在前進睡臥呢！”)<sup>136)</sup>

136) 『狄公案』 2회.

또 다른 예로 세 번째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狄仁傑이 현장조사를 나온 장면이다.

적공이 上房의 뜰에 이르러 우선 여인들에게 잠시 피해있게 하고는 여러 곳에서 둘러보았다. 그런 후에 華國祥과 방안으로 들어갔는데 궤작의 물건들이 모두 이미 옮겨져 있고, 오직 찻주전자와 붉은 칠이 된 통이 四仙卓子 위에 놓아져 있었으며 많은 시녀들이 침대 앞에서 지키고 있었다. 적공이 물었다. “이 찻주전자는 본래 이 탁자 위에 있던 것이냐? 너희들이 찻잔을 가져오면 본관이 한번 시험해보겠다.” 심부름꾼이 찻잔 하나를 가져오자 적공이 직접 손에 들어 주전자 안의 차를 따라내었다. 과연 색깔이 다른 것들과 차이가 있었는데 자흑색을 띠는 것이 설탕물과 비슷했고, 비린내가 났다. 적공이 한 번 보더니 개를 한 마리 구해오라 하고는 그 찻물을 먹이고 땅에 내려놓게 하였는데, 그 개 또한 죽었다. 고개를 숙이고 한두 번 킁킁거리고는 삼시간에 마구 짓어대더니 대략 밥 한 끼 먹을 시간에 그 개는 이미 목숨을 잃어버렸다. 적공은 더욱 의아하게 여겨서 먼저 차역들에게 封標를 붙이게 하여 관계없는 자가 잘못하여 먹지 않도록 하고는 곧장 침대로 가서 시신을 보았다.

(狄公來至上房院落，先命女眷暫避一避，在各處看視一遭，然後與華國祥走到房內，見箱籠物件，俱已搬去，惟有那把茶壺並一個紅漆筒子，放在一扇四仙桌子上，許多仆婦，在床前看守。狄公問道：“這茶壺可是本在這桌上的麼？你們取了碗來，待本縣試它一試。”說著當差的早已遞過一個茶杯，狄公親自取在手中，將壺內的茶倒了一杯，果見顏色與眾不同，紫黑色如同那糖水相似，一陣陣還聞得那派腥氣。狄公看了一回，命人喚了一只狗來，複著人放了些食物在內，將它潑在地下，那狗也是送死：低頭哼了一兩聲，一氣吃下，霎時之間，亂咬亂叫，約有頓飯時節，那狗已一命嗚呼。狄公更是詫異，先命差役上了封標，以免閑人誤食，隨即走到床前，看視一遍。)137)

세 번째 사건에서 검시를 하기 전 狄仁傑은 華國祥과 함께 사건현장을 둘러보

137) 『狄公案』 21회.

며 증거를 수집한다. 현장에 남아있던 찻주전자에 독이 들었다고 추정된 狄仁傑은 이를 개에게 먹여보았고, 개는 잠시 후 죽었다. 이를 보고 狄仁傑은 더욱 이상하게 생각했다. 砒霜과 같은 독약은 치명적이라 즉각 반응하고 무색무취인데 반해 찻물에서 비린내가 나고, 개가 독을 먹고 죽는 시간이 즉각적이지가 않았기 때문이다.

㊤ 탐문수사 : 탐문수사의 경우 狄仁傑이 직접 변복하여 조사하는 방식과 수하들이 狄仁傑의 명을 받아 탐문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狄仁傑이 직접 변복하여 조사하는 방식은 위에서 잠시 언급하였듯 첫 번째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변복하고 약을 파는 의원행세를 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수하들이 狄仁傑의 명을 받아 탐문하는 방식은 워낙에 다양하고 그 수가 많기에 여기서 다 소개할 수는 없으나 주로 피해자나 용의자의 평판이나 사건 전후의 상황 등을 탐문하거나 잠복하며 용의자가 다른 인물과 접촉하는지를 감시하는 등으로 활용된다.

이외에도 우연한 기회에 사건의 단서를 얻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한다.

갑자기 後堂을 맡은 하인이 차 한 잔을 바쳤다. 하인은 그가 사건을 심리하는 시간이 길어져 목이 마를까 하였던 것이다. 적공은 그에게 올리라 하고서 막 뚜껑을 들어 올렸는데 몇 개의 검은 먼지가 차 위에 떠다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적공이 그에게 물었다. “너희는 어찌 이리도 부주의하단 말이냐? 茶房<sup>138)</sup>이 차를 올리는데 깨끗한 물이 아닌 것으로 차를 끓여 마시게 하다니, 이 위의 많은 먼지들은 어디서 온 것인가?” 그 하인이 재빨리 대답했다. “이 일은 茶夫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곁에서 보았는데 차를 우릴 때에 처마 위에서 홀연히 먼지가 떨어져내려 안으로 빠져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적공이 이 말을 듣고 문득 깨달았다.

(忽然值堂의家人, 送上一碗茶來, 家人因他審案的時候已久, 恐他口中作渴。狄公見他獻上, 當時蓋子掀開, 只見上面有幾點黑灰浮於茶上, 狄公向那人問道: “你等何以如此粗心。茶房獻茶, 也不用潔淨水來煎飲, 這上面許多黑灰, 是哪裏

138) 茶房은 茶夫와 동어로 찻물을 끓여 바치는 등의 잡역을 하는 이를 말한다.

來的?”那家人趕著回道：“此事與茶夫無涉，小的在旁邊看到，正泡茶時，那簷口屋上忽飄一塊灰塵下來，落於裏面，以致未能清楚。”狄公聽了這話，猛然醒悟。)139)

위의 예는 세 번째 사건을 해결하던 중 유력한 용의자인 胡作賓에게서 아무런 죄증을 찾지 못하고 있던 狄仁傑이 우연한 계기로 사건의 실마리를 얻게 되는 장면을 서술하였다. 찻물에 떨어진 검은 먼지에서 狄仁傑은 무엇을 발견했던 것일까? 이후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 상황이 얼마나 결정적인 단서인가를 확인할 수 있다. 사실 華國祥의 며느리인 여고는 사람에게 독살당한 것이 아닌 뱀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것이었다. 여고는 본래 직접 차를 우려마시는 사람이어서 하인인 고씨는 방 안에서 물을 끓여야 했다. 물을 끓이기 위해 화로를 가져다 두었는데 뜻밖에 화로에서 올라온 연기가 서까래에 살고 있던 독사를 자극하였고 독사가 흘린 독액이 끓이던 찻물 속으로 들어간 것이었다.

우연한 기회에 사건의 단서를 발견한 것이지만 이는 원래 狄仁傑의 관찰력과 식견 등이 뛰어났기 때문이다.

## ② 초현실적 수단

공안소설에서 초현실적 존재의 출현은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는 사건의 발생과 전개, 추리과정, 심판에 이르기까지 공안소설의 서사구조에서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서술된다. 흔히 꿈, 원혼, 기도, 수수께끼 시 풀이<sup>140)</sup>와 같은 초월적 양상들이 등장하여 판관의 사건해결에 도움을 주는데<sup>141)</sup>, 『狄公案』에는 이러한 초현실적 수단이 비교적 적게 쓰인다. 박소현의 논문에는 반 홀릭이 『狄公案』을 번역하면서 쓴 서문을 인용하며 ‘중국적 색채’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첫째, 이야기가 시작하자마자 범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고, 이 때문에 전체적으로 서스펜스가 결

139) 『狄公案』 22회.

140) 수수께끼 시 풀이가 초월적 양상에 들어가는 이유는 이 수수께끼가 범인이나 피해자가 남긴 단서가 아닌 꿈이나 초자연적 존재가 내린 계시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141) 고숙희, 「包公 公案小說 研究 : 『百家公案』과 『龍圖公案』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2003. 221쪽.

여된다는 것, 둘째, 혼령이라든가, 계시라든가 하는 초자연적·미신적 요소에 의존하여 범죄를 해결한다는 것, 셋째, 시라든가, 판결문이라든가, 작가의 개입 등등 이야기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지엽적 요소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 넷째, 너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한다는 것, 다섯째, 이야기의 결말에 항상 범인의 처형 장면이 삽입된다는 것<sup>142)</sup> 등 다섯 가지를 이른바 ‘중국적 색채’라고 한 것이다. 반 홀릭에 따르면 이러한 특유의 중국적 색채가 드러나지 않는 소설로 『狄公案』이 적당했고, 그리하여 이 무명의 소설을 번역하여 서양에 소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반 홀릭이 제기한 중국적 색채는 중국의 전통적 공안소설과 현대적 의의를 갖는 탐정소설과의 구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中國現代通俗文學選評·偵探卷』에는 공안소설과 탐정소설의 차이점에 대해 ‘논리와 추리에 대한 탐구의 유무<sup>143)</sup>’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는 공안소설이 갖는 약점이 바로 ‘논리와 추리에 대한 탐구’가 부족하다는 점임을 말하는 것이다. 물론 『狄公案』도 사건해결과정의 논리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아래에 설명할 꿈이나 초자연적 존재의 등장, 심문과정에서 활용된 고문 등은 추리의 논리적 전개를 방해하며 독자의 몰입감을 저해하는 요소로 아쉬움을 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狄公案』에는 공안소설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이러한 요소들의 사용이 최소화되었으며 이는 공안소설이 근대화되는 초기과정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 꿈 : 꿈은 공안소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문학작품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狄公案』에는 ‘夢驗’, ‘夢兆’ 등의 형식으로 꿈에 대한 기록이 등장한다. 예를 들어 11회의 내용에서 두 번째 사건을 해결하던 중, 狄仁傑은 郡의 사당에서 기도를 마치고 방석 위에 앉아 정신을 집중하는데 몽롱해지면서 잠이 든다. 꿈속에서 그는 묘당을 배회하다 탁자 위에 책 한권이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 책은 점괘를 해석하는 서적이었다. 그는 이상한 마음에 향을 피운 후 점괘를 얻는다. 점괘를 해석하는 부분에서 그는 4 句의 시를 보게 되고, 이것이 사건을 해결하는 하나의 단서가 된다. 이 부분에서 단순히 꿈만 제시된 것이 아닌 수수께끼의 풀이라는 또 하나의 수단이 아울러 등장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직접적인 계시

142) 박소현, 「공안소설 다시 읽기 →문화적 경계의 탐색」, 『중국소설논총』 제17집, 2003. 249쪽.

143) 蕭金林, 『中國現代通俗文學選評·偵探卷』, 上海文藝出版社, 1992. 4쪽.

가 아닌 수수께끼를 풀게 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더 몰입하게 만든다는 점, 그리고 해결이 미진한 사건에 실마리를 제공하여 판관이 사건을 좀 더 쉽게 해결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 원혼 등의 초자연적 존재 : 공안소설에서 원혼이 등장하는 것은 판관이 사건을 맡아 처리하는 과정 중에 난관에 처하여 고민할 때, 사건의 피해자인 원혼들이 ‘한’풀이에 대한 강한 의지를 지니고 다양한 양상으로 단서를 제공하며, 어떤 경우는 사건 전말을 빠짐없이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sup>144)</sup> 한편으로는 원혼(귀신)이 판관을 돕는 존재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sup>145)</sup>

『狄公案』에서 원혼이 등장하는 예는 극히 드물다. 위에서 언급한 ‘검은 덩어리’가 그 중 하나이다. 이를 통해 狄仁傑은 숨겨져 있던 畢順의 시체를 찾게 되고 사건의 단초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공안소설에는 원혼과는 달리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초자연적 존재도 왕왕 등장한다. 『狄公案』은 여러 차례에 걸쳐 신에게 기도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앞서 꿈 이야기에서 狄仁傑은 군의 사당에서 기도를 올리고 꿈에서 어떠한 계시를 받는다. 꿈속에서 그는 점괘를 얻고 다시금 잠이 든다. 또다시 몽롱한 기분에 빠지는 순간 갑자기 백발의 노인이 등장한다. 그를 따라다니면서 狄仁傑은 다시 여러 가지 단서와 수수께끼를 발견하게 되고 꿈에서 깨어난 후 꿈속에서 얻은 수수께끼들로 사건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얻는다.

## ⑤ 범인에 대한 심판 양상

범인에 대한 심판은 공안소설의 서사 구조 중 마지막을 차지하며 소설의 구성 중 절정과 결말에 해당한다. 여기서는 범인에 대한 심문과정과 판결, 형의 집행을 주로 다룬다. 경우에 따라 범인에 대한 심판은 ‘神判’과 ‘人判’의 두 가지로 나누기도 하는데<sup>146)</sup>, ‘神判’은 신이나 여타 초자연적인 존재에 의한 심판을 ‘人

144) 고숙희, 「包公 公案小說 研究 : 『百家公案』과 『龍圖公案』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2003. 224쪽.

145) 王湘華, 「論清代白話公案小說中的鬼神因素」, 『長春工業大學學報』, 2006年 1期. 71쪽.

146) 張晨, 「中國古代白話短篇公案小說的敘事特徵」, 天津師範大學 석사논문, 2011 45쪽.

判'은 판관의 법 집행에 의한 심판을 뜻한다. 그러나 『狄公案』은 狄仁傑에 대한 법 집행만이 제시되므로 본 논문은 '人判'을 중심으로 서술하겠다.

### ㉠ 심문과정

증거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범인을 확인한 판관은 법정에서 범인을 심문한다. 심문의 과정은 자백하도록 회유하고 때에 따라서는 고문을 가하는 등 위협하기도 하는데 아래의 예는 첫 번째 사건의 범인인 邵禮懷를 심문하는 장면이다.

邵禮懷를 공안 앞에 데려와 꿇게 하였다. 적공이 말했다. “네놈이 어제 애써 자백하려 하지 않았는데, 지금 한 사람이 여기에 있으니 그를 알아보겠느냐?” 말을 하면서 손으로 孔萬德을 가리키며 기억하게 하였다. 邵禮懷는 깜짝 놀랐으나 또다시 마음을 독하게 먹고 앞뒤를 살피지 않으며 말했다. “너는 나와 일찍이 면식도 없었는데 어째서 趙萬全과 결탁하여 원한을 품고 나를 해치려 하느냐?” 孔萬德은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얼굴을 보자마자 소리 내어 울음을 그치지 못하며 말했다. “손님, 당신은 나를 정말로 괴롭게 하는구려! 내가 六里墩에서 수십 년 동안 객점을 열어 손님이 왕래하면서도 신용을 잃지 않았건만 당신에게 이 일을 당하고 거의 목숨을 잃을 뻔 했소, 청렴하신 현령나라가 아니었다면 어찌 살 생각을 하였겠소?”

(將邵禮懷帶到案前，當中跪下。狄公道：“你這廝昨日苦苦不肯招認，今有一人在此，你可認得他麼？”說著用手指著孔萬德令他認識。邵禮懷一驚，復又心頭一橫，道：“你與我未曾識面，何故串通趙萬全挾仇害我？”孔萬德不等他說完，一見了面，不禁放聲哭道：“邵客人你害得我好苦呀！老漢在六里墩開設有數十年客店，來往客人，無不信實，被你害了這事，幾乎送了性命。不是這青天太爺，哪裏還想活麼？）<sup>147)</sup>

위의 예는 증거가 분명함에도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邵禮懷와 증인인 孔萬德을 대질심문하는 장면이다. 그러나 邵禮懷는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147) 『狄公案』 19회.



그에 따라 狄仁傑은 최후의 수단인 고문을 가한다.

(적공이) 이때 서안을 치며 외쳤다. “네 이놈!, 분명히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아직도 감히 함부로 지껄이느냐? 중형을 쓰지 않으면 진실로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겠구나.” 바로 좌우에 명하여 철로 된 줄을 하나를 가지고 와서 불로 빨갱게 구워 붉은 계단에 놓고는 좌우의 두 사람에게 흉악한 죄수를 일으키게 하여 데리고 가 무릎을 드러내게 한 후 그 위로 꿰어앉게 하였다. 다만 “아이고!”하는 신음소리만 들리고 한바탕 흰 연기가 피어오르며 ‘치치’하는 소리를 낼 뿐이었다. 진실로 고통이 골수에 이르러 邵禮懷는 벌써 혼미한 상태가 되었다. 다시 그의 두 다리를 보니 가죽과 살이 이미 장작과 같았고 비릿한 냄새가 사방에서 일어났다. 형을 집행하는 형리가 큰 화로를 계단 아래로 옮겨 놓고 한 그릇의 식초를 가져오게 하여 화로를 향해 한 번 뿌렸다. 즉시 시큼한 연기가 피어올라 정수리로 스며들었다. 차 반잔 마실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邵禮懷가 신음을 내며 점차 깨어났다. 적공이 말했다. “너는 자백할 테냐, 자백하지 않을 테냐? 만약 다시금 질질 끈다면 나는 바로 다른 형을 행할 것이다.” 邵禮懷는 이때가 되어 실로 더는 형을 받을 수 없어 단지 위를 향해 아뢰 수밖에 없었다. … 이때 글 쓰는 아전이 구술한 내용을 기록하고 큰 소리로 한 번 읽었다. 邵禮懷에게 명하여 지장을 찍게 하고 감옥에 가두었다.

(當時拍案叫道：“你這狗頭，分明確有證據，還敢如此亂言，不用重刑，諒難定案。”隨即命左右取了一條鐵索，用火燒得飛紅，在丹墀下鋪好，左右兩人將凶犯提起，走到下面，將磕膝露出，對定那通紅的練子納了跪下。只聽“哎喲”一聲，一陣清煙，癡癡的作響，真是痛入骨髓，把個邵禮懷早已昏迷過去，再將他兩腿一望，皮肉已是焦枯，腥味四起。只見執刑的差役將火爐移到階下，命人取過一碗酒醋，向爐中一潑，登時醋煙四起，透入腦門。約有半盞茶時，邵禮懷沉吟一聲，漸漸地蘇醒。狄公道：“你是招與不招？若再遲延，本縣就另換了刑法了。”邵禮懷到了此時，實是受刑不過，只得向上稟道。…當時書役，將口供錄好，高聲誦念一遍，命邵禮懷蓋了指印，收下監牢。)148)

148) 『狄公案』 19회.

邵禮懷는 모진 고문을 받고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고문은 반근대적인 행위로 추리소설에는 쓰이지 않는 소재이다. 추리소설은 대부분 주인공이 탐정으로 조사권은 있지만 체포권, 판결권은 없다. 이것은 중국의 공안소설과는 구분되는 큰 요소 중 하나이다. 공안소설의 주인공인 판관은 사건을 조사하고 범인을 체포하며,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다. 즉, 법률에 정해져 있는 형벌을 직접 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다. 또한 독자들은 범인이 고문에 의해 고통 받는 것을 보며 ‘권선징악’이라는 공안소설 고유의 주제를 다시 한 번 체감할 수 있고, 정의를 실현한다는 대리만족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고문을 가하거나 대질신문을 하여도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바로 두 번째 사건의 범인인 淫婦 주씨이다. 주씨는 수많은 증거와 장형에도 불구하고 갖은 말솜씨로 狄仁傑의 수사를 번번이 무력화시킨다.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狄仁傑은 속임수 연극을 하게 된다.

‘속임수 연극’이란 용의자의 심리적 약점을 이용하여 일종의 연극을 통해 범죄 사실을 인정하게 하는 수단이다. 『百家公案』의 74, 75회에서 죄인 郭槐가 진술을 반복하자 포공은 거짓으로 저승의 판관으로 분장하여 郭槐의 심리적 약점을 건드린다. 郭槐는 공포로 인해 그 자리에서 모든 범죄사실을 자백하게 된다. 아래의 예는 주씨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속임수 연극을 하는 부분이다.

주씨가 홀로 옥 안에서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 있을 무렵 二鼓가 울린 후였다. 갑자기 귀신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며 한바탕 음산한 바람이 불어 들어와 머리털이 거꾸로 솟는 것을 멈추지 못했다. 떨면서 일어났으나 마음은 불안하기 그지없었다. 두려움이 극에 달했을 때 홀연히 옥문이 열리며 봉두난발을 한 검은 얼굴의 악귀가 들어와 그녀의 머리칼을 잡고 큰 소리로 욕하며 말했다. “너 이 음탕한 계집아! 남편을 해하여 죽이고는 엄한 형벌을 받으면서도 죄를 인정치 않아 너의 남편이 陰狀을 고하여 이제 너와 대질하려하니 빨리 나를 따라 나서라!” 그러면서 차갑기 그지없는 손을 뻗어 잡아 갔다. 주씨는 이때가 되어 이미 놀라 뉘이 나가고 어지러워 그가 이끄는 대로 가게 되었다. 가면서 본 것은 그저 캄캄한 곳이라는 것뿐이었고 그녀가 어떤 전각에 도착하니

푸른 얼굴에 송곳니가 난 사람들이 계단 아래 서 있었다. 당의 입구에는 많은 形具들이 진열되어 있었는데 칼산과 기름 솥, 炮烙과 철 멧돌 등 없는 것이 없었다. 당 가운데는 크나큰 公案이 있어 위에는 많은 서책들과 중간에는 높게 빛나는 것도 없이 오직 한 쌍의 촛대 위에 녹색의 크고 작은 초만이 불을 은은하게 빛내며 진실로 사람을 두렵게 했다. … 다시 보니 중간에 푸른 얼굴의 閻王이 紗帽에 누런 수염을 기르고 만면에 노기를 띤 채로 앉아 있었다. … 염왕이 서안을 치며 노하여 말했다. “천하에 이런 음탕한 계집이 있나! 모해의 계략이 참으로 터무니없는 생각이로다. 만약 그 남편이 와서 알리지 않았다면 어찌 저 년의 악독한 계략을 알 수 있었겠는가. 좌우는 내 명에 따라 기름 솥을 준비하라. 만약 저 년이 조금이라도 머뭇거린다면 마음속으로 발뺌하려는 것이니 즉시 저 년을 안에다 집어넣어 영원히 윤회하지 못하게 하라!” 양쪽에서 대답하는 소리가 있고서 많은 악귀들이 분분히 아래로 내려가 기름을 더 붓고 불을 더 뿜었다. 오로지 주씨가 거짓 자백하기만을 기다려 그녀를 집어넣으려 하고 있었다. 주씨는 이러한 광경을 보고 마음속으로 자신이 필시 죽었구나 생각하고 목숨을 생각하지 않고 모해한 이야기를 자인하며 아뢰었다.

(一人在牢禁中胡思亂想。哪知到了二鼓之後，忽然聽得鬼叫一聲，一陣陰風颯颯吹到裏面來，周氏不禁地毛發倒豎，抖戰起來，心下實在害怕。誰知正怕之間，忽然牢門一開，進來一個蓬頭黑面的，到了前面，一個惡鬼，將周氏頭一把揪住，高聲罵道：“你這淫婦將丈夫害死，拚受苦刑，不肯招認，可知你丈夫告了陰狀，現在立等你到閻王台前對質，趕速隨我前去。”說着伸出極冷極冰的手來，拖着就走。周氏到了此時，已嚇得魂魄出竅，昏昏沉沉，不由自己的，隨那惡鬼前去。只見走了些黑暗的所在，到了個有些殿閣的地方，許多青面獠牙的人站在階下，堂口設了多少刑具，刀山油鍋炮烙鐵磨，無件沒有。當中設了一張大大的公案，中間也無高照等物，惟有一對燭台上點着綠豆大的綠蠟燭，光芒隱隱，實在怕人，… 不禁拍案怒道：“天下有如此淫婦，謀害計策，真是想入非非，設非她丈夫前來控告，何能曉得她的這惡計？左右，與我引油鍋伺候！若是周氏有半句遲疑，心想狡賴，即將周氏又入油鍋裏面，令她永世不轉輪回。”兩旁答應一聲，早有許多惡鬼陰差，紛紛而下，加油的加油，添火的添火。專等周氏說了口供，即將她又入。周

氏看了這樣光景，心下自必分死，惟有不顧性命，自認謀害事情，上前供道。)149)

주씨에게 있어 심리적 약점은 『百家公案』의 郭槐와 마찬가지로 저승이었다. 살아서는 범죄혐의를 벗기 위해 애를 쓰지만 정작 자신이 죽어 저승에 왔다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심리적 방패가 사라지고 그저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저승은 인간에게 있어 불가해한 영역으로 정복할 수 없는 대상이다. 동양인의 심리 속에서 저승은 사후에 받는 재판의 형식으로 생전에 지은 모든 죄업을 받게 되는 곳으로 굳어져 있다. 이는 불교의 『地藏經』이나 『目蓮經』에 서술된 지옥의 형상과 기본적으로 같다. 불교의 인과응보를 기반으로 한 윤회사상과 처벌과 비판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저승관념은 우리 생활 전반에 아주 이른 시기부터 뿌리내렸고, 이러한 인식은 여러 소설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sup>150)</sup>

#### ㉠ 죄에 대한 판결

죄에 대한 판결은 죄질에 따라 각양각색이나 斬刑, 凌遲, 絞刑, 烹刑, 充軍, 流刑, 徒刑, 杖刑, 罷職, 벌금형, 가산몰수 등<sup>151)</sup> 징벌적 성향을 띤다. 『狄公案』의 경우 세 번째 사건을 제외하고 모두 살인죄를 범한 것이기에 모두 중형에 처해진다.

첫 번째 사건의 범인인 邵禮懷는 斬刑이 선고된다. 우선 邵禮懷를 바닥에 꿰어 앉히고 午時가 되기를 기다렸다가 포성이 들림과 동시에 목을 친다. 狄仁傑이 그의 머리를 살핀 후에 멀리 던져버림으로써 형 집행이 완료된다.

두 번째 사건의 범인인 주씨와 내연남인 徐德泰는 각각 凌遲刑과 絞刑이 선고된다. 우선 徐德泰의 경우 목에 면으로 된 밧줄을 걸고 앞뒤로 한 사람씩 두 개의 작은 목봉을 밧줄에 묶고는 그 밧줄을 꼬아 그의 숨이 끊어질 때 까지 계속한다. 劊子手(사형집행인)가 그의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형 집행이

149) 『狄公案』 28회.

150) 조재현, 「고전소설에 나타나는 저승계 연구」, 어문연구 35권 2호, 2007. 177쪽.

151) 강주완, 『『百家公案』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03. 190쪽.

완료된다. 주씨의 형벌은 우선 그녀의 목을 베고 나서 시작된다. 그 후 凌遲刑의 절차에 따라 사지를 절단한다. 『大明律』에 의하면 모반, 대역 또는 노비가 가장 을 구타한 경우, 처첩이 남편을 구타한 경우에 처해지는 형벌이라고 되어있다.<sup>152)</sup> 이 모든 범죄는 ‘綱常罪’라는 말로 정리될 수 있다. 三綱과 五常(五倫)으로 대표되는 인륜을 저버린 죄인 것이다.

『狄公案』에서 이와 같이 형벌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는 것은 공안 본래의 기능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끔찍한 장면을 통해 독자들에게 죄를 짓지 말 것을 권계하고,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통쾌한 응징으로서 독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 (6) 結尾의 양상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狄公案』에서의 結尾부분은 매우 미비하다. 『百家公案』과 같이 많은 사건을 다루고 있지 않기도 하지만 사건이 서로 얽혀있는 경우이므로 결미를 맺지 못하고 다음 사건으로 진행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강주완의 논문에는 結尾의 양상에 대하여 '심판으로 끝맺기', '후일담으로 끝맺기', '평어로 끝맺기', '소설과 관련된 정보의 제시로 끝맺기'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sup>153)</sup>

『狄公案』 전반부의 범인이 없는 세 번째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두 사건은 죄에 대한 판결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특이한 점은 이 두 사건의 형 집행이 모두 30회에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사건과 그 조사과정의 경우 복잡다단하게 전개되나, 결말은 동시에 일어나는 이러한 서사구조는 서스펜스를 끝까지 유지하다가 일시에 해소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를 위한 서사전략이라 생각된다. 작가는 이러한 서사전략을 통해 독자가 사건의 전개과정에서 발생한 답답함과 긴장감을 한 번에 해소하게 하여 쾌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다.

『狄公案』은 특이하게도 주인공 狄仁傑이 책의 끝 무렵(63회)에서 사망한다.

152) 한국고전용어사전 편찬위원회, 『한국고전용어사전 1권』,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1. 1182쪽.

153) 강주완, 『『百家公案』研究』,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02. 195쪽.

이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후일담이라 정의한다면 63회와 64회를 전체 작품의 결미라 볼 수 있다.

63회에서 狄仁傑이 사망한 후 재상이 된 張柬之는 狄仁傑이 살아있을 때는 몸을 사리던 張昌宗과 張易之 두 간신이 狄仁傑 사후 다시금 거리낌 없이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탄식을 금할 수 없었다.

張柬之가 하루는 탄식하며 말했다. "나는 적공을 만나 刺史에서 재상으로 승진하여 자리는 높고 봉록도 많은데, 조정을 깨끗이 정리하지 못하고 만리강산을 소인들의 손에 넘겼으니 훗날 죽어 지하에서 무슨 면목으로 적공을 뵈리오?" 혼자서 생각하다가 사람들에게 명하여 袁恕已와 崔元暉, 桓彥範 등을 청하라 하고 밀실에서 상의했다. 袁恕已가 말했다. "듣자하니 武后가 연일 병을 얻어 조정에 오르지 못하니 두 장씨가 중간에서 권력을 장악하였소. 예기치 못한 일에 국사가 심히 위태로우니 어찌면 좋겠소?" 張柬之가 말했다. 간신을 제거하려면 반드시 묘책을 생각해내야 하오. 지금 羽林衛左將軍 李多祚가 자못 충심이 있으니 매번 朝堂에서 간적들을 만날 때마다 결눈질을 하더이다. 만약 그와 모의하여 국적을 제거할 수 있다면 廬陵王께서도 뒷일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오." 여러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좋다고 하며 말했다. "우리들 모두 이 사람을 아니 일을 질질 끌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을 보내 청해오도록 합시다." 바로 張柬之가 나와 명첩을 가지고 가게 하여 이장군에게 즉시 와서 중요한 일을 상의하자 청하게 하였다.

(張柬之一日嘆道：“我受狄公知遇，由刺史薦升宰相，位高祿重，不能清理朝政，致將萬里江山送與小人之手，他日身死地下，何顏去見狄公？”一人思想了一會，隨命人將袁恕已、崔元暉、桓彥範等人請來，在密室商議。袁恕已道：“聽說武后連日抱病，不能臨朝，因此二張居中用事。設有不測，國事甚危，如何是好？”張柬之道：“欲除奸臣，必思妙計。現在羽林衛左將軍李多祚，此人頗有忠心，每在朝房，凡遇奸賊前來，他便側目而視。若能與他定謀，除去國賊，則廬陵王便無後慮。”衆人齊聲道好，說：“此人我等皆知，事不宜遲，可令人就此去請。”當下張柬之出來，命人取了名帖，請李將軍立刻過來，有要事相商。)

張柬之는 李多祚를 설득하여 張昌宗과 張易之 등을 잡아들이고 병중인 武則天을 설득하여 廬陵王에게 황위를 넘길 것을 촉구하였다. 결국 武則天은 廬陵王에게 양위하였고 廬陵王은 복위하여 中宗이 되었다.

다음날 천하에 대사면령을 내리니 후세 사람들은 그를 中宗이라고 불렀다. 곧바로 또 성지를 내렸는데 狄仁傑을 공의 작위에 봉하여 세습하게 하고, 張柬之, 桓彥範, 袁恕已 등은 모두 侯의 작위에 봉하였다. 李多祚는 勇猛侯에 봉하고, 劉豫는 懷慶府로 승진시켰다. 胡世經은 京師로 불러 임용하였다. 그 밖의 공이 있는 대신들은 물론이거니와 미관말직에 이르기까지 加封되거나 實職을 주지 않음이 없었다. 이로부터 태평하여 아무 일도 없었으며, 임금은 현명하고 신하는 충성스러우며, 관리는 국가를 위하고 백성은 君上을 알았으니 江山萬里는 여전히 이씨로 전해지고 사직은 오래도록 적공의 정치에 의지하였다. (次日, 大赦天下, 後人稱爲中宗。隨又傳出一道聖旨：加封狄仁傑公爵, 世襲罔替；張柬之、桓彥範、袁恕已這一干人, 皆加封侯爵；李多祚封爲勇猛侯；劉豫升爲懷慶府；胡世經着來京升用。其餘有功大臣, 哨弁偏將, 無不加封實職。從此太平無事, 君明臣良, 官爲國家, 民知君上, 江山萬里依然李氏家傳, 社稷千秋, 終賴狄公政治。)

지금까지 『狄公案』의 서사구조와 그 전개 양상을 살펴보았다. 공안소설의 특성상 '사건발생 - 사건 조사 - 판결'이라는 정형화된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狄公案』 또한 예외일 수는 없다. 하지만 이상에서 정리해 본 『狄公案』의 서사요소 전개 과정은 충분히 공안소설의 정형화된 구조를 따르면서도 이전의 공안소설과는 다른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관한 내용은 3절의 서사 특징을 통해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 3. 『狄公案』의 서사특징

위에서 『狄公案』의 서사구조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타의 공안소설과 공통점은 많으나 이것이 『狄公案』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안 된다. 이는 앞서 설명했다시피 공안소설의 典範化 경향에 따른 것으로 작가가 작품을 창작할 때 줄거리나 범죄 양식과 같은 요소들을 다른 작품에서 모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작품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狄公案』의 몇 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 1) 작품 속 설정의 오류

### (1) 人名의 混用

『狄公案』의 인물들은 후반부의 狄仁傑과 조정대신들을 제외하고는 가상의 인물로 채워져 있다. 가상인물의 다수 등장은 작가로 하여금 인명의 운용과정에서 혼란을 주는데 두 가지의 예를 들어 『狄公案』에서 발견되는 인명의 혼용상황에 대해 설명하겠다.

#### ① 邱禮懷와 邵禮懷

첫 번째 사건의 범인인 邵禮懷는 10회 이전에서 성이 邱씨인 남성이라 언급되고 있다. 12회에서야 비로소 邵禮懷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를 몇 가지의 가능성으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작가의 의도가 개입되었을 경우이다. 성이 邱씨인 남성에 대한 정보는 3회에 처음 제시된다. 狄仁傑은 孔萬德을 불러 사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묻는다. 그 과정에서 孔萬德의 객점에 투숙한 두 명의 손님의 이름을 묻게 되는데 한명은 성이 徐씨이고, 또 한명은 성이 邱씨였다고 대답한 것이다. 하지만 검시과정에서 孔萬德이 서씨의 시신은 확인했으나 또 다른 시체가 객점에 묵던 구씨가 아님을 밝혀주자 사건은 미궁에 빠지게 된다. 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邵禮懷가 재물을 노려 서씨를 제거하고 또 다른 사람을 죽여 시신을 바꿔둔 것이다. 이처럼 邵禮懷는 일찍부터 재물을 노려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처음부터 비단상인 서씨를 숙이고, 그를 죽여 재물을



훔친 후에 사람들의 이목을 분산시키기 위해 구씨 성을 거짓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작가는 이를 통해 단순한 살인사건에 혼선을 주고 독자가 추리할 수 있게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작가가 서술과정에서 실수를 범했을 경우이다. 이는 구씨 남성에서 邵禮懷로 이름이 바뀌는 11회와 12회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11회에서 狄仁傑이 縣의 묘당에서 잠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狄仁傑은 꿈속에서 방문한 指迷亭이란 정자 입구에 걸려있는 대련을 보게 된다.

尋孺子遺蹤下榻，傳爲千古事；  
問堯夫究竟卜主，難覓四川人。<sup>154)</sup>

狄仁傑은 꿈에서 본 대련을 통해 사건의 범인을 특정해내게 되는데 이는 '典故'를 이용한 수수께끼의 해결과정을 보여주는 예라 할 것이다. 다음은 下聯을 해석하면서 邵禮懷의 성씨를 밝혀내는 장면이다.

“下聯은 너무도 분명하네. '堯夫' 또한 사람의 이름이니, 이 사람은 성은 邵씨요, 이름은 康節이라. '堯夫'는 그의 外號이지. 이는 六里墩 사건을 암시하는 것이라. 그 邵씨 놈이 본디 범인인데, 지금은 찾을 수 없으니 그가 도망하여 사천으로 간 것인지 아니면 그의 本籍이 사천인지는 알 수 없네. 湖州에서 장사를 한 후, 그대들이 사건을 조사함에 만약 사천 말씨를 쓰는 이를 만난다면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 심문해야 할 것이야.”

(“下聯甚是清楚，‘堯夫’也是個人名，此人姓邵叫康節，‘堯夫’兩字乃是他的外號。此乃暗指六里墩之案。這姓邵的，本是要犯，現在訪尋不着，不知他是逃至四川去了，不知他本籍四川人。在湖州買賣以後，你們訪案，若遇四川口音，你們須要留心盤問。”)<sup>155)</sup>

狄仁傑은 對聯 중의 '堯夫'라는 단어에 집중하였다. '堯夫'는 그의 설명에 따르

154) 『狄公案』 11회.

155) 『狄公案』 12회.

면 송대의 邵雍(邵康節)의 호라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작가의 실수가 드러난다. 狄仁傑은 당대 사람이고 邵雍은 송대 사람이므로 狄仁傑이 邵雍의 호를 알고 있을 리 만무하다. 작가의 착오로 인한 것임이 분명한 대목이다. 어쨌든 狄仁傑은 '堯夫'라는 단어를 통해 六里墩 사건의 범인이 邵씨이고, 그가 四川과 어떤 연관이 있음을 추측하였다. 작가는 전고를 통한 수수께끼의 해결이라는 장치를 통해 사건해결의 단서를 제시하고 사건 초반에 드러나지 않은 진범을 특정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작가는 아마도 典故를 통한 수수께끼의 해결이라는 장치에 집중한 나머지 앞에 제시한 범인의 성이 邱씨라는 설정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이라 추측해볼 수도 있겠다.

세 번째 경우는 邵와 邱의 字形을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는 작가의 실수가 아닌 인쇄과정에서 살피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여러 가지 방향으로 邵禮懷와 邱禮懷가 혼용된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세 경우 다 합당한 이유라 생각되긴 하지만 19회에서 邵禮懷가 자백하는 장면을 보면 邵禮懷가 심사숙고하여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닌 급작스럽게 범행을 저지른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경우보다는 작가의 실수이거나 인쇄 시의 오류일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하지 않나 싶다.

## ② 武承業과 武承嗣

『狄公案』의 후반부에는 많은 역사인물이 등장한다. 그중 武承嗣가 언급되는 장면이 많은데 이와 함께 비슷한 이름의 인물이 등장한다. 바로 武承業이다. 武承業은 사실 실제 인물이 아닌 작가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다. 하지만 작가는 본문 중에서 독자로 하여금 종종 武承業과 武承嗣를 한 사람으로 오인하게 만드는데 黃憶婷의 논문은 武承業과 武承嗣가 혼용된 상황을 표로 정리하고 있다.

<표5-5 : 武承業과 武承嗣의 혼용상황><sup>156)</sup>

회수	혼용상황
----	------

156) 黃憶婷, 『『狄公案』與史事之互證』, 淡江大學 석사논문, 2015, 65쪽.

46, 47, 48	武承業만 등장하는 부분
50, 51, 53, 54, 55, 59, 60, 61	武承嗣만 등장하는 부분
52, 56, 63	武承業과 武三思가 동시에 출현하나 武承嗣의 점유율이 비교적 높은 부분
57	武承業과 武三思가 동시에 출현하나 武承業의 점유율이 비교적 높은 부분

본문의 여러 부분에서 이 두 인물을 동일인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46회에서 48회까지의 상황에서 武承業을 형부상서의 자리에 두고 있고, 56회에서 武承嗣가 薛懷義의 일로 형부상서 직에서 물러나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병부상서로 임명된다. 그 후 57회에서 또 武承業이 병부로 돌아왔다 서술하고 있으니, 한 사람으로 오인할 수 있겠다 여겨진다. 하지만 63회에서 狄仁傑이 廬陵王이 모함당한 사건을 해결하자 이에 武承嗣는 음독자살하고, 武承業은 재물을 가지고 도망하였으며 武三思는 武承嗣에게 모든 죄상을 전가하고 사태가 반전되기를 기다렸다. 이 부분에서 武承嗣와 武承業이 전혀 다른 인물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sup>157)</sup> 문자학이나 성운학 측면에서 살펴봐도 작가가 武承業과 武承嗣를 오기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그렇다면 작가는 왜 이러한 오인이 생기도록 굳이 武承業이란 인물을 창조해낸 것일까? 작가는 武三思와 武承嗣 등 무씨 일족들이 한 모든 악행들을 武承業이란 허구의 인물을 통해 부각시켰다. 결국 이러한 인물들이 모여 전체적으로 ‘선’을 대변하는 狄仁傑의 대척점에 서있는 ‘악’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겠다.

## (2) 관직명, 지명 등의 오류

『狄公案』은 당대를 배경으로 하므로 본문 중에 등장하는 관직명과 지명은 모두 당대의 관직명과 지명이어야 한다. 하지만 『狄公案』에는 왕왕 다른 시기의 관직명과 지명이 쓰여 혼동을 주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狄仁傑이 昌平丞尹이

157) 黃憶婷, 『『狄公案』與史事之互證』, 淡江大學 석사논문, 2015, 65~66쪽.

되기 전 임명되었던 汴州參軍과 并州法曹은 사서의 기록에 따른 것으로 오류가 없다. 또한 縣令, 同平章事, 通事舍人, 昭文館學士 등의 관직명은 당대의 정식 관직이었다. 하지만 狄仁傑이 후반부에 제수 받은 河南巡撫라는 관직은 명청대의 관직명이고, 趙大成, 方如海 등이 맡은 都指揮使는 명대에 만들어진 지방군의 지휘를 담당하는 관리이며, 九門提督은 청대의 관직으로 京師의 수비와 치안을 담당하는 이였다.

지명의 경우 당대의 지명보다는 오히려 명청대의 지명이 더 많이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3회에서 狄仁傑이 암행하여 雙土寨를 살필 때 北京에서 온 비단상인으로 위장하였는데 이때 '北京'이라는 지명이 등장한다. '北京'이라는 지명은 명 成祖 때에 정해진 이름이다. 또한 55회의 제목인 「太行山王魁送信 東京城敬宗定謀」에서 東京은 북송시기의 汴梁을 말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62회에서 懷慶府와 孟縣이라는 지명이 등장하는데 懷慶府는 명대의 지명으로 당대에는 淸州道라 불렸다. 또한 孟縣은 당대에 孟州로 승격되었으나 명 洪武帝때 孟縣으로 개칭되었다.<sup>158)</sup>

이외에도 『狄公案』은 여러 가지 설정의 오류를 범하였는데 예를 들어 작품 중에 등장하는 화폐인 은은 당대에는 화폐로 사용되지 않았다는지, 『狄公案』의 최고 극형인 '凌遲'형은 원래 송대에 출현하여 명청대로 이어진 형벌이었다는 사실 등이 있다.<sup>159)</sup> 그러니 당대에는 '凌遲'형이 없었다는 말인 것이다.

그렇다면 작가는 어째서 관직명이나 지명 등 설정에 이렇게나 많은 오류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정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이는 작가 본인의 교육수준의 문제일수도 있다. 관직과 지명에 관한 많은 자료들이 당시에도 존재했으므로 작가 자신이 이에 관한 자료를 깊이 연구하거나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자신이 아는 내용으로 대충 얼버무린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王德威는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 고전소설의 세계에서 역사적 상황과 연결될 수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소설 서술에서 언어, 복식, 예의범절 및 도덕규범

158) 黃憶婷, 「『狄公案』與史事之互證」, 淡江大學 석사논문, 2015, 67~68쪽.

159) 杜文玉, 『狄仁傑評傳』, 三秦出版社, 2000, 313~314쪽

등에 대한 기록은 비록 시대착오적인 현상이 있더라도 저자/설화인 및 독자에게 매우 중시된다.<sup>160)</sup>

교육수준의 문제를 차치하고 나면 한 가지의 가능성이 남는다. 바로 작가가 의도적으로 오류를 범한 경우이다. 작가의 의도가 당시의 정치상황을 풍자 비판하는 것이라 한다면 작가는 작품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게 해야 한다. 그러려면 작가는 독자가 보다 쉽게 작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안배해 두어야 한다. 『狄公案』의 대상독자층이 일반 민중들이라면 그들은 당대의 관직명, 지명 등과 같은 정보를 접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므로 작가는 독자들이 잘 모르는 정보를 배제하고 당시의 관직명, 지명 등을 사용하였으며, 게다가 영운<sup>161)</sup>과 같은 정식 관제에는 없는 속칭을 사용하여 독자들에게 이야기의 내용을 보다 명료하게 전달한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필자는 작가가 의도적으로 인명이나 지명, 관직명 등을 혼용하고 오기하였으리라 생각한다.

## 2) 사건의 연쇄식 안배

위에서 단편공안소설의 서사구조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狄公案』의 경우 장편이므로 단순한 서사구조 양상을 띠지 않고 복합적으로 결합되어있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陳穎은 『施公案』을 예로 공안소설 서사구조의 특징을 설명했다.

『施公案』은 구조 예술적으로도 공안협의소설 구조방법의 기초를 다졌다. 그렇게 창조된 연쇄식의 구성방식은 후세의 여러 공안소설에 답습되었다. 이러한 구성방식의 특징은 공안을 가지고 차례로 이어놓았다는 것인데, 앞선 사건이 마무리되기 전에 다음 사건이 발생하며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때로는 여러 작은 사건들이 하나의 큰 사건에 걸려있고, 하나의 큰 사건은 다시 몇

160) 王德威, 『想像中國的方法 - 歷史·小說·敘事』, 三聯書店, 1998, 303쪽. "在中國古典小說的世界裏, 只要能與歷史情境扯上關連, 則任何事物皆有其意義。至於小說敘述中對語言、服飾、禮節舉止及道德規範等紀錄, 即使有時代錯置的現象發生, 卻鮮為作者/說話人及讀者所重視。"

161) 俞尹은 춘추전국시대 초나라의 최고 관리를 뜻하는 것으로 국내의 국사와 대외의 전쟁을 책임짐.

개의 상대적으로 독립적이면서도 앞뒤로 얽힌 작은 사건들로 나뉘어져 마치 진주가 꿰어져있듯 갈라지기도 하지만 또 한 꿰미가 되기도 하니, 많아도 질서가 있고 흩어져도 어지럽지 않게 하나의 빈틈없는 이야기를 형성하였다.

(『施公案』在結構藝術上也奠定了公案俠義小說結構方法的基礎。其所創造的勾連串套式的結構方法爲後來諸多公案小說所沿襲。這種結構方法的特徵是以公案相, 前案未結, 後案又起, 環環相扣。有時數小案懸於一大案, 一大案又分成數個既相對獨立又前後勾連的小案, 猶如珍珠串連, 撒開一般, 又提起一串, 多而有序, 散而不亂, 形成一個交織嚴密的故事網。)162)

『施公案』 이후 몇몇 공안소설들은 이러한 연쇄식의 구조를 받아들였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狄公案』이다. 특히 전반부의 형사사건은 세 가지 사건이 『施公案』의 설명과 같이 앞 사건이 아직 마무리되기도 전에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를 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표5-6 : 전반부 사건의 연쇄성>163)

사건	한 회에 하나의 사건을 기술	한 회에 두 개의 사건을 기술
첫 번째 사건 : 六里墩 살인사건	1, 2, 13, 14, 16, 17, 18	첫 번째 사건 + 두 번째 사건 : 3, 11, 12, 15, 30
두 번째 사건 : 皇華鎮 남편 살인사건	4, 5, 6, 7, 8, 9, 10, 25, 26, 27, 28, 29	첫 번째 사건 + 세 번째 사건 : 19
세 번째 사건 : 華文俊 부인 급사사건	20, 21	두 번째 사건 + 세 번째 사건 : 22, 23, 24

한편, 『狄公案』 후반부는 차근차근 복선을 깔아두는 방식을 취했다. 張昌宗의 奴僕인 曾有才의 사건부터 白馬寺의 淫僧 懷義의 민부검탈사건을 지나 무씨 일당과 정면으로 맞붙고 결국 廬陵王의 誣告를 밝혀내는 장면까지 차례대로 사건

162) 陳穎, 『中國英雄俠義小說通史』, 江蘇教育出版社, 1998, 109쪽.

163) 黃憶婷, 『『狄公案』與史事之互證研究』, 淡江大學 석사논문, 2015, 71쪽.

\* 필자 注 : 黃憶婷의 논문에서는 24회를 두 번째 사건의 단독서술로 분류하였으나 필자가 확인한 결과 두 번째 사건과 세 번째 사건이 겹치는 부분이어서 수정함.

이 진행된다. 전반부의 구조와는 사뭇 다르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반부의 연쇄식 서사구조는 사건의 해결속도를 작가의 뜻대로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 물론 어떠한 경우에는 혼란을 야기하기도 하지만 독자들을 매료시키는 하나의 강력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 이를 통해 『狄公案』이 전반부와 후반부라는 이중적 구조를 띠는 이유를 짐작해볼 수 있다. 『狄公案』의 강렬한 정치성은 청대의 '文字獄'이라는 독특한 정책으로 인해 미처 피지도 못하고 사라져버릴 가능성이 있었다. 그리하여 작가는 일단 이름을 감추었으며, 후반부에 대한 감시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전반부의 세 가지 형사사건을 제시한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전반부의 사건의 제재가 재물을 탐하여 사람을 살해한 이야기, 간음하려 남편을 살해한 이야기 등이므로 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으며 작가는 이를 통해 慈禧太后를 비판하려는 목적을 달성했다.

### 3) 제한적 서사시점

陳平原은 그의 책 『중국소설의 근대적 변천(中國小說敘事模式的變遷)』에서 소설의 서사시점에 대해 퍼시 러벅 (Percy Lubbock), 츠베탕 토도로프(Tzvetan Todorov), 제라르 주네트(Gérard Genette)의 이론을 참조하여 세 가지로 나누어 소개했다. 전지적 서사, 제한적 서사 그리고 순객관적 서사가 바로 그것이다. 전지적 서사의 경우 화자는 어디든지 존재할 수 있고, 무엇이든 모르는 것이 없으며, 글 속의 어떠한 인물도 알 수 없는 비밀을 알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제한적 서사는 화자가 알고 있는 정도가 작중인물이 알고 있는 정도와 같다. 인물이 모르는 일은 화자 역시 서술하고 말할 권리가 없으며 1인칭 또는 3인칭으로 서술하는 경우다. 마지막으로 순객관적 서사는 화자가 인물이 보고 들은 것만을 묘사할 수 있을 뿐, 주관적 평가나 인물의 심리분석을 할 수 없다.<sup>164)</sup>

이러한 분류를 통해 본다면 중국의 고대소설은 기본적으로 전지적 시점을 위주로 서술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申丹의 『敘述學與小說文體研究』에는 전지적 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164) 陳平原 著, 이종민 역, 『중국소설의 근대적 전환(中國小說敘事模式的變遷)』, 산지니, 2013, 93~94쪽.

전지적 서술은 모두가 익히 아는 일종의 전통서술양식으로 그 특징은 일정한 관찰위치를 설정해놓는다는 것이다. '상제'와 같은 전지전능한 서술자가 어떠한 각도에서든, 어떠한 시공간에서나 서사를 할 수 있다. 높은 곳에서도 대략적인 면모를 조감할 수 있고, 다른 곳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볼 수도 있으며, 인물의 과거, 현재와 미래까지도 훤히 알 수 있고, 마음대로 인물의 내면을 투시할 수도 있다.<sup>165)</sup>

물론 모든 고대소설이 모두 전지적 서사로 쓰인 것은 아니다. 문언필기체 소설에는 의도적으로 시점을 제한하는 방식이 사용된 작품들이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이는 문언필기체 작품들이 대개 단편이기 때문에 시점의 통일이 비교적 수월했기 때문이며, 또한 진정한 의미에서 제한적 서사라고는 할 수 없는, 이를테면 3인칭 제한적(관찰자)시점이라 불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장편백화소설에는 진정한 의미의 제한적 시점이 쓰인 예를 찾아볼 수 없으며 있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쓰였을 따름이다.

『狄公案』 또한 작품의 전체적인 시점은 전지적 시점을 유지하고 있다. 『狄公案』에서 전지적 시점의 서술이 가장 많이 보이는 곳은 후반부의 여러 사건들에서이다. 전체적인 줄거리가 狄仁傑이 당 황실을 회복하기 위해 무씨 일당과 대결하는 것이므로 직접적인 서사로 차근차근 설명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그리하여 후반부에는 연쇄적으로 사건이 발생하고 狄仁傑이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위주로 서술되고 있다.

전반부의 경우 앞서 범인에 대한 정보를 시작하면서부터 제시하지 않고 중반 이후에야 비로소 범인이 밝혀지는 형태로 서사가 운용되었다. 이러한 사건의 전개에 대한 제한적 정보제공에 대해 安莉莉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를 "서사 시각의 하나의 돌파<sup>166)</sup>"라고까지 말했다. 하지만 전반부의 세 가지 사건을 찬찬

165) 申丹, 『敘述學與小說文體研究』, 北京大學出版社, 1998, 229쪽. “全知敘述是大家十分熟悉的一種傳統敘述模式, 其特點是設有固定的觀察位置, ‘上帝’般的全知全能的敘述者可以任何角度、任何時空來敘事: 既可高高在上地鳥瞰概貌, 也可看到在其他地方同時發生的一切; 對人物的過去、現在和未來均瞭如指掌, 也可任意透視人物的內心。”

166) 顏莉莉, 「試論中西『狄公案』的不同敘事視覺」, 泉州師範學院學報(社會科學), 2006, 129쪽.



히 살펴보면 마냥 그러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사건에서 狄仁傑은 우선 범인을 邵禮懷로 추론하고 후에 邵禮懷가 잡힌 후 범행동기와 과정을 알게 되고, 두 번째 사건에서 직관에 의거하여 범인을 피해자의 아내인 주씨로 특정하였으나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어떠한 증거도 찾아내지 못하고 마지막에 주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나서야 살해방법을 알게 된다. 마지막 사건에는 華國祥의 며느리가 갑자기 급사하자 이를 밝혀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해결의 실마리는 결국 차를 마실 때 '우연히' 떨어진 먼지를 통해 풀리게 된다. 물론 이를 사건전개에 대한 제한적인 정보제공이나 도치서술 등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모든 사건의 해결과정이 狄仁傑의 행동과 직관 등으로 인해 급진전되므로 서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서사양식은 독자의 사건에 대한 판단이나 해석, 추리 등을 무력화시키고 결국 독자의 흥미를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고 생각한다.

#### 4. 소결

이 장은 『狄公案』의 서사구조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공안서사는 대개 화본에서부터 출발하므로 화본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물론 명대 단편공안전집에 이르면 화본체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서관체로 대체되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지만 큰 줄기는 화본체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공안소설의 서사구조는 역대의 여러 작품에서 다듬어지면서 구조화 되었고, 후대의 작품들은 이를 답습하여 나중에는 특별할 것이 없는 그저 그런 작품들로 전락하고 만다. 이를 중국 문학의 전통이라 보는 시각도 있지만 공안소설에 대한 평가를 낮추는 요인이 된다는 표현이 정확할 듯하다.

『狄公案』의 서사구조 또한 전통적인 공안서사를 답습하고 있으므로 사건발생 - 해결과정 - 심판의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탄생했다. 하지만 작가는 이 와중에 운용의 묘를 보여주었는데, 예를 들어 서사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양식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인명이나 지명, 관직명 등의 서

사장치를 이용하여 작가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연쇄식의 사건 구성을 통해 독자들이 중간에 흥미를 잃지 않도록 구성에 신경을 썼으며 제한적인 서사시점 또한 이와 같은 이유로 사용되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고전서사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한계를 드러낸다. 진정한 의미의 근대소설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렇다면 『狄公案』의 서사구조는 어떠한 특징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앞서 창작배경에서도 설명하였다시피 『狄公案』은 정치풍자에 방점을 찍는 작품이다. 어쨌거나 많은 독자들이 이 작품을 보고 慈禧太后와 그 일파의 부정부패를 인식하고 함께 비판할 수 있도록 하여야만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품에 대한 흥미가 도중에 식지 않도록 다양한 서사적인 변주가 필요했고 앞서 설명했던 다양한 운용의 묘를 발휘해 낸 것이다. 비록 근대소설의 그것에는 한참 모자란 수준의 작품일지라도 당시 시대가, 청 말의 어지러운 사회를 살아가던 민중들이 所求하던 작품이므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 할 것이다.

## VI. 결론

공안소설은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서 발생한 수많은 민·형사적 사건들을 소재로 하는 소설의 한 장르이다. 이는 사회의 어두운 면을 꿰뚫히게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하지만 공안소설이라는 장르적 한계에 기인하여 문학사적으로 저평가된 것 또한 사실이다.

『狄公案』은 청 말의 대표적인 공안소설 중 하나로 당대의 유명한 재상 狄仁傑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이다. 총 64회의 장편 공안소설로 전반부의 세 가지 형사 사건과 후반부의 궁중 정치암투로 구성되어 독특한 면이 있다. 하지만 전·후반부 모두 기본적으로는 공안소설의 구성인 사건발생→사건조사→심판으로 대표되는 서사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은 공통점이라 하겠다.

초기의 공안작품을 제외하고 그 이후에 나온 공안소설들은 대체로 한 명의 판관이 작품 전 범위에 걸쳐 영향을 끼치는 판관을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된다. 그러므로 주인공인 판관의 형상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판관들은 대부분이 실제 인물이며 淸官으로서 백성들의 추앙을 받는 존재이다. 淸官은 그저 청렴함만을 덕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직무에 능하고 백성들을 자기 자식과 같이 아끼며 윗사람이 잘못하면 면전에서 직간할 수 있는 강직함 등 여러 복합적인 요소가 결합된 관리의 표상과 같은 존재이다. 범죄로 대표되는 어지러운 사회현실 속에서 淸官이란 존재는 백성들의 여망을 대신 들어주는 존재이므로 오래도록 사랑받고 추앙받는 것이 아닐까?

『狄公案』의 주인공인 狄仁傑 또한 이 ‘淸官’이라는 단어에 들어맞는 인물이다. 본 논문은 狄仁傑의 인물형상이 실제 역사인물에서 문학작품인 『狄公案』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치며 형상화되었는가에 관해서 고찰하였다. 史書 속 狄仁傑은 강직하고 능력 있는 관리로 기술되어 있다. 특히나 간관으로서의 그의 형상은 후대의 작품에도 계속 반영되었다. 이후에 당·송대를 거치며 확립된 狄仁傑 형상은 명·청대에 이르러 여러 가지 형태로 다각화된다. 간관의 형상에서 노련한 정치가, 엄정한 판관, 군략가, 협객 등 수많은 인물형상으로 묘사되고, 게다가 그

를 신격화하여 지옥의 어사 등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는 狄仁傑이 일종의 전 타식인물이 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狄公案』의 인물형상은 공안소설이라는 장르적 특성에 기인하여 핵심인물인 판관과 부차적인 인물로 나뉜다. 『狄公案』의 핵심인물인 狄仁傑은 판관으로서 여러 사건을 해결하며 淸官으로서의 모습을 보인다. 작품의 후반부에서 武則天의 면전에서 무씨 일당의 부정부패를 直訴하는 간관이자 반역의 무리를 토벌하는 군 지휘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이는 누대에 걸쳐 형성된 狄仁傑이란 문학 인물의 精華라 말할 수 있다. 한편, 부차적인 인물은 조력자와 가해자, 피해자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는데 조력자의 경우 狄仁傑을 따르는 네 명의 수하들을 통해 작가의 협의관을 고찰하였고, 가해자는 惡漢과 惡婦로 나누어 그들이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들의 범행을 통해 작가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인지 생각해 보았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商人과 烈婦로 나누어 사회적으로 그들이 어떠한 약점을 가지고 있었기에 범행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본 논문은 『狄公案』의 작자와 창작배경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狄公案』이 갖는 강렬한 정치적 성격은 후반부에 주로 나타나는데 작자는 『狄公案』의 주인공인 狄仁傑이 활동하던 武則天 시대를 통해 작품이 창작된 시기의 정치상황을 풍자하려는 의도를 갖는다. 다시 말해 작품이 창작된 시기인 청말, 더 자세히 얘기하면 咸豐帝, 光緒帝 재위기간에 청 왕조를 좌지우지하던 慈禧太后(서태후)를 겨냥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자는 정치적 위험성으로 인해 스스로를 밝힐 수 없었고, 결국 『狄公案』의 작자는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狄公案』의 서사구조는 대부분의 공안소설과 궤를 같이 하므로 『狄公案』만의 특이점을 찾기에 어려움을 준다. 하지만 사건 조사과정에서 사용된 초현실적인 존재의 도움을 받는다거나 하는 중국식 색채가 여타의 공안소설보다는 열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본격적인 추리소설과는 비할 바가 아니지만 이를 통해 『狄公案』이 공안소설에서 현대의 추리소설로 넘어가는 일종의 과도기적 형태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청말의 공안소설인 『狄公案』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狄公案』은 狄仁傑이라는 실제인물이 누대에 걸쳐 문학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인물형상을 매우 다채롭게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사서의 기록에서 시작

해 명대 이전의 지인, 지괴작품들과 명청대의 백화소설에서 형성된 여러 가지 인물형상이 총집되어 『狄公案』 속 狄仁傑을 보다 입체적으로 그리고 있다. 또한 부차적 인물의 묘사를 통해 당시 사회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다.

서사구조적인 측면에서 『狄公案』은 공안소설의 전통이라 할 수 있는 典範化로 인해 여타의 다른 소설들과 비교했을 때 그다지 다른 점이 없어 보이긴 하다. 하지만 서사적인 측면에서 비현실적인 요소를 자제하려는 개선의 노력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章回體의 장편공안소설이라는 성격에 맞게 서사구조를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독자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수단으로 삼았다. 이 과정에서 인명의 혼용이나 관직명, 지명 등의 착오와 같은 실수인지 의도인지 모를 요소들과 함께 시점 측면에서 제한적 서사시점을 사용하여 독자들의 긴장감을 떨어뜨리지 않으려 노력하였다.

한편, 『狄公案』의 백미라 할 수 있는 후반부의 이야기는 앞서 언급한 반 홀릭의 말처럼 공안소설로서의 성격을 희석시키는 단점이라 평가되기도 한다. 말 그대로 사건의 기록문서라는 공안의 원래 의미를 생각해본다면 굳이 정치적 투쟁에 관한 언급은 없어도 무방하리라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창작배경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오히려 전반부의 세 가지 사건은 후반부에 대한 관심을 약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엄폐물 역할을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작가는 당대의 武則天 시기의 혼란한 정치상에 당시의 현실을 녹여내는 ‘借古諷今’의 서술태도를 보인다. 武則天과 그의 주위에서 호가호위하는 세력들과 慈禧太后 일파를 동일선상에 놓고서 狄仁傑이란 인물을 설정하여 무씨 세력과 대척점이 두어 끊임없이 투쟁하도록 만들었다. 독자들은 이를 통해 慈禧太后의 부정함과 그를 따르는 세력의 부패를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되고 비판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때문에 작가는 스스로를 밝히지 않았고 어떠한 정보도 남기지 않았다. 그리하여 지금까지도 『狄公案』의 작가는 未詳인 채로 남아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狄公案』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그 당시에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서술된 다른 공안소설을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므로 비슷한 시기에 출간된 다른 작품들과 『狄公案』 사이의 연관성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각 작품에 대한 서사구조 및 전개 양상을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여겨진다.

## 參 考 文 獻

### 1. 원전류

- 李昉, 『太平廣記』, 中華書局, 北京, 1961.  
劉昫, 『舊唐書』, 中華書局, 北京, 1975.  
趙爾 撰, 『清史稿』. 中華書局, 北京, 1977.  
古本小說集成委員會, 『古本小說集成·武則天四大奇案』, 上海古籍出版社, 上海, 1994.  
劉餗 撰, 『隋唐嘉話』, 中華書局, 北京, 1997.  
如蓮居士, 『薛剛反唐』, 三秦出版社, 西安, 2003.  
司馬光 撰, 권중달 譯, 『자치통감 22』, 삼화출판사, 서울, 2009.  
佚名, 『狄公案』, 三秦出版社, 西安, 2005.  
佚名, 『狄公案』, 中州古籍出版社, 鄭州, 2009.  
不題撰人, 『狄公案』, 山西人民出版社, 太原, 2009.  
不題撰人, 『狄公案(通俗本)』, 四川人民出版社, 成都, 2010.  
吳趸人, 『狄公案』, 雲南人民出版社, 昆明, 2011.

### 2. 단행본

#### <國外>

- 黃巖柏. 『中國公案小說史』, 遼寧人民出版社, 瀋陽, 1991.  
蕭金林, 『中國現代通俗文學選評·偵探卷』, 上海, 上海文藝出版社, 1992.  
朱萬曙, 『包公故事源流考述』, 安徽文藝出版社, 合肥 1995.  
張國風, 『公案小說漫話』, 江蘇古籍出版社, 南京, 1995.  
阿英, 『晚清小說史』, 東方出版社, 1996.  
孟犁野, 『中國公案小說藝術發展史』, 警官教育出版社, 北京, 1996.  
王德威, 『想像中國的方法 - 歷史·小說·敘事』, 三聯書店, 北京, 1998.  
孔繁敏, 『包拯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北京, 1998.  
曹亦冰, 『俠義公案小說史』, 浙江古籍出版社, 杭州, 1998.  
陳穎, 『中國英雄俠義小說通史』, 江蘇教育出版社, 南京, 1998.  
申丹, 『敘述學與小說文體研究』, 北京大學出版社, 北京, 1998.  
黃巖柏, 『公案小說史話』, 瀋陽, 遼寧教育出版社, 2000.

杜文玉, 『狄仁傑評傳』, 三秦出版社, 西安, 2000.  
 石昌渝, 『中國古代小說總目·白話卷』, 太原, 山西教育出版社, 太原, 2004.  
 呂小蓬, 『古代小說公案文化研究』, 中央編譯出版社, 北京, 2004.  
 苗懷明, 『中國古代公案小說史論』, 南京大學出版社, 南京, 2005.  
 袁行霈, 『中國文學史 第四卷』, 高等教育出版社, 北京, 2005.  
 胡適, 『胡適文存3集』, 外文出版社, 北京, 2009.  
 劉亦發, 『中國全史』, 中國辭書出版社, 北京, 2009.  
 胡士莹, 『話本小說概論』, 常務印書館, 北京, 2011.  
 于賡哲, 『狄仁傑真相』, 陝西師範大學出版總社, 西安, 2013.  
 郭天印, 董曉英, 『狄仁傑傳』, 山西人民出版社, 太原, 2015.

#### <國內>

이규정, 『현대소설의 이론과 기법』, 박이정, 서울, 1998.  
 魯迅, 조관희 譯, 『中國小說史』, 소명출판, 서울, 2004.  
 김상범, 『당대 국가권력과 민간신앙』, 신서원, 서울, 2005.  
 陳平原 著, 이종민 譯, 『중국소설의 근대적 전환(中國小說敘事模式的變遷)』, 산지니, 부산, 2013.  
 장용 著, 이종인 譯, 『서태후: 현대 중국의 기초를 만든 통치자 1』, 책과 함께, 서울, 2015.  
 정선경, 『중국소설과 지식의 조우』, 소명출판, 서울, 2017.  
 한국고전용어사전 편찬위원회, 『한국고전용어사전』,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1.

### 3. 학위논문

夏啓發, 「明代公案小說研究」, 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 박사논문, 2001.  
 劉強, 「清代長篇俠義公案小說의民間化傾向」, 靑島大學 석사논문, 2007.  
 邵婷君, 「明代短篇公案小說專集模式研究」, 南京師範大學 석사논문, 2007.  
 范正群, 「清代俠義公案小說研究」, 揚州大學 박사논문, 2008.  
 張晨, 「中國古代白話短篇公案小說의敘事特徵」, 天津師範大學 석사논문, 2011.  
 閔博, 「清代俠義公案小說의敘事模式研究」, 陝西理工學院 석사논문, 2011.  
 黃憶婷, 「『狄公案』與史事之互證研究」, 淡江大學 석사논문, 2015.  
 汪達文, 「古代小說中的狄仁傑形象流變研究」, 北京外國語大學 석사논문, 2015.  
 강주완, 「『百家公案』研究」,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02.

고속희, 「包公 公案小說 研究 : 『百家公案』과 『龍圖公案』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2003.

김규태, 「『狄公案』의 狄仁傑 形象 研究」, 제주대학교 석사논문, 2014.

吳曉麗, 「명대 공안소설의 서사전략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17.

#### 4. 소논문

臯于厚, 「明代公案小說의發展演進」, 『江蘇警官學院學報』, 1999年 6期.

魏泉, 「中外『狄公案』比較」, 『許昌師專學報』, 1999年 4期 .

苗懷明, 「明代短篇公案小說集的商業特性與文學品格」, 『社會科學』, 2001年 3期.

郭浩帆, 「清末民初小說與報刊業之關係探略」, 『文史哲』, 2004年 3期.

邢意和, 「『狄公案』中國家法律思想與民間法律思想的矛盾」, 『沈陽農業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5年 1期.

李世新, 「俠義小說和公案小說合流的社會文化探源」, 『中南民族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2006年 1期.

魏泉, 「公案與偵探:從『狄公案』說起」, 『雲南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6年 4期.

顏莉莉, 「試論中西『狄公案』的不同敘事視角」, 『泉州師範學院學報』, 2006年 1期.

王湘華, 「論清代白話公案小說中的鬼神因素」, 『長春工業大學學報』, 2006年 1期.

孫翠秀, 「兩唐書中『狄仁傑傳』之比較」, 『林區教學』, 2007年 11期.

曾玲, 「明代白話公案小說中判官形象的發展和演變」, 『牡丹江師範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8年 2期.

楊小娜, 「俠義公案小說的平民文學色彩」, 『民辦教育研究』, 2009年 8期.

魏豔, 「論狄公案故事的中西互動」, 『中國比較文學』, 2009年 1期.

史宗義, 「慈禧太後的女人生活」, 『文學天地』, 2010年 4期.

秦川, 「明清小說的倫理觀與和諧文化」, 『明清小說研究』, 2012年 3期.

王凡, 「由周氏的“淫婦”形象看『狄公案』的女性觀」, 『濰博師專學報』, 2014年 1期.

黃海燕, 「高羅佩『狄公案』研究現狀與進展」, 『蕪湖職業技術學院學報』, 2014年 2期.

王凡, 「『狄公案』中的江湖豪俠形象及其意蘊探微」, 『鄖陽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2015年 1期.

汪達文, 呂小蓬, 「從敘事學角度分析『狄公案』對“勘釘”故事的創新」, 『蚌埠學院學報』, 2015年 2期.

박소현, 「공안소설 다시 읽기 -문화적 경계의 탐색」, 『중국소설논총』 제17집, 2003.

조재현, 「고전소설에 나타나는 저승계 연구」, 『어문연구』 35권 2호, 2007. 177쪽.



<부록>

狄仁傑 年譜 簡編<sup>167)</sup>

年度/年號	나 이	事 跡
630 貞觀4年	1歲	長安에서 태어남. 아버지는 狄知遜이고, 어머니는 盧氏임.
636 貞觀10年	7歲	부모를 따라 鄭州(지금의 河南 鄭州)로 이사함.
637~655 貞觀11年~ 永徽6年	8~26歲	부친의 임지이동에 따라다니며 문과 무를 닦고, 더불어 의술을 배움.
656~674 顯慶元年~ 上元元年	27~45歲	明經科에 급제하여 汴州(지금의 河南 開封)判佐로 임명됨.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방의 관리들에게 무고를 당하였으나 閻立本을 만나게 되어 위기를 벗어남. 閻立本의 추천으로 并州(지금의 山西 太原西南)都督部の 法曹參軍으로 승진함.
675 上元2年	46歲	京師로 들어가 大理寺丞이 되어 일 년에 심리한 안건이 17,800건이나 되었으나 아무도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음.
676 儀鳳元年	47歲	9월 權善才와 范懷義가 잘못하여 昭陵의 잣나무를 베었다. 狄仁傑이 교묘하게 高宗을 설득시켜 두 사람은 죽음을 면하게 됨. 이로 인해 高宗의 관심을 받게 된 狄仁傑은 侍御史로 승진함.
679	50歲	司農卿 韋弘機가 토목공사를 크게 벌이자자 狄

167) 본 年譜는 于廣哲, 『狄仁傑真相』, 陝西師範大學出版總社, 西安, 2013, 253~255쪽과 郭天印, 董曉英, 『狄仁傑傳』, 山西人民出版社, 太原, 2015, 294~295쪽의 내용을 정리하여 옮긴 것이다.

調露元年		<p>仁傑은 그가 황제가 사치생활을 추구하도록 유도하고 국력을 소모하게 하였다고 생각하여 그를 탄핵하였고, 결국 韋弘機는 조정에서 파직됨.</p> <p>左司郎中 王本立이 왕의 총애를 믿고 권력을 농단하다가 狄仁傑에 의해 탄핵된 후 벌을 받게 되었음. 이로 인해 조정이 숙연해짐.</p>
680~685 永隆元年~ 垂拱元年	51~56歲	<p>683年, 寧州(지금의 甘肅 寧縣)자사로 전임되었는데 선정을 베풀어 공적이 쌓이자 백성들이 生祠를 세워 그의 공덕을 칭송함.</p>
686 垂拱2年	57歲	<p>監察御史 郭翰의 추천으로 冬官(工部)侍郎으로 승진되었음.</p>
688 垂拱4年	59歲	<p>2월에 司屬卿 王及善, 司府卿 歐陽通과 함께 安撫使로 임명되어 山東과 河南에서 굶주리는 백성들을 구휼함.</p> <p>6월에 江南巡撫大使로 임명되어 풍속을 교화함.</p> <p>8월에 洛陽으로 돌아와 文昌右丞에 임명되었음.</p> <p>9월에 豫州(지금의 河南 汝南)刺史로 전임되었는데 越王의 난에 연좌된 수천 명의 죄인들을 사면해 줄 것을 청함. 후에 이로 인해 재상 張光輔에게 밋보여 復州(지금의 湖北 沔陽 동쪽)자사로 폄적됨.</p>
689 永昌元年	60歲	<p>洛州(지금의 河南 洛陽 동쪽)司馬로 임명됨.</p>
691 天授2年	62歲	<p>9월에 처음으로 宰相에 임명됨.</p>
692 長壽元年	63歲	<p>1월에 酷吏 來俊臣의 무고로 모반죄로 체포되어 하옥됨. 동시에 재상 任知古 등 6인도 같이 잡힘. 하옥 후 酷刑을 받기 전에 거짓으로 죄를 인정하고는 기지를 발휘해 자신의 억울함을 武則</p>

		天에게 전하게 함. 武則天이 저간의 사정을 파악하고 그를 彭澤(지금의 江西 彭澤縣)縣令으로 貶謫하는 것으로 마무리함.
693~695 長壽2年~ 證聖元年	64~66歲	彭澤縣令으로 재임한 기간 동안 백성들의 추앙을 받았고, 백성들은 그를 위해 生祠를 건립하였음.
696 萬歲通天 元年	67歲	5월에 거란이 반란을 일으켜 冀州(지금의 河北 冀州)를 함락하고, 瀛州(지금의 河北 河間)를 침공함. 狄仁傑은 魏州(지금의 河北 大名 동북쪽) 刺史로 임명되어 인심을 안무하고, 산업을 회복시켰으며 군무를 정돈하여 거란의 침입을 막아냄.
697 神功元年	68歲	6월에 河北安撫使가 되어 婁師德, 武懿宗과 나누어 河北 각지로 가서 전쟁에 피해를 입은 백성들을 按撫하여 유랑민들을 불러들이고, 산업을 회복하였음. 오래지 않아 또다시 幽州(지금의 北京 서남쪽)都督에 임명되어 인심을 안무함. 閏10월에 다시 재상의 자리에 오름.
698 聖曆元年	69歲	2월에 狄仁傑과 吉頊 등 대신들이 누차 간언하자 武則天이 결국 廬陵王 李顯을 돌아오게 하였음. 8월에 武則天이 재상들에게 각 한 명씩 尙書郎에 추천하게 하였는데 狄仁傑이 자신의 아들인 狄光嗣를 추천하였음. 그 인사가 적임이었으므로 武則天이 狄仁傑의 현명함을 칭찬함. 9월에 武則天이 廬陵王을 황태자로 세우고, 狄仁傑을 行軍元帥로 삼아 廬陵王을 도와 대군을 통솔하여 河北을 침범한 突厥에 대항하게 하였음. 돌궐이 河北에서 물러남. 10월에 河北道按撫大使에 임명되어 賦稅와 徭役을 경감하고, 빈민을 구제하였으며 군대가 백성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엄금하는 조치를 시행함.

		여 혼란한 형세를 안정시켰음.
699 聖曆2年	70歲	2월에 武則天이 嵩山으로 순행을 떠남. 8월에 安東都督府를 철폐하고 몰락한 고구려왕 족의 후예를 도와 고구려를 회복하게 할 것을 상 주하였으나 武則天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700 久視元年	71歲	4월에 武則天이 병으로 三陽宮으로 피서를 떠 났는데, 狄仁傑이 수행하였음. 도중에 武則天이 사리를 보러가려하자 그것을 저지하고자 상소를 올림. 7월에 武則天이 洛陽에 大佛을 조성하는 것을 저지함. 9월에 洛陽의 사택에서 病死함. 武則天이 朝會 를 3일간 폐하고, 文昌右相에 追贈하였으며 諡號 를 文惠라 함.
705 神龍元年	서거 후 5년	武則天이 82세가 되어 병이 심해짐. 정월 22일에 張柬之, 桓彥范, 袁恕已 등이 神 龍政變을 일으켜 武則天이 퇴위하도록 압박하여 태자에게 讓位토록 함. 이 정변에 참여한 주모자 들은 모두 狄仁傑이 추천한 인물들임.

# Study on 『Di Gong'an(狄公案)』 Novels

Kim, Kyu Tae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Chinese ‘Gong’an Xiaoshuo(公案小說)’ is a unique genre which is a combination of the universality featured by crime fiction and the traditional idea of China. ‘Gong’an Xiaoshuo(公案小說)’ is originated from the ‘Zhiren Xiaoshuo(志人小說)’ and ‘Zhiguai Xiaoshuo(志怪小說)’ of ‘Northern and Southern dynasties(魏晉南北朝)’ and formed its independent form after the period of the Tang(唐) Dynasty and Song(宋) dynasty. During the Qing(清) Dynasty, it is combined with Xiayi Xiaoshuo(俠義小說), creating a genre named ‘Xiayi Gong’an Xiaoshuo(俠義公案小說)’. In this process, a judge started to appear in the front of the story, and a judge was described as a perfect person by reflecting the traditional idea of China regarding an ‘Qingguan(清官)’. This is started from 『Baijia Gong’an(百家公案)』 where ‘Bao Zheng(包拯)’ of the Song(宋) Dynasty was a main character. After that, consecutive works appeared in a row based on ‘Qingguan(清官)’ who were representative of each period. Among them, 『Di Gong’an(狄公案)』 featured ‘Di Renjie(狄仁傑)’ who was a great prime minister of Tang(唐) Dynasty.

『Di Gong’an』 is a ‘feature-length Baihua Gong’an Xiaoshuo(長篇白話公案小

說)’ from ‘Guangxu(光緒)’ Period in the Late Qing(清) Dynasty composed of 64 volumes. Here, there are diverse types of origin story that feature an actual historical figure ‘Di Renjie(狄仁傑)’ from the period of Tang(唐) and Ming(明)·Qing(清). A literary figure ‘Di Renjie(狄仁傑)’ who was created from these origin stories was described in variety ways, and ‘Di Renjie(狄仁傑)’ was projected as a hero who could realize the desires of the people.

The creative background of 『Di Gong’an(狄公案)』 is focused on criticizing the social chaos during the late Qing(清) period and ‘Empress Dowager Ci Xi(慈禧太后)’ who was the last autocrat of the Qing(清) dynasty. Also, ‘Qianze Xiaoshuo(譴責小說, novels of exposure)’ which was published in newspaper and magazines made by intellectuals to enlighten general people deeply affected diverse types of ‘Gong’an Xiaoshuo(公案小說)’s that were published during this period. The acute social criticism of 『Di Gong’an(狄公案)』 gained sympathy from the public who criticized the ruling power, especially ‘Empress Dowager Ci Xi(慈禧太后)’ but as a trade-off, 『Di Gong’an(狄公案)』 did not leave any names or pseudonyms of the authors to avoid becoming the victims of the literary oppression policy such as ‘Literary inquisition(文字獄)’.

『Di Gong’an(狄公案)』 follows a typical narration of ‘Gong’an Xiaoshuo(公案小說)’ where the main character ‘Di Renjie(狄仁傑)’, his four subordinates and many supportive heroes solve cases. Therefore, there always was a victim and a perpetrator. In 『Di Gong’an(狄公案)』, they were used to reveal and criticize unreasonable absurdity of the society. As such, the image of characters is a feature that shows the author’s awareness of reality.

From a narrative perspective, 『Di Gong’an(狄公案)』 is limited in a sense that it fails to escape from the classic ‘Gong’an’ narrative. However, there were clear efforts to avoid unrealistic features such as dreams and ghosts. Also,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istic of a ‘Chapter Style(章回體)’ feature-length novel, different types of narratives were used and the tension

of the novel was maintained by adopting a limited narrative perspective. But it is criticized for highlighting Confucian edification based on heroism represented by an official of strict integrity and traditional thematic consciousness such as “retributive justice(因果應報)” and “didactic morality(勸善懲惡)”.

『Di Gong'an(狄公案)』 is divided into the first part with a private criminal case and the second part with political struggles in the royal court. Although the second part weakens the characteristic as a ‘Gong’an Xiaoshuo(公案小說)’, its creative background deserves even more attention. The author reflected the reality of the time in the chaotic politics during the era of ‘Wu Zetian(武則天)’. The readers naturally recognized the corruption of ‘Empress Dowager Ci Xi(慈禧太后)’ and her subordinates by the confrontation between ‘Wu(武)’ clans including ‘Wu Zetian(武則天)’ and ‘Di Renjie(狄仁傑)’.

『Di Gong'an(狄公案)』 has weaknesses thus cannot be compared with superior novels from the Ming(明)·Qing(清) period. However, it is worthy of notice as it succeeds the tradition of ‘Gong’an Xiaoshuo(公案小說)’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before the modern detective·mystery novels.

Keywords: 『Di Gong'an(狄公案)』, ‘Gong’an Xiaoshuo(公案小說)’, novel from Qing(清) dynasty, detective novel, Di Renjie(狄仁傑), image of characters, Qingguan(清官), narrative structure, awareness of reality.